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4

역대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역 대 하

2 Chronicles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나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
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15:2)

וַיֵּצֵא לִפְנֵי אֱסָא וַיֹּאמֶר לוֹ שְׁמַעוּנִי אֱסָא וְכָל־יְהוּדָה וּבְנֵי־מִן
יְהוָה עִמָּכֶם בְּהַיּוֹתְכֶם עִמּוֹ וְאִם־תִּדְרֹשׁוּהוּ יִמָּצֵא לָכֶם וְאִם־
תִּעְזְבוּהוּ יֵעָזֹב אֶתְכֶם :

역대하 차례

역대하 서론	〈6 제〉	415
제 1 장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그의 기도	〈12제〉	417
제 2 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16제〉	421
제 3 장 성전 건축에 착수하다	〈13제〉	426
제 4 장 성전 기구들을 만들다	〈19제〉	429
제 5 장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	〈21제〉	434
제 6 장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	〈29제〉	440
제 7 장 불과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22제〉	448
제 8 장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19제〉	454
제 9 장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	〈23제〉	459
제 10 장 이스라엘 열 지파의 반란	〈20제〉	465
제 11 장 르호보암의 처음 3 년간의 통치	〈16제〉	470
제 12 장 애굽 왕 시삭의 침입과 르호보암의 말년	〈17제〉	475
제 13 장 유다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기다	〈20제〉	479
제 14 장 아사의 선정(善政)과 세라의 침입	〈19제〉	484
제 15 장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아사가 시행한 개혁 운동	〈16제〉	489
제 16 장 아사의 실정과 그의 죽음	〈18제〉	494
제 17 장 여호사밧 즉위 초의 교육사업과 국방	〈19제〉	499
제 18 장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다	〈20제〉	505
제 19 장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개혁하다	〈15제〉	511
제 20 장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입을 가도로 물리치다	〈23제〉	516
제 21 장 여호람의 악정(惡政)과 그의 운명	〈17제〉	523

제 22 장	아하시야와 아달라에 의해 꺼질 뻔한 다윗의 등불	〈12제〉	528
제 23 장	요아스의 즉위로 다윗 왕위가 회복되다	〈19제〉	532
제 24 장	요아스의 선정(善政) 과 타락	〈17제〉	538
제 25 장	아마샤의 승전과 패전	〈16제〉	543
제 26 장	웃시야가 강성한 후 교만해지다	〈16제〉	548
제 27 장	요담이 정도(正道)를 행하다	〈10제〉	553
제 28 장	아하스가 끈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다	〈16제〉	556
제 29 장	히스기야가 시행한 성전정화운동(聖殿淨化運動)	〈17제〉	561
제 30 장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절기	〈18제〉	567
제 31 장	제사제도의 개혁	〈15제〉	573
제 32 장	히스기야의 승리와 영광	〈18제〉	578
제 33 장	므낏세와 아몬	〈15제〉	584
제 34 장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율법책	〈19제〉	589
제 35 장	요시야의 유월절	〈19제〉	595
제 36 장	유다 왕국의 멸망	〈13제〉	601

역대하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연구 자료〉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	420
제 2 장	〈화보 자료〉 진설병을 놓는 상(床)	425
제 3 장	〈본장의 요절〉	428
제 4 장	〈화보 자료〉 솔로몬의 늦바다	433
제 5 장	〈화보 자료〉 나팔을 부는 제사장	439

제 6 장	〈본장의 요절〉	447
제 7 장	〈화보 자료〉 메뚜기	453
제 8 장	〈본장의 요절〉	458
제 9 장	〈지도 자료〉 솔로몬의 무역	464
제 11 장	〈본장의 요절〉	474
제 14 장	〈화보 자료〉 주상(柱像)	488
제 15 장	〈화보 자료〉 파피루스(papyrus)에 기록된 성경	493
제 16 장	〈화보 자료〉 군대	498
제 17 장	〈화보 자료〉 활 쏘는 군인들	504
제 18 장	〈본장의 요절〉	510
제 19 장	〈연구 자료〉 선견자(先見者)와 선지자(先知者)	515
제 20 장	〈본장의 요절〉	522
제 22 장	〈본장의 요절〉	531
제 23 장	〈화보 자료〉 아달라의 죽음	537
제 27 장	〈본장의 요절〉	555
제 28 장	〈본장의 요절〉	560
제 29 장	〈본장의 요절〉	566
제 30 장	〈화보 자료〉 무교병을 만드는 사람	572
제 31 장	〈화보 자료〉 밀 이삭	577
제 33 장	〈본장의 요절〉	588
제 35 장	〈연구 자료〉 갈그미스(Carchemish)	600
제 36 장	〈화보 자료〉 강제 이주	605
제 36 장	〈연구 자료〉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幽囚) 및 귀환의 역사	606

역대하 서론

1. ㉠ 본서의 명칭과 그 서론적 의미를 말하라.

㉠ (1) 역대상 서론을 참조하라.

2. ㉡ 본서가 갖는 중심 주제를 역대상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 (1) 본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2) 역대하는 역대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와 사회의 재건(再建)을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3) 역대상이 선민(選民)의 계통(系統)을 밝히고 다윗을 통한 신정(神政) 국가의 확립에 대하여 말한 데 이어 본서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 국가의 완성과 남왕국 유다 열왕(列王)들의 성공과 실패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4)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는 이미(already) 완성되었지만 우리 신자의 차원에서는 아직(not yet)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들이 이러한 긴장과 갈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굳게 붙들므로 계속적으로 성화(聖化)되어 나가야 할 것을 본서는 촉구하고 있다.

3. ㉢ 본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생애와 그 예표적 의미를 말하라.

㉠ (1) 본서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국을 더욱 견고케 한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1:1).

(2) 본서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사생활이나 우상 숭배, 왕궁 건립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솔로몬을 거의 완전한 선민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많은 약점을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다(대상 28:5, 6, 10; 29:1, 25).

(3) 또한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생애는 마치 성전 건축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솔로몬에 대한 1-9장까지의 기록 중 여섯 장에 걸쳐 성전 건축 기사가 언급되어 있다(2-7장).

(4)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요 2:18-22).

(5) 오늘날 우리들은 역대하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에 합당한 신앙의 기준과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4. ㉣ 본서에 나타난 유다 열왕들의 치적과 그 예표적 의미를 말하라.

㉠ (1)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1대 왕으로 볼 때에 20대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재위(在位) 했다.

(2) 역대하는 이 유다 열왕(列王)들의 치적을 레위인 혹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한다.

(3) 하나님께서 전자(前者)에 속한 여섯 왕의 경우 형통과 승리의 축복을 주셨고, 후자(後者)에 속한 여덟 왕과 기타 여섯 왕에게는 배교(背敎)에 따른 징벌과 재난을 가하셨다.

(4) 여호람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도 다윗의 왕손(王孫)이 결코 단절되

지 않은 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21:7).

(5)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타난 유다 왕들의 선정(善政)과 실정(失政)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 신자들의 생활에 명령과 아울러 경고로 주고 있다(벧전2:9).

5. ㉠ 본서의 내용을 세분하라.

㉠ (1) 솔로몬의 통치 / 1:1-9:31

- ① 솔로몬의 등극 / 1:1-17
- ② 솔로몬의 성전 / 2:1-7:22
- ③ 솔로몬의 명성 / 8:1-9:28
- ④ 솔로몬의 죽음 / 9:29-31

(2) 유다의 왕들 / 10:1-36:21

- ① 르호보암 (B. C. 931-913) / 10:1-12:16
- ② 아비야(아비얌, B. C. 913-910) / 13:1-22
- ③ 아사(B. C. 910-869) / 14:1-16:14
- ④ 여호사밧 / (B. C. 873-848) / 17:1-20:37
- ⑤ 여호람(요람, B. C. 848-841) / 21:1-20
- ⑥ 아하시야(B. C. 841) / 22:1-9
- ⑦ 아달랴(B. C. 841-835) / 22:10-23:15
- ⑧ 요아스(여호아스, B. C. 835-796) / 23:16-24:27
- ⑨ 아마샤(B. C. 796-767) / 25:1-28
- ⑩ 웃시야(아사랴, B. C. 790-739) / 26:1-23
- ⑪ 요담(B. C. 750-731) / 27:1-9
- ⑫ 아하스(B. C. 742-725) / 28:1-27
- ⑬ 히스기야(B. C. 728-697) / 29:1-32:33
- ⑭ 므낫세 (B. C. 697-642) / 33:1-20
- ⑮ 아몬 (B. C. 642-640) / 33:21-25
- ⑯ 요시야 (B. C. 640-609) / 34:1-35:27
- ⑰ 여호아하스(B. C. 609-608) / 36:1-4
- ⑱ 여호야김(엘리아김, B. C. 608-597) / 35:5-8
- ⑲ 여호야긴(B. C. 597) / 36:9, 10
- ⑳ 시드기야(B. C. 597-589) / 36:11-21

(3) 고레스의 조서 / 36:22, 23

6.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謙卑)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7:14).

제 1 장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그의 기도

단락구분 1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다 / 2-6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일천 번제 / 7-12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다 / 13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다 / 14-15 솔로몬의 부귀 / 16-17 솔로몬의 무역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2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3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케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케는 다윗이 이미 기랴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6 여호와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8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여호와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13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14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일천 사백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뿔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16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 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17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일백 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았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사건이 기록된 대상 29장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한 대하 1-9 장 중 처음 장(章)이다.
- (2) 솔로몬은 사람에게 대한 정치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 (3)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尊榮)까지 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구한 것 이상의 넘치는 응답

을 받게 된다(참조, 엡 3:20).

2. **㉠ 솔로몬이 심히 창대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심히 창대케 된 것은 솔로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정
치적인 수완(手腕)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2)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야의 말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것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
았던 것이다(왕상 2:15).
(3) 특별히 솔로몬의 왕위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位)를 굳게 세워 영원
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대상 22: 9,10).
(4) 이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여 주셨고
또한 그를 견고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 것이다.
(5)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3. **㉠ 솔로몬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기브온 산당(山堂)으로 갔는가? (2,3 절)**

- ㉠** (1) 솔로몬은 전국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과 족장들을 소집하여 그 은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2) 이렇게 그가 은 회중을 이끌고 갔던 이유는 새로 즉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
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솔로몬 자신도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제사를 드
리고 싶었다.
(4)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서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번제를 드
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5)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예배 혹은 봉사)에 있어서 먼저 앞장을 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4. **㉠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인가? (3-5 절)**

- ㉠** (1)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9.6km 지점에 있는 넓은 구릉 지대이며, 옛날 히위 족
속의 수도였고(수 11:19) 후에는 제사장 촌이 되었다(수 21:17).
(2) ‘산당’(히, 바마)은 ‘높은 곳’(high place)이란 뜻인데 언덕처럼 두드러진 곳에 설치된
제단 같은 것을 가리킨다(참조, 삼상 9:11-14, 19, 25).
(3) 이 기브온 산당은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 사용되
었다. 이곳에는 여호와와 회막이 있었다.

5. **㉠ 솔로몬이 드린 일천 희생 번제에 대해서 말하라(6절).**

- ㉠** (1) 먼저 솔로몬이 회막과 놋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 번제를 드린 것은 역사적 전통
대로 진리를 지키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신 12:13, 14)를 그대로 파수한 신앙
적 행위였다.
(2) 솔로몬이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일천’이란 수
를 제물의 많은 수량을 보고 있다.
(3) 따라서 솔로몬은 최소한 하루 이상 칠일 내지 팔일 동안 약 일천 마리에 달하는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다.

6. **㉠ 언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7절)**

- ㉠** (1)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다 드린 날 밤에 잠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왕
상 3:4, 5, 15).
(2)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vi-

sion) 을 주신다.

(3)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자는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될 것이다.

7. **㉠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말하라(7-10절).**

㉠ (1)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이 아비 다윗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다윗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호소로써 시작되고 있다(8, 9절).

(2) 그러한 은혜와 약속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땅의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었다(10절).

8. **㉠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7-10절)**

㉠ (1) 솔로몬의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였다(7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2) 또한 그의 기도는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였다. 이와 같이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마6:33).

9. **㉠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10절)**

㉠ (1) 성경은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곧 세상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약3:15-18). 전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후자는 경건한 신앙을 각각 전제로 한다.

(2)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한 후 기도하였으니 곧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를 사모한 것이다.

(3) 또한 그가 구한 지혜는 '지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여 공명 정치(公明政治)를 할 수 있었다(왕상 3:7-10).

(4)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10. **㉠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1, 12절)**

㉠ (1)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다.

(2) 우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가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셨다(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외모(外貌)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3)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시되 전무 후무(前無後無)할 만큼 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12절).

(4)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6:33).

11. **㉠ 13절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원리는 어떠한가?**

㉠ (1)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비로소 기브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치리(治理)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까지는 자신의 어떤 영광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왕위보다 하나님의 전(殿)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그러므로 13절은 솔로몬의 통치 원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이성(理性)보다는 신앙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주의였음을 보여 준다.

(4) 우리들도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12. **㉠** 솔로몬의 군사력과 부귀는 어느 정도였는가? (14, 15절)

- ㉠** (1) 솔로몬은 병거 1,400승(乘), 마병 12,000명을 보유하고 이들을 병거성(兵車城)과 예루살렘 성에 각각 배치했다.
- (2) 병거(兵車)는 말이 끄는 일종의 수레로서 구약 시대에는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이며 왕권의 상징이었다.
- (3) 솔로몬의 병거 1,400승은 애굽 병거 600승(출 14: 7),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삿 4:13) 아람 병거 700승(10:18) 등과 비교하면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4) 또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으니 그 도시의 화려함을 짐작케 한다. 또한 백향목(삼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으니 솔로몬의 나라에는 귀한 물자들이 풍부하였다는 것과 그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대변해 준다(참조, 사 9:10).

연구자료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 이스라엘의 세번째 왕인 솔로몬이 기브온의 회막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12절).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의 정직하고 겸손한 소원 이외에도 부와 재물과 존영(尊榮)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으며 슬기로운 통치를 하였고 부와 존영도 얻게 되었다. 그의 지식은 모든 식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으며(왕상 4:33) 이러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였다. 백성들간의 여러 사적이고 공적인 일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처리하는 그의 지혜는(왕상 3:9, 28) 다른 여러 나라들에까지 소문이 났다(왕상 4:34). 그러나 그는 훗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며(비교, 신 7:3; 수 23:12)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왕상 11:4, 6).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분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왕상 11:9-13).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실 만큼의 놀라운 부귀 영화를 누렸던(마 6:29)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신앙적 불성실 앞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즉 솔로몬의 생애는 인간의 지혜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는 신앙적인 지조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였다.

제 2 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단락구분 1 솔로몬의 결심 / 2 성전 건축을 위해 일군을 뽑다 / 3-10 두로 왕 후람에게 기술자와 재목을 요청하다 / 11-16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후람의 진절한 응답 / 17-18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부름 받다

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솔로몬이 이에 담군 칠만과 산에 올라 작별할 자 팔만과 일을 감독할 자 삼천 육백을 뽑고

3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 리하소서

4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5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6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대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7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9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재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

할 것이니이다

10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12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라도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13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14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베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5 내 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16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읍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17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십 오만 삼천 육백 인이라

18 그 중에 칠만 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팔만 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삼천 육백 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1. ㉠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는가?

- ㉠ (1)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 (2) 그는 이 중요한 역사(役事)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준비 작업을 했다.
- (3)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두로 왕 후람에게 적합한 기술자와

재목들을 요청하였다.

- (4)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30,000명 뿐 아니라(왕상 5:13) 이스라엘 땅에 거한 153,600명의 이방인을 성전의 역군(役軍)으로 채용하였다.
- (5)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이방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참조, 말 1:11; 마 8:11).

2. **㉠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는가? (1절)**

㉠ (1) 솔로몬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다.

- (2)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대상 17:11, 12).
- (3) 솔로몬은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 전해 들었고, 또 기억하고 있다가 왕위에 오르자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왕상 5:5).
- (4)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라는 기도가 우리 생활 중에 늘 기억되어야 한다.

3. **㉠ 감독자의 수자에 있어서 본서 2:18의 3,600명과 왕상 5:16의 3,300명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1) 감독자의 수자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성경 두 군데에서 또 언급하고 있다. 즉 왕상 9:23에는 550명이, 본서 8:10에는 250명이 '감독자의 장'으로 추가 언급되었다.

- (2) 그런데 본서의 250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따라서 열왕기상의 550명 중 300명은 이방인이다.
- (3) 이것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인 고급 감독자가 250명, 이방인 고급 감독자가 300명, 이방인 보통 감독자가 3,300명이 된다. 이들을 합하면 3,850명이다.
- (4) 결국 본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분하여 언급했고 열왕기상은 하급 감독자와 고급 감독자를 구분하여 언급한 것이다.

4. **㉠ 두로 왕 후람은 솔로몬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3절)**

㉠ (1) 후람은 일찌기 부왕(父王)인 다윗과 동시대의 통치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의 궁궐 건축을 후원했다(삼하 5:11, 12).

- (2) 또한 후람은 평소에 다윗을 사랑했다(왕상 5:1). 이것은 그들 사이의 우호 관계가 정략적인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뜻한다.
- (3) 그래서 후람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으로 즉위할 때도 사신을 보내어 축하했다(왕상 5:1).
- (4) 다윗이나 솔로몬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롬 14:18).

5. **㉠ 솔로몬이 후람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솔로몬은 금, 은, 동, 철 등으로 물품을 만들 수 있고 직조에 능한 기술자 하나를 보내 달라고 후람에게 요청했다(7절).

- (2) 솔로몬이 후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이교(異敎)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과 재료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때로 불신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6. **㉠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4절)**

㉠ (1) 솔로몬은 예배의 장소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 '내가... 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4절).

- (2) 솔로몬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에 따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3)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7. **㉠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5, 6, 9절)**

- ㉠** (1) 솔로몬은 이방인인 후람이 이교 신전과 성전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하고 있다.
- (2) 그는 하나님의 전이 웅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곳에서 경배 받으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의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5, 9절).
- (3)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거주지가 될 수는 없다.
- (4)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경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편의(便益)를 위한 뿐이다(6절).
- (5) 신약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한다(엡 1:23).

8. **㉠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를 요청하는 솔로몬의 자세는 어떠한가? (7절)**

- ㉠** (1)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요청했다.
- (2)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다윗이 뽑아 놓은 공장(工匠)이 있었다(참조, 대상 22:15).
- (3) 솔로몬은 이스라엘에만 훌륭한 기술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 (4) 오히려 그는 두로에 더욱 익숙하고 뛰어난 기술자가 있음을 알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을 지도해 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 (5) 이러한 솔로몬의 자세는 일부 이스라엘인들의 교만에서 우러난 배타주의(排他主義)와 거리가 멀다.
- (6)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9. **㉠ 솔로몬이 필요로 한 재목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8절)**

- ㉠** (1)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레바논의 훌륭한 백향목과 다른 재목들을 풍부히 보내 주기를 요청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전은 ‘크고 화려해야’ 했기 때문이다(9절).
- (3) 즉 성전은 매우 위풍있고 장엄해야 했으며, 비용을 아끼거나 솜씨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물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는 목적 뿐 아니라 과정도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일군과 재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사실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

10. **㉠ 솔로몬이 후람의 종에게 풍성한 곡물을 주겠다는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10절)**

- ㉠** (1) 솔로몬은 그들에게 매우 많은 밀과 보리 그리고 매우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일군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 (2) 이 사실은 고용주로 하여금 자기의 일군들이 마땅한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한다. 고용주는 일군들에게 유익하고 합당한 것이 충족히 공급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 (3) 부유한 주인들은 입장이 바뀌어 자기들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경우 대접 받고 싶은 그대로 가난한 일군들을 대접해야 한다(마 7:7).

11. **㉠ 후람이 보낸 답장의 내용은 어떠한가? (11-16절)**

- ㉠** (1) 먼저 후람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11, 12절).
- (2) 또한 솔로몬이 요청한 일군과 재목을 보내 주겠다고 친절하게 응답하고 있다(13-16절).
- (3) 이러한 응답에서 후람은 솔로몬에 대한 큰 존경심과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4) 우리들은 이들이 보여 준 요청과 응답의 내용을 통해 이웃간의 우의(友誼)를 배워야 할 것이다.

12. **㉠** 후람의 담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1절)

- ㉠** (1) 후람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그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하지 않았다.
 (2) 비록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라도(삼하 12:24)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다.
 (3) 이 말에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등용(登用)됨이 그들 자신의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선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3. **㉠** 후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후람은 여호와를 천지의 창조주로 불렀다.
 (2) 이것을 볼 때 후람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 보다 온전한 여호와 지식이 있었다.
 (3) 그러나 그것은 단지 후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개념에 보다 친숙했음을 나타낼 뿐이지, 그가 친히 여호와 신앙을 가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 고대 이방인들이 믿었던 다신교는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람도 여호와를 그가 믿는 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인정했다.
 (5) 결국 그는 솔로몬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사역과 은혜를 시인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어휘를 선택한 것이다.

14. **㉠** 후람이 보내기로 한 기술자는 어떤 사람인가? (13, 14절)

- ㉠** (1) ‘히람’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으로(왕상 7:13, 14) 그의 뛰어난 기술로 인하여 ‘부친(히, 아비)’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2)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출신으로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과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여인이었다(왕상 7:14). 따라서 그는 어머니 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었다.
 (3) 이것은 에스더의 아들로 추정되는 다리오 왕에 의해 두번째 성전 건축이 크게 촉진된 것과 비슷하다(스 6장).
 (4) 이러한 사실들은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리라는 좋은 전조(前兆)이다(엡 2:18).
 (5)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겠다.

15. **㉠**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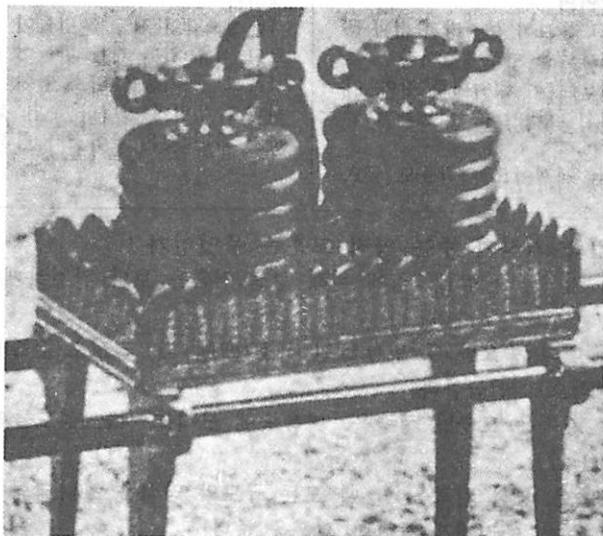
- ㉠** (1) 이 부분에 해당하는 히브리 성경 원문은 <레후람 아비>이다.
 (2) 이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명칭은 4:16에도 나오는데 그곳의 히브리 원문은 <후람 아비요>로서 개역 성경에 ‘후람의 아비’라고 번역되어 있다.
 (3) 여기서 히브리어 <아비>는 ‘아버지’, ‘우두머리’, ‘권위자’ 등의 뜻을 가진 말로서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겨졌다. 당시 후람은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 뒤에 이 호칭이 붙여졌던 것이다(참조, 창 45:8).
 (4) 대부분의 영역 성경은 이 두 귀절을 똑같이 고유 명사 ‘후람 아비’(Huram-Abi)로 번역하고 있으며(NIV, RSV, Living Bible), 공동 번역은 ‘후람 선생(先生)’으로 옮기고 있다.
 (5)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레후람 아비>나 <후람 아비요>는 두로 왕 후람과 동명 이인(同名異人)인 성전 일을 한 기술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참조, 4:11).
 (6) 따라서 2:13의 번역은 4:16과 함께 고유 명사인 ‘후람아비’(Huram-Abi)로 번역됨이 타당하다.

16. **㉠**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설명하라(17절).

- ㉠** (1)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했다(대상 22:2).
- (2)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도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인들을 조사하여 사역을 분담시켰는데, 그 수효는 153,600명이나 되었다.
- (3) 이 이방인들은 대부분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자들이며 그 나머지는 매매로 인한 노예나 귀화(歸化)한 외국인들이다. 그렇지만 귀화한 외국인들은 대우를 받고 살았으므로 이 사역에는 동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에 쓰일 재료는 물론 수많은 인력(人力)까지도 확보해 두셨던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이다.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한 것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을 예표한다.

화보자료

진설병을 놓는 상(床). 아래의 사진은 가장자리가 황금으로 장식된 진설병을 놓는 상인데 진설병 위에 향로가 놓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은(4절)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으며 묵은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먹었다(레 24:5-9). 이 진설병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참조, 요 6:48).

제 3 장 성전 건축에 착수하다

답략구분 1-2 성전을 직공한 시간과 장소 / 3-7 성전의 규모와 장식 / 8-9 지성소 건축 / 10-14 지성소 안의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든다 / 15-17 전(殿) 앞에 세운 두 개의 기둥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도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사 년이 월 초 이 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육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더라

4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일백 이십 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5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더라

7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8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도 이십 규빗이라 정금 옥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9 못 중수가 오십 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

로 입혔더라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11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12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13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었으며

14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베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15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삼십 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16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일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1. ㉠ 본장의 성전 건축 기사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은 병행 기사인 왕상 6, 7장에 비해 성전 건축을 보다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2) 본장은 성전 내의 중요한 두 방(房)인 성소(聖所)와 지성소(至聖所)를 만드는 일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3) 이러한 성전 건축은 오늘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한다(참조, 고전 3:10-17).

(4)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규모와 양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건축했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5) 즉 솔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대로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 ㉠ 본장과 왕상 6, 7장에 나타난 성전 건축 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 본장은 왕상 6, 7장과 비교할 때 성전 건축의 시작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3:1, 2; 왕상 6:1).

(2) 이어서 본장은 연결성 있게 건축 자체의 증대성과 준비에 대해 서술하는데(3:3-17), 열왕기는 하나님의 약속(왕상6:11-13), 왕궁 건축 기사(왕상7:1-11) 등이 성전 건축 기사와 혼합되고 있다.

(3) 또한 본장은 열왕기상보다 좀더 요약적이면서 열왕기상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4:14; 왕상7:27-28).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아주 특이한 인용 관습이다.

(4)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의 특이성, 즉 간결과 요약을 발견할 수 있다.

3. **㉠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은 어떤 곳인가? (1절)**

㉠ (1) 솔로몬은 예루살렘 고리아 산(山)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2) 이곳은 일찌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었다(창22:2). 또한 이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불을 내려 응답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대상21:18, 26).

(3) 다윗은 이미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대상22: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성전 건축지로 지정하셨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5)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항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행하여야 한다(고전3:10, 11).

4. **㉠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2절)**

㉠ (1) 본서는 왕상의 기록(왕상6:1)과 비교할 때 특별히 건축 시작의 날짜까지 밝히고 있다.

즉 솔로몬 즉위 4년(출애굽 제 480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2) 자세한 것은 왕상 6장 ㉠2를 참조하라.

5. **㉠ 성전의 규모는 어떠한가? (3절)**

㉠ (1) 왕상 6장 ㉠4를 참조하라.

6. **㉠ '옛적 재는 법대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1) 솔로몬은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치수에 대하여도 아버지 다윗의 지시를 받았다(대상28:11).

(2) '옛적 재는 법'이란 다윗이 전해 준 식양(式樣)을 따라 첫번째 확정된 치수를 말한다.

(3) 따라서 '옛적 재는 법대로'란 설명은 성전 치수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4)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한다(전3:14). 하나님의 처음 측량 기준은 끝까지 같 것이다.

(5)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 편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계시(啓示)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7. **㉠ 성전 내부 장식은 무엇으로 했는가? (4-9절)**

㉠ (1) 성전 내부 장식은 정금(精金)과 보석으로 하였다.

(2) 이때 쓰인 금은 '바르와임 금'으로 당시에 아라비아 부근 바르와임에서 생산되던 가장 훌륭한 금이었다(6절).

(3) 성전 내부는 낭실, 천장, 들보, 문지방, 벽, 문짝, 다락 등 모두 '바르와임 금'으로 입혀졌고 지성소에 입혀진 금의 중량은 600달란트(약 20,448kg)가 되었다(9절). 또 금 못 중수는 50 금 세겔(약 710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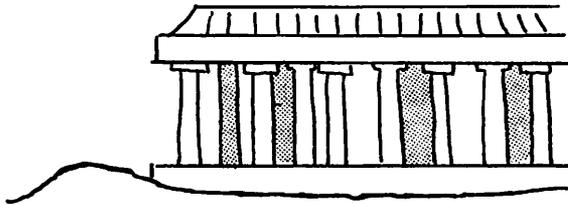
(4) 이렇게 금으로 입힌 성전 내부는 다시 매우 많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5) 이렇게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이다(마7:24-27; 고전3:11-13).

8. **㉠ 성전의 지성소를 정금으로 입힌 것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8, 9절)**

- A** (1) 왕상 6장 **Q** 12를 참조하라.
 9. **Q** 성전의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A (1) 왕상 6장 **Q** 13을 참조하라.
 10. **Q** 성전의 내소 안에 그룹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10-14절)
A (1) 왕상 6장 **Q** 14를 참조하라.
 11. **Q** 전 앞에 세운 기둥 둘의 크기는 어떠한가? (15절)
A (1) 왕상과 본서의 기록을 비교하면 기둥의 높이가 각각 다르다. 왕상 7:15에는 18규빗으로 되어 있으나 본서 3:15에는 35규빗으로 되어 있다.
 (2) 몇몇 주석가들은 대하의 35규빗은 두 기둥의 길이를 합친 것이므로 각 기둥의 실제 길이는 17.5규빗이었다고 주장한다(Abravanel, Movers, Wordsworth). 그러나 이런 이론은 채택될 수 없다.
 (3) 이와 같은 기록의 차이는 후대의 필사자가 역대기를 기록하며 혼동을 일으킨 때문인 것 같다. 히브리어 표기에서 18과 35는 아주 유사하다. 왕상의 18규빗은 왕하 25:17, 렘 52:21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왕상 7장 **Q** 7을 참조하라.
 12. **Q** '석류 일백 개'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가? (16절)
A (1) 왕상 17장 **Q** 8을 참조하라.
 13. **Q** 두 돛 기둥의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A (1) 왕상 17장 **Q** 9를 참조하라.

본장의 요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यो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1절).

제 4 장 성전 기구들을 만들다

단락구분 : 1-6 돛제단, 돛바다, 물두멍을 만들어 성전 뜰에 설치하다 / 7-8 등대(燈臺), 상(床), 대접을 만들어 성소에 설치하다 / 9-10 뜰 문을 만들다 / 11-18 후람이 만든 돛기구들 / 19-22 성전에 있는 금기구들

1 솔로몬이 또 돛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이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십 규빗이며

2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3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열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었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4 그 바다를 열 두 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5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삼천 빛을 담겼으며

6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셋게 하되 번째에 속한 물건을 거기 셋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7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8 또 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일백을 만들었고

9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돛으로 그 문짝에 입혔고

10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11 후람이 또 솔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12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13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래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사백 석류와

14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15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 두 소와

16 솔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돛으로 만들 때에

17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곳과 스레다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18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돛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19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20 내소 앞에서 규헤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21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22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술가락과 불 읊기는 그릇이며 또 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1. ㉠ 본장의 내용은 성도의 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본장에는 이미 건축된 성전에 비치할 여러 기구들을 제조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성전 기구들은 주로 돛과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돛 기구들은 성전 뜰에 설치되었고 금 기구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설치되었다.
 (3) 이러한 성전 기구들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사역과 성도의 구별된 생활을 상징한다(참조, 히9:1-5).
 (4)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히9:11)으로 삼으시고(요2:21), 자기의 피를 '더 좋은 제물'(히9:23)로 삼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게 하셨던 것이다(롬6:4).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고(롬 6:13; 고전 3:16, 17) 금보다 귀한 믿음과(벧전 1:7) 늦보다 강한 열심으로(렘 1:18)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2. **㉠ 성전 기구 중 늦으로 만든 기구들은 무엇인가? (1 - 18절)**

- ㉠** (1) 성소 밖에 두는 기구들은 모두 늦으로 만들었다.
 (2) 이러한 기구 중에서 고정시켜 놓은 것들에는 단(壇), 바다, 물두멍 열 개, 뜰 문짝, 기둥 돌, 기둥 머리 돌,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돌, 석류(石榴) 400 등 8가지가 있었다.
 (3) 그리고 움직여 사용하는 것으로 술, 부삽, 고기 갈고리, 늦그릇 등 4가지가 나타난다.
 (4) 이 기구들에 사용된 늦은 인내(렘 15:20)와 하나님의 뜻(속 6:1)과 그리스도의 영광(단 10:6; 계 1:15) 등을 상징한다.

3. **㉠ 늦단의 규격은 어떠한가? (1절)**

- ㉠** (1) 늦단의 규격은 길이가 20규빗(약 10.6 m), 너비가 20규빗(약 10.6 m), 높이가 10규빗(약 5.3 m)였다(성전 규빗은 1규빗을 약 53cm로 계산함).
 (2) 이것은 모세가 회막 안에 비치했던 단이 75입방 규빗(5×5×3)입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이다.
 (3) 이렇게 단의 규모가 커진 것은 모세 때에 비해 이스라엘이 번성했으므로 더 큰 헌신이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제단을 넓혔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창대해질 때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 솔로몬 성전에 설치된 제단은 성막의 제단보다 얼마나 높았는가? (1절; 출 27:1)**

- ㉠** (1) 모세 시대 성막에 있던 제단의 높이는 3규빗(약 1.6 m)이었다(출 27:1).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새로이 설치된 제단은 10규빗(약 5.3 m)이었으므로 성막의 제단보다 7규빗(약 3.7 m)이 더 높았다.
 (2) 이렇게 제단이 높았으므로 성전 밖의 뜰에서 경배했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쳐진 제물 사르는 것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
 (3)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애통(哀痛)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제단에서 살라지던 제물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드러지는 회생이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전 5:7).
 (5)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5. **㉠ 늦바다의 용량을 왕상 7:26과 비교하여 설명하라 (2절).**

- ㉠** (1) 늦바다의 용량은 3,000밧(약 65,772ℓ)이다. 그런데 왕상 7:26에는 2,000 밧으로 다르게 기록되었다.
 (2) 이런 차이점이 생긴 것은 필사자가 히브리 수자 2와 3을 혼동한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다(Keil, Bähr).
 (3)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늦바다의 직경이나 높이를 참고해 볼 때 그 용량은 2,000 밧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Thenius). 따라서 왕상 7:26의 2,000밧을 늦바다의 실제 용량으로 봄이 타당하다.

6. **㉠ '열 두 소'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3, 4절)**

- ㉠** (1) 열 두 소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바다를 받히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2) 왕상 7장 ㉑ 12를 참조하라.

7. ㉑ **눗바다의 용도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㉑ (1) 눗바다는 성전의 안뜰에 위치했으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눗대야이다.

(2) 이 바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그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계 7:15).

(3) 자세한 것은 왕상 7장 ㉑ 11을 참조하라.

8. ㉑ **물두멍의 용도와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6절)**

㉑ (1) 제사장들이 눗바다에 씻기워야 했던 것처럼 제물들은 물두멍에서 씻기워야 했다.

(2) 우리들도 우리의 종교적 행사를 준비할 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그 행사에 있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모든 헛된 생각과 더러운 욕심을 세심히 검토하여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3) 왕상 7장 ㉑ 14를 참조하라.

9. ㉑ **'금등대 열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㉑ (1) 본문에 '정식(定式)을 따라'라고 하였으니 그 금등대는 회막 안에 있던 등대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다(출 25:31-39).

(2) 그 회막 안에는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다.

(3) 이 '금등대 열 개'는 모세가 단 하나의 등대 곧 히브리인의 교회만을 세운 데 비해 성전되신 그리스도(계 21:22)께서는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교회를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마 16:18).

(4) 또한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주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시 119:105),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회미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참빛으로 오실 것을 의미한다(마 5:17; 요 1:9).

10. ㉑ **'상(床) 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㉑ (1) 모세의 회막에는 금등대와 마찬가지로 진설병 상도 하나밖에 없었다(출 37:10-16).

(2) 따라서 상 위에 놓이는 진설병도 모세의 회막에 비해서 열 배로 늘어났다.

(3) 이 떡들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레 24:9; 눅 6:3), 이는 신약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눅 22:19; 요 6:51).

(4) 그러므로 '상 열'은 '등대 열'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 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 성도들의 삶에 있어 완전한 진리가 될 것을 의미한다.

11. ㉑ **성전 뜰 문을 만들고 눗으로 그 문짝을 입힌 이유는 무엇인가? (9절)**

㉑ (1) 그것은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기후 관계로 썩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 결국 이 눗문은 무사람들에 대하여 성소를 견고히 지키기 위한 것이다.

(3) 이것은 죄인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눗문을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시 107:16; 요 14:6).

12. ㉑ **기술자 후람은 어떻게 일했는가? (11절)**

㉑ (1) 후람은 빈틈 없이 일을 했다. 왕상 7:40에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즉 그는 그의 일의 어느 부분도 미결되어 있는 채로 남겨 두지 않았다.

(3) 그는 독창력과 근면성이 뛰어난 기술자로 성전 일에 그의 모든 재능을 바쳐 봉사했다.

(4)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 뿐 아니라 모든 기술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해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

13. **㉠** 후람이 놋기구를 요단 평지에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놋을 부어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으로 형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흙이 많은 고장인 요르단 골짜기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 (2) 요단 평지에는 놋을 제련하기에 적합한 차진 흙이 많은 숙곳과 스테다가 있었다.
- (3) 왕상 7:46에는 스테다를 사르단이라고 했는데 사르단은 스테다의 또 다른 이름이다(참조, 사 7:22).
- (4) 더 자세한 것은 왕상 7장 **㉠** 16을 참조하라.

14. **㉠**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주관하였는가? (18절)

- ㉠** (1) 솔로몬은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다.
- (2) 그는 그렇게 많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훌륭한 기술자 '후람' 과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다. 그러므로 일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
- (3) 또한 그가 무게를 짤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 두었음은(왕상 7:47) 어떤 기구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즉시 새 기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4) 그는 현재 쓸 기구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나머지 놋기구를 그의 사적인 용도에 쓰려 하지 않았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마 22:21)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15. **㉠**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9 - 22절)

- ㉠** (1)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다.
- (2) 이러한 기구 중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들로는 10개의 등대, 2 등잔, 10개의 진설병 상, 금단(金壇) 등 3가지가 있다.
- (3) 움직여 사용하는 기구들로 100개의 대접, 화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읊기는 그릇 등 6가지가 언급된다.
- (4) 이 성소의 기구들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제 21:18, 21).

16. **㉠** 전(殿) 안의 기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9-22절)

- ㉠** (1) 성전 밖의 기구들이 놋으로 만들어진 반면, 안의 기구들은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 (2) 이것은 성전 안의 기구들은 밖의 기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금같이 더욱 정결해야 할 것과 또한 참으로 정결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7. **㉠**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진설병은 열 두 덩이로 되어 있는 누룩 없는 떡이다(레 24:5, 6). 제사장들은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레 24:8).
- (2)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놓아서 그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떡을 잡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감사의 열매를 드렸듯이 영적으로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리킨다.
- (4) 그것은 물론 의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산출할 때 기쁨과 만족을 가지신다.

18. **㉠** '금단'(金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금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 곧 분향단을 말한다(출 30:27).
- (2) 이 금단 위에서 피우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제 5:8; 8:3), 그 기도는 금 같은 믿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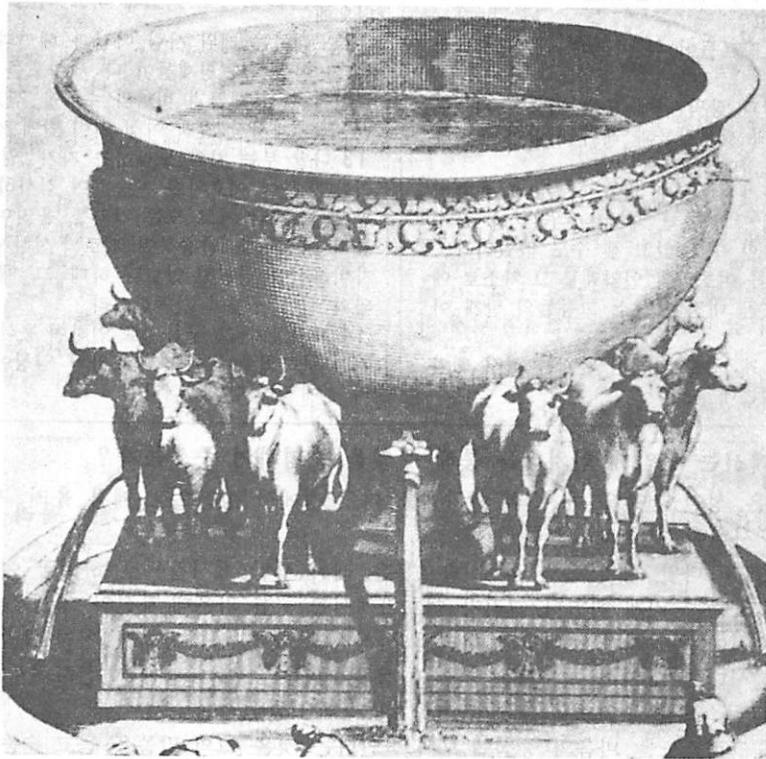
위에서 드러져야 할 것이다.

19. **㉠** 우리가 본장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가?

- ㉠** (1) 첫째 건축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배울 수 있다.
 (2) 또한 예술과 기술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음을 배운다.
 (3) 마지막으로 본장은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

화보자료

솔로몬의 솥바다. 아래의 사진은 18세기의 성경 사전에서 따온 솥바다의 모습이다.



바다로 표현될 정도로 많은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솥바다는 번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씻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을 위한(6절) 물을 담고 있었다.

제 5 장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

단락구분 1 금, 은, 기구들을 봉헌하다 / 2-4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다 / 5-6 양과 소로 제사드리다 / 7-9 언약궤를 안치하다 / 10 궤 안에 있는 두 들판 / 11-13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찬송과 감사를 드리다 / 14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증만해지다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곁간에 두었더라

2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 칠 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레위 사람을 궤를 메니라

5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기록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7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10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1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일백 이십 인이 함께 서 있다가

13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그룹이 가득한지라

14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 ㉠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치식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여 주셨는가?

- ㉠** (1) 본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메워 올려 지성소에 안치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
- (2) 언약궤를 다윗 성에 올릴 때에 솔로몬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 (3) 이와 같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타남의 상징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셨다.
- (4)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롬 6:13)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들여야 한다(계 3:20).
- (5)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들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요 15:5, 7, 8).

2. ㉠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것은 언제인가? (1절)

- ㉠** (1) 솔로몬 왕 제 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왕상 6:38).

- (2) 이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솔로몬 왕 제 4년 2월로부터 만 7년 6개월 되는 때이다.
 (3) 더 자세한 것은 왕상 8장 Q 5를 참조하라.

3. Q 솔로몬이 봉헌된 물건들을 성전 공간에 들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1절)

- A (1) 그 물건들은 이미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대상 29:3-5).
 (2) 솔로몬은 그 재료들로 성전의 온갖 기구를 만든 후 남은 것들을 다른 용도에 쓰지 아니하고 고간(庫間)에 쌓아 두었다.
 (3) 그는 일단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빼들리려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성별(聖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誓願)을 이행하는 일이 된다(전 5:4).

4. Q 여호와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A (1)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출 25:22).
 (2)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고 하신은 헤로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언약궤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3) 반대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임은 마치 언약궤가 없는 성전과 같이 황폐한 장소가 되고 말것이다(마 23:38).
 (4)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약속의 성취,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가장 열렬하고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
 (5) 자세한 것은 Q 3을 참조하라.

5. Q 솔로몬이 장로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은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들이었다(수 23:2).
 (2) 그들은 전에 성전 건축을 의논하기 위해 다윗에 의해 소집된 적이 있고(대상 28:1), 성전 장식을 위해 그들의 보물들을 즐거이 드리기도 하였다(대상 29:6-9).
 (3)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하여 그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정책이기도 했다.

6. Q '7월 절기'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3절)

- A (1) '7월 절기'는 성전이 완공된 후 11개월 후인 솔로몬 5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기간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 기간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거행했던 장막절 기간 직전에 해당한다.
 (3) 당시 장막절은 3대 절기 중의 하나로써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됨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절기였다(출 23:16).
 (4) 이러한 장막절을 앞두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해야 한다(히 4:8-11).

7. Q 누가 언약궤를 메어 올렸는가? (4, 5, 7절)

- A (1) 언약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메어 올렸다(5절). 다른 성경 부분들(7절; 왕상 8:3 등)을 참고할 때 특별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2) 사실 언약궤를 메는 일은 고핫 자손 레위인들에게만 할당된 일이었다(민 3:30, 31).
 (3) 그러나 특별한 의식의 때에는 제사장이 궤를 메었는데(수 3:6; 6:6) 그러한 전례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택하게 했던 것이다.
 (4) 솔로몬은 500년 동안이나 휘장 안에 거하던 언약궤가 영구한 처소인 성전에 옮겨지는 것

을 특별한 일로 보고, 언약궤와 성전에 대해 더 큰 경외심을 갖도록 그 일에 제사장들을 택하였던 것이다.

8. **㉠** 솔로몬이 궤와 동시에 피막은 물론이요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까지 메고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온 이유는 그러한 기구들이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것으로 세속적인 용도로 처분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사실 언약궤를 제외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성전의 크기와 용도에 알맞는 큰 기구들로 대체되었으므로 성전에서 더 이상 쓰일 필요는 없었다.
 (3) 그러나 솔로몬은 성막과 옛 기구들을 버리지 않고 과거의 유물로서 성전의 저장소나 다락들에 보존토록 하였다.
 (4)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헌물들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귀중히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9. **㉠** 언약궤가 옮겨지는 동안 제사를 드린 목적은 무엇인가? (6절)

- ㉠** (1)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연관된 비극들이 있었다(삼상 4:17; 6:19; 삼하 6:7).
 (2) 그래서 솔로몬은 궤를 옮길 때에 있을 수 있는 실수와 불완전함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함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3) 따라서 제사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에 접근하는 백성들의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10. **㉠**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졌는가? (7-10절)

- ㉠** (1) 언약궤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놓여졌는데 그룹들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다(7, 8절).
 (2) 따라서 언약궤는 물론 그것을 운반하는 채마저도 완전히 그룹들의 날개로 가리워져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9절).
 (3)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리워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4) 신약의 성도들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마 6:6)을 만날 수 있다.

11. **㉠**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그것은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B. C. 586) 전에 이 책을 썼음을 가르쳐 준다(참조, 왕상 8장 **㉠** 8).
 (2) 저자는 성전이 언약궤의 영구한 처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3) 신약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께서도 그 성도들과 영구히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고전 6:19, 20).

12. **㉠**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10절)

- ㉠** (1)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담겨져 있었다(히 9:4).
 (2) 본문에 특별히 두 돌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계시인 십계명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돌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행 20:32).

13. **㉠** '호렙'은 어떤 곳인가? (10절)

- Ⓐ (1) '마른 땅', '사막'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이름은 광야의 서로 다른 두 세 곳에서 불리워진 것 같다(출 3:1; 17:6; 33:6; 왕상 19:8).
- (2)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곳으로 '호렙'이라는 이름은 후에 전 시대 광야에 대한 통칭이 되었던 것 같다(신 4:10, 13).
- (3) 따라서 본장의 '호렙'이란 장소는 율법이 주어진 시대 광야의 산을 가리킨다.

14. ⓐ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제사장들은 24반열(班列)로 나누어졌고 각 반열은 해마다 2주간씩 성전에서 섬겼다(대상 24:19).
- (2) 이처럼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가 1년 48주(週)로 나누어져 수행되었던 것은 그들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키 위한 제도적 조정이었다.
- (3) 이러한 조정은 포로기 이후 다시 제정되었고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다(참조, 눅 1:5).
- (4) 그러나 본장에서는 그러한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이 한 번에 정결케 하고 함께 봉사했다.
- (5) 그 이유는 의식이 너무 크고 또 많은 인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제사장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15. ⓐ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어떤 사람들인가? (12절)

- Ⓐ (1) 아삽은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으로 헤만의 우편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행했다(대상 6:39-43).
- (2) 헤만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으로 찬송하는 자로 불리웠다(대상 6:33-38).
- (3) 여두둔은 족보에 나타나지 않지만 에단과 동일 인물로 추측되어진다(대상 15:17). 에단은 레위의 셋째 아들 므라리의 자손으로 헤만의 좌편에서 수금을 잡아 노래를 했다(대상 6:44-48).
- (4)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후 이 세 사람으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여 솔로몬 성전 건축 때까지 회막에서 직무를 행하게 하였다(대상 6:31, 33).
- (5)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는 이 뜻 깊은 행사에 이들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함께 노래하는 직무에 부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6) 이와 같이 노래와 악기 연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재능을 가진 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16. ⓐ '제금(提琴)과 비파(琵琶)와 수금(豎琴)'은 어떤 악기인가? (12절)

- Ⓐ (1) 제금은 히브리어로 <므칠타임>인데 오늘날 심벌즈와 비슷하다. 그것은 주로 경건하게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나팔(스 3:10), 수금(대상 25:1)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대상 16:42)들과 함께 반주되었다.
- (2) 비파는 히브리어로 <네벨>인데 무슨 악기인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그것을 12현 악기라고 했는데 오늘날 하프와 비슷한 악기로 추측된다. 그것은 주로 교종적이고 의식(儀式)의 성격을 갖는 귀족 악기였다.
- (3) 수금은 히브리어 <키노르>로 오늘날 거문고에 해당하는 현악기이다. 그것은 다윗과 레위인들이 사용했으며(삼상 16:23), 가장 고상한 악기로 여겨졌다.
- (4) 이러한 악기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경건한 의식에 사용된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육성(肉聲)과 악기로 찬송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몸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과 사업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17. ⓐ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는 찬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 찬송은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귀절 중의 하나로 시편 136편에는 26번이나 반

복되고 있다.

- (2) 이것은 평이한 노래였지만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께 찬송한 찬송시였던 것이다.
- (3)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선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 (4) 이 찬송이 드러질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생활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18. **㉠** 여호와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공인된 상징이다(출 19:9).
 (2)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나타나곤 하였다(출 40:34, 38; 민 12:5, 10; 16:42; 신 31:15).
 (3) 그러므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가 회막을 이전에 인정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전을 그의 거처로 받으신다는 눈에 보이는 표시였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신을 구별하여 성전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되 구름 같은 상징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의 실체로서 임하여 주신다(눅 11:13).

19. **㉠**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4절)

- ㉠** (1)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나와 어떤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다(왕상 8:11).
 (2)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모세가 그러했듯이(출 40:35) 여호와와의 영광(榮光)에 의해서 쫓겨할 수가 없었다.
 (3) 따라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거 회막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초점을 이제는 성전으로 향하여 허락하신다는 의미이다.

20. **㉠**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와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13절이 구름을 말하고 있음에 대하여 14절은 여호와와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와의 영광'이 가리키는 것은 구름과는 다른 무엇임을 알 수 있다(출 13:21, 22; 19:9, 18; 24:16, 17; 40:34).
 (3) 여기서 '여호와와의 영광'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로서 온 해보다 더 밝은 빛'(행 26:13)을 뜻하는 것 같다.
 (4) 즉 영광은 비록 구름 안에 있었음에 분명하나 항상 광채를 발하지는 않았다. 대신 구름이 사람들의 눈앞으로부터 그것을 감쌌다.
 (5)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다(요 1:14, 18).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악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로서(빌 2:6)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마 1:23; 28:20).

21. **㉠** 본장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5절) 기쁨으로 참여한(왕상 8:66) 성전 봉헌식은 신약의 공적 예배가 어느 성도에게나 큰 기쁨의 제목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2) 언약케가 지성소에 안치되듯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에 임하시고, 또 율법이 그의 마음에 기록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고 그 영혼 속에서 참된 만족감이 있게 된다(고전 6:19).
 (3)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물질로만이 아니라(6절) 찬양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13절).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몸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표시인 것이다.
 (4) 성전을 채운 영광의 구름은 성전에 입혀진 모든 금이나 거기에 박혀진 보석들보다도 더욱 성전을 아름답게 했다. 우리를 진정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 경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고후 4:7).

화보자료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아래의 그림은 13세기의 작품으로서 콩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팔이 등장한다. 본장에 나타난 나팔(히, 하초트라)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다(12절). 이외에도 수 6:4, 6, 8에는 양각(羊角) 나팔(히, 쇼파르)이 나온다. 이러한 나팔들은 악기로 사용되기 보다는 신호용으로 사용되어 회중의 소집, 안식일의 시작, 진의 진행 등을 알렸다. 그러나 본장에서 나팔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13절). 민 10:2, 8; 31:6과 같은 기록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부는 특권이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반면에 양각 나팔은 보통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조, 대상 15:28).

제 6 장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

단락구분 1-2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임을 고백하다 / 3 은 회중을 축복하다 / 4-11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한 간증 / 12-13 7대(臺) 위에 무릎을 꿇다 / 14-17 다윗의 왕권을 위한 기도 / 18-21 서론적 기도 / 22-39 일곱 가지 제목으로 간구하다 / 40-42 결론적 기도

1 그 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2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3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은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은 회중이 서 있더라

4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7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9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와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1 내가 또 그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12 솔로몬이 여호와와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13 솔로몬이 이왕에 낫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

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6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좇아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8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19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2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므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접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24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 하거든

25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6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별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27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론하고

29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31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부사 땅의 만민

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4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뜻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35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36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시라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37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38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뜻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40 나의 하나님이며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 여호와 하나님이며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며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의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1. ㉠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 (1) 전장(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언약제가 안치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셨음이 증명되었다.

(2) 이때 솔로몬은 입을 열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간증과 기도로 응답했다.

(3) 곧 그가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임을 고백하고 건축의 동기와 배경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간증했다(1-11절).

(4) 그리고 그는 낮대 위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7가지의 제목으로 긴 기도를 드렸다(12-42절).

(5) 성전 봉헌식에 드러진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기복적(祈福的)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을 가르쳐 준다.

(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전 1: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2. **㉠** 솔로몬은 어떠한 사실을 간증했는가? (1-11절)

- ㉠** (1) 그는 성전 건축의 동기가 자기의 착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간증했다(1, 4, 10절).
 (2) 또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간증했다(4절).
 (3) 이와 같이 그는 실질적인 성전 건축의 주체(主體)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간증하였다. 그래서 그는 간증에 앞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頌祝)했던 것이다(4절).
 (4)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된다.

3. **㉠**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실 때는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2) 따라서 솔로몬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던 방법을 가르쳐 준다(출 19:9; 20:21; 신 4:11; 5:22).
 (3)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만든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였다. 그리고 1, 2절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 하나님의 전을 호화롭고 거대하게 짓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몇몇 교회 지도자의 명예와 성공의 척도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4. **㉠**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백성들에 대한 축복은 본래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부여된 임무였다(민 6:22-27).
 (2)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러한 축복을 온 회중을 위하여 빌었다.
 (3) 이것은 솔로몬이 정치적인 군왕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4)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눅 19:38) 대제사장으로도 오셨다(히 6:20).
 (5)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 (벧전 2:9)이라 불리우는 만큼 모든 사람, 특히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축복해야 할 임무가 있다(눅 6:28).

5. **㉠**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란 실제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것으로(삼하 7:4-17) 솔로몬은 본문 5, 6, 8, 9절에서 그 요지를 말하고 있다.
 (2) 그 요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하시고 성전 건축자로 다윗의 아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3) ‘그 손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상징한다(행 4:28).
 (4)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말씀에 의해 예언된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 성취시키셨음을 간증하는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권능자이시다(창 18:14).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성전 건축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루었

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빌 4:6, 7).

6. ㉠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예루살렘은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도성(都城)을 상징한다(히 12:22).
 (2)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행 13:22)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3)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설립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장소인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에서 구별된 왕이 구별된 백성을 통치하시는 곳이다(계 19:6).
 (4)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데,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계 21:10).
 (5)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장소에서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려는 사람들에게 구별된 생활을 또한 촉구하신다(참조, 3:1, 2).

7. ㉠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성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당신의 말씀(이름)을 선포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출 25:22).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성전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행 20:32)으로만 강림하셨다. 이것은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요 1:1).
 (3) 한편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6:19).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밭낫으로 묵상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다(수 1:8, 9; 시 1:1).

8. ㉠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다윗은 성전을 매우 사모했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많이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대상 28:2).
 (2) 그 이유에 대해서 대상 28:3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화해와 화평의 의미를 가진다(참조, 마 5:23; 딤편 2:8).
 (4) 그런데 다윗은 군인이므로 화해와 화평으로 상징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셨던 것이다(대상 28:6).
 (5)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살롬>에서 온 것으로서 ‘평화’ 또는 ‘평화스러운’이란 뜻이다
 (6) 이처럼 주 하나님이 주인되신 하나님 나라는(계 21:22) 전쟁이 다시 있지 아니한 평화의 왕국이다(사 65:25).

9. ㉠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13절)

- ㉠ (1) 솔로몬은 뜰 가운데 미리 준비한 높이 3규빗(약 1.36m)의 놋단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2) 그것은 그의 마음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경건하며 간절했음을 나타내 준다.
 (3) 또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해서 온 백성을 대표하여 증보적인 입장에서 기도하였다.
 (4)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한다(마 26:36-46).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 시대 성도들은(벧전 2:9) 이러한 증보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히 13:8, 9).

10. ㉠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4-42절)

- ㉠ (1) 솔로몬의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다윗 왕권을 위한 기도(14-17절)와 제사장적 기도(18-42절)로 나눌 수 있다.

- (2) 전자(前者)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 (3) 후자(後者)는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로 말씀하신(20절)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열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사장적 중보(中保) 기도이다.
- (4) 이처럼 다윗 왕권과 성전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동안 다윗의 왕권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때 이스라엘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왕상 9:6, 7).
- (5) 육적인 다윗 왕권은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끊어지고 말았지만 영적인 다윗 왕권은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영원히 견고케 되었다.

11. ㉠ 솔로몬의 '왕권을 위한 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17절)

- ㉠ (1) 솔로몬은 먼저 성전 건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14, 15절).
- (2) 이어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 왕권의 보존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16, 17절).
- (3)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은혜의 말씀(15, 16절, '허하신 말씀')에 호소하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
- (4) 우리는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참조, 창 32:9-12; 눅 5:5; 행 4:23-31).

12. ㉠ '천지에 주와 같은 신(神)이 없나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참조, 신 4:39; 삼하 7:22; 22:32; 왕상 8:60).
- (2)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홀로 하나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신 6:4; 사 42:8).
- (3) 또한 그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 (4)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한다(신 6:4, 5).

13. ㉠ 솔로몬의 제사장적 중보 기도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가? (18-42절)

- ㉠ (1)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서론적 기도(18-21절), 일곱 가지 제목의 기도(22-39절), 결론적 기도(40-42절)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 (2) 솔로몬은 서론적 기도에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사 56:7; 마 21:13)이 되기를 기원했다.
- (3) 이어서 일곱 가지 경우에 처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 (4)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구원과 은혜의 방편임(41절)을 고백한다.
- (5) 이러한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철저히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요 2:21)의 공로를 힘입어 드러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14. ㉠ 솔로몬의 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18-42절)

- ㉠ (1) 첫번째 특징은 '남을 위한 기도'이다. 그의 일곱 가지 제목의 기도는 모두 솔로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1:8-10)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발전되었다.
- (2) 두번째 특징은 '기도를 위한 기도'이다. 기도에는 바른 기도도 있고 그릇된 기도도 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즉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납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 (3)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 (4)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고 또한 우리들의 십자가 헌신을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히 4:16; 10:19).
15. **㉠** 솔로몬의 '서론적 기도' (18-21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먼저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 초월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였다(18, 21절).
 (2) 오직 성전은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장소이다(20절).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곧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4) 우리는 오늘날 동일한 원리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요 14:13).
16. **㉠** '하늘들의 하늘'이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솔로몬은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어느 장소에 매어 계시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기 위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 그러므로 일곱 하늘, 즉 7층천에 대한 유대인의 관념이나 어떤 랍비들의 두 하늘에 대한 관념도 이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3) 이것은 신 10:14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같은 표현으로 '하늘의 모든 공간들'이라는 뜻이다. 즉 그 공간이 아무리 넓고 무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간에 매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4)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그가 장소를 초월하시며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
17. **㉠** '기도', '간구', '부르짖음'은 각각 무슨 뜻인가? (19절)
- ㉠** (1) '기도'는 일반적으로 찬양, 애원, 감사를 가리킨다.
 (2) '간구'는 탄원 혹은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다.
 (3) '부르짖음'은 환호, 칭송, 감사와 즐거운 환성의 기도이다.
 (4)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18. **㉠** '주의 제신 곳 하늘'이란 무슨 의미인가? (21절)
- ㉠** (1)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2절)과 비교하여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39, 43, 49절).
 (2) 또한 앞에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성(神性)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본절에서 '주는 하늘에 계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人格性)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9. **㉠** '사하여 주옵소서'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죄 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참조, 눅 18:9-14).
 (3) 우리가 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은총을 받게 된다.
20. **㉠** 일곱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러지는 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22-39절)
- ㉠** (1) 신약의 주기도문도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마 6:9-13).
 (2) 일곱이라는 수자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수자이다.
 (3) 그러므로 솔로몬의 간구는 자비와 평안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 일곱 가지 간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22-39절)

- (A)** (1) 이 부분은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2) 그 일곱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의를 구할 때 (22, 23절)
 ② 전쟁에서 패할 때 (24, 25절)
 ③ 가뭄이 들 때 (26, 27절)
 ④ 질병과 재앙이 있을 때 (28-31절)
 ⑤ 이방인의 경우 (32, 33절)
 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에 임했을 때 (34, 35절)
 ⑦ 적국에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36-39절)
 (3)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사 56:7)으로 삼아 달라는 소원의 간구이다.

22. C 첫번째 간구 (22, 23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첫번째 간구는 범죄의 여부에 관한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다.
 (2)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완전하게 갈라 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잠 15:3).
 (3)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재판장이 되셔서 못 심령을 감찰하시고(잠 16:2)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 주신다(눅 18:7, 8).
 (4)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부당한 누명을 받을 때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12:19).

23. C 두번째 간구 (24, 25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두번째 간구는 전쟁에서 패한 후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기도이다.
 (2)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나 경쟁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여부를 돌아보게 만든다.
 (3)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과 그에 뒤따르는 회복의 은총을 힘입게 될 것이다(요일 1:9).

24. C 세번째 간구 (26, 27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세번째 간구는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가뭄의 벌을 받을 때를 위한 기도이다.
 (2) 이것은 자연 현상을 지배하시고 풍년을 흉년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나타낸다(행 14:17).
 (3) 이러한 신앙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참조, 왕상 18:41-46).

25. C 네번째 간구 (28-31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네번째 간구는 배신과 불신의 징벌로서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각종의 재앙(레 26장; 신 28장)에 관한 기도이다.
 (2) 본 간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31절, 참조, 시 130:4).
 (3)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엡 1:17) 더 나아가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한다.
 (4)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임했을 때 낙망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

26. C 다섯번째 간구 (32, 33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다섯번째 간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명성에 이끌린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것이다.

- (2) 이것은 후일 유대인을 특징지었던 이방인 혹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편협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중요한 대목이다.
- (3) 사실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도 이방인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의 혈통적 배타성과 편협성은 합당치 못한 것이다(참조, 출 22:21; 민 15:14-16; 신 10:19).
- (4) 이처럼 솔로몬의 다섯번째 간구는 민족을 초월한 복음의 성격을 보여 준다.
- (5) 우리 주님께서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엄숙하게 명령하셨다(막 16:15).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귀중한 복음을 많은 민족과 국가에 전파하여 주님의 명령을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

27. **㉠** 여섯번째 간구(34, 35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제까지의 간구는 성전 안에서 드려진 기도였으나 나머지 여섯, 일곱번째 간구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기도를 언급하였다.
- (2) 여섯번째 간구는 종군 중인 군대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인가를 받은 것이니 성전(聖戰)으로 볼 수 있다.
- (3) 여기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는 자에게 주의 돌보심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 (4) 이러한 실례(實例)는 성경 속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15:9-15; 32:20-23).
- (5)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행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신 1:29, 30).

28. **㉠** 일곱번째 간구(36-39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마지막 일곱번째 간구는 히브리 국민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다.
- (2)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이미 오래 전에 모세에 의하여 불순종에 대한 처벌로서 경고되어 왔던 것이다(레 26:33, 44; 신 28:25, 36, 64).
- (3)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그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 (4) 비록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은총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사 재기(再起)하게 하신다(참조, 사 40:31; 겔 37:11-14).

29. **㉠** '결론적 기도'(40-42절)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결론적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구원과 은혜로 응답될 것을 가르쳐 준다.
- (2)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응답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라는 점이다(42절). 또한 솔로몬 자신의 의(義)가 아니라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점이다.
- (3) 우리는 여기에서의 솔로몬처럼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시요(시 2:2),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사 42:1).

본장의 요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처소로소이다’(2절).

제 7 장 불과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단락구분 : 1-3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 4-7 솔로몬이 드린 제물 / 8-10 낙성식(落城式) 절기에 이어 장막
절을 지키다 / 11-22 밤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 여호와와 의 영광이 여호와와 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 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 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4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이 요 양이 십 이만이라 이와같이 왕과 모든 백성 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6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와 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 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와 의 인자하심이 영 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 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7 솔로몬이 또 여호와와 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 루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의 기름 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 이더라

8 그때에 솔로몬이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 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 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 니

9 제 팔 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10 칠 월 이십 삼 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 으로 돌려 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 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 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11 솔로몬이 여호와와 의 전과 왕궁을 필역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와 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 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 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 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5 이 곳에서 하는 기도 에 내가 눈을 들고 귀 를 기울이리라

16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17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 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18 내가 네 나라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하니하리라 한 대로 하 리라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 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 을 섬겨

20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 를 뽑아 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리가 되게 하리니

21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 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 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 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 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 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 리셨다 하리라 하였더라

1. ◎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 (1)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린 솔로몬은 그의 기도 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었다.

- (2) 그런데 불의 응답(1-3절)과 말씀의 응답(11-22절) 사이에는 솔로몬의 더욱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물이 바쳐지고 14일간의 절기가 지켜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3)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응답이 불의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보다 더 확실하며 더 귀하다는 점을 발견한다.
-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兵器)로 헌신한 후에도(롬 6:13)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불의 응답 뿐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받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

2. **㉠**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의 의사 표시로서 모세(레 9:24)와 기드온(삿 6:21), 다윗(대상 21:26), 엘리야(왕상 18:38) 등에게도 나타났었다.
- (2)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이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셨다는 표시이다.
- (3) 이처럼 다윗 자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리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참조, 마 1:1; 눅 1:31-33).
- (4) 오늘날도 우리들은 온전한 헌신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응답받게 된다(눅 11:13).

3. **㉡** ‘불’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1절)

- ㉡** (1) ‘불’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고 했다(히 12:29).
- (2)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죄인들을 소멸치 않으시고 그들의 제물만을 살랐다.
- (3) 즉 우리 모두는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큰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참조, 렘 15:16).
- (4) 또한 불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성령은 불꽃같이 내려와 우리의 정욕과 죄성을 불살라 주신다(참조, 마 3:11).
- (5)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기에 날로 거룩하여질 것이다(롬 6:11, 13; 엡 4:24).

4. **㉢**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기 위해 임재하셨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더 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 (3) 이처럼 성령의 불로 중생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이미 성전이 되어 여호와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다.

5. **㉣** 백성들이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 달아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다.
- (2)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가치가 없으며 그의 진노의 능력 앞에 설 자격도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 (3) 더구나 진노의 불 앞에서 그들이 불살라 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 (4)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다.

6. **㉠** ‘박석(礫石) 간 땅’이란 어떤 곳인가? (3절)

- ㉠** (1) ‘박석’이란 히브리어 <리츠파>를 번역한 말로 돌 포장 도로를 뜻한다. 즉 ‘화반석(花斑石), 백석(白石), 운모석(雲母石)과 여러 가지 보석’들의 갖가지 색깔과 재료로 모자이크 한 현관을 말한다(참조, 예1:6).
- (2) 그러한 수천 개의 모자이크가 옛 지역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다.
- (3) 신약에도 박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19:13) 이것은 아랍어 장소명인 <갑바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다. 그것은 빌라도의 재판석이 있던 장소의 이름으로서 그것의 문자적 의미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 (4) 본문은 솔로몬 성전 뜰이 매우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7. **㉠** 왕과 백성들이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4, 5절)

- ㉠** (1)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사드림으로 실천했다.
- (2) 그들은 과거에도 제사를 드렸는데(5:6) 지금 또 드리고 있다.
- (3)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를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 올라야 하며 계속하여 더욱 열심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8. **㉠** 제물은 얼마나 되었는가? (5, 7절)

- ㉠** (1) 수자로 볼 때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였다. 이렇게 제물이 많았던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심히 큰 희증이 모였기 때문이다(8절).
- (2) 본문은 희생물의 엄청난 수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대변해 주고 있다.
- (3) 우리들도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시 50:12),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에 합당하도록 인색치 않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9. **㉠**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6절)

- ㉠** (1)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분대로 서서 나팔을 불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했다.
- (2) 여기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도록 부름을 받았다(민 10:8,10).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표시이다(민 10:10).
- (3) 또한 레위인은 특별히 다윗 왕이 예비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 (4)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선조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음을 보여 준다.
- (5)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교회의 규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10. **㉠** 솔로몬과 백성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가? (8-10절)

- ㉠** (1) 그들은 먼저 성전 낙성식 절기를 7일 동안(7월 8일-14일) 지켰고, 이어서 장막절 절기를 지켰으니(7월 15일-21일) 도합 14일간 절기를 지킨 셈이다.
- (2) 그들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큰 기쁨과 지극한 만족감을 표했다(10절).
- (3)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와 교제를 나누는 데 시간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길게 생각하거나 지루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11. **㉠** 솔로몬은 어떻게 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11절)

- ㉠** (1) 그는 하나님의 전과 그 자신의 집을 건축하려는 모든 계획을 잘 수행했다.
- (2)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
- (3) 솔로몬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실천해 갈 수 있던 또 그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12. **㉠ 여호와께서 어느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12절)**

- ㉠** (1)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때에 나타나셨다(왕상 9:1). 여호와께서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1:7; 왕상 3:5) 밤에 꿈으로 나타나셨다(왕상 9:2).
- (2)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기도(6:14-42)에 대하여 응답의 말씀(12-21절)을 주시기 위해 현몽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불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표적으로도 응답하시지만(7:1) 인격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응답하신다.
- (4) 우리는 이러한 보다 정확한 응답을 받도록 사모해야 한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13. **㉠ 여호와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12-22절)**

- ㉠** (1) 응답의 말씀은 6:14-42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구체적인 승락의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다.
- (2) 그것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① 13,14절은 6:22-39에 대하여 곤경을 당할 때 죄 사함과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
- ② 15,16절은 6:18-21,40-42에 대하여 성전을 '기도하는 집'(사56:7)으로 승인하여 주신다.
- ③ 17-22절은 6:14-17에 대하여 왕권 보존의 언약을 다짐시켜 주신다.
- (3)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상고하는 가운데 정확한 응답을 받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14. **㉠ 솔로몬의 기도(6:14-42)와 하나님의 응답(7:12-22)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 ㉠** (1) 솔로몬의 기도는 목적 없는 막연한 기도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지닌 구체적인 기도였다.
- (2) 솔로몬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것이다.
- (3)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셨다.
- (4)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참조, 눅 22:42; 롬 12:2; 약 2:6).

15. **㉠ '제사하는 전'이란 무슨 뜻인가? (12절)**

- ㉠** (1)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성전을 '제사하는 전'이라고 표현했다.
- (2) 그것은 제사가 없는 '회당'(synagogue)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택함 받은 장소였다.
- (3)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약속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제사하는 전'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신 12:5,6).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그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언하셨다(사 53:5). 그러므로 그 택하신 종 예수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마 12:18; 요 14:6).

16. **㉠ 곤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13,14절)**

- ㉠** (1) 가뭄, 재해(災害), 염병 같은 곤경에 처할 때 해야 할 일과 그에 따른 구원의 약속을 밝혀 주고 있다.
- (2) 그때에 해야 할 일은 회개('그 악한 길에서 떠나')와 겸손과 기도와 헌신('내 얼굴을 구하면')이다.
- (3) 이러한 회개 행위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죄

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다(롬 5:10).

- (4)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듣고’, ‘용서하고’, ‘치료해 주신다’ 고 하셨다.
- (5)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다(요 14:13, 14; 히 2:17).

17. **㉠** 하나님께서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신다’ 는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시다(딤후 6:16).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의인화하였다. 15절이 그런 경우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말하고 있다.
- (2)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 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아신다.
 - ②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3)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18. **㉠**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라고 기도한 바 있다(6:20).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눈 뿐만 아니라 내 눈과 함께 나의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 고 응답해 주셨다.
- (3)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하게 임했던 것을 보여 준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이다(엡 3:20).
- (5)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에 큰 격려를 주고 있다.

19. **㉠** 17-22절의 엄숙한 경고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서두였던 다윗 보존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6:14-18).
- (2) 17, 18절은 계명을 지킬 경우에 약속하신 긍정적 응답이지만 19-22절은 계명을 버릴 경우에 있을 저주를 말씀하신 부정적 응답이다.
- (3) 이 경고의 말씀은 레 26:1-20과 같이 언약의 결과로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재확인해 주셨다.
- (4) 우리는 징벌 전에 반드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하며, 더 나아가 말씀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한다. 혹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징벌 전에 경고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겠다.

20. **㉠** ‘네 아버 다윗같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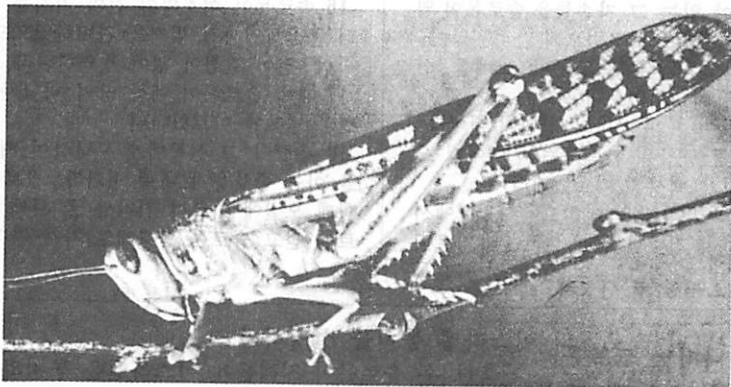
- ㉠** (1)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전혀 범하지 않고 온전히 다 지켰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다윗의 범죄 사실을 묵과하는 말씀도 아니다.
- (2)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의 의(義)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충성이었다.
- (3)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다(슥 12:10; 눅 18:13, 14).
- (4)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선행에 앞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
- (5)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먼저 죄인 됨을 자백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겠다(눅 18:13, 14; 요일 1:9).

21. **㉠** 18절에 나타난 다윗과의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8절)

- A** (1)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의 왕통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즉위한 이스라엘의 왕이 단절되지 않을 것을 가리킨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치 못하여 계명을 저버리면 그들 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윗 왕조는 멸절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시 89:30-37).
- (3)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變改)되지 않는다(히 6:17, 18).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22. Q** 20절에 '성전을 버리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성전마저 버리시겠다는 엄숙한 경고를 하셨다.
- (2) 이 말씀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에 대해 응답된 말씀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 (3)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어도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가리키고 있다.
- (4) 우리가 외면적으로 성도로 불리울지라도 몸의 행실에서 말씀을 불순종하여 깨끗치 못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고전 3:16, 17).

화보자료

메뚜기. 메뚜기는 사막 부근에 위치한 더운 지방에 있어서 매우 무섭고 위협적인 재앙을 일으키는 곤충으로 간주되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추수를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성경에서 메뚜기란 명칭은 원어상으로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재앙과 연관되어 나타난다(28절; 욕 2:2-11). 한편 성경 기록에서 볼 때 메뚜기는 약함의 상징이기도 하고(민 13:33; 시 109:23) 한 마리씩 따로 있을 때에는 무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표현되기도 했지만(민 13:33; 사 40:22)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표현되기도 했다(신 28:38, 42; 왕상 8:37; 암 7:1, 2).

제 8 장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단락구분 1-2 솔로몬의 성읍 재건(再建) / 3-6 정복 사업 / 7-10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다 / 11 솔로몬의 왕비가 된 바로의 딸 / 12-13 3대 절기를 지키다 / 14-15 성직자를 임명하다 / 16 성전 완공 / 17-18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다

1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이십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3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4 또 팡아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5 또 윗 벰호론과 아래 벰호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빋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6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7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 있는 자
 8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9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10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이백 오십 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

하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례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2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일 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14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좇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15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전의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역하니라
 17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18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오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 왔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부강(富強)한 나라를 이룬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솔로몬은 대외적으로는 정복 사업(2-6절)과 무역 사업(17, 18절)을 전개했고, 대내적으로는 노동(勞動) 제도를 정비하였다(7-10절).
- (3)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모세의 명을 좇아'(13절) 3대 절기를 지키고, '다윗의 정규(定規)를 좇아'(14절) 성직자를 임명하는 등 종교 정책에 힘썼다는 점이다.
- (4)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먼저 종교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져야 한다.

(5)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단5:21)께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영국, 미국 등을 축복하시고 복음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2. **Q**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절)

- A** (1) 전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호의를 베푼 후람에게 갈릴리 20성읍을 주었다가 다시 받은 적이 있다(왕상9:10-14).
- (2) 본문의 성읍들은 그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 (3) 솔로몬은 그것들을 다시 건축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은유함을 보여 준다.
- (4) 왜냐하면 후람은 그 성읍들을 보잘것없다 하여 가불(무가치한 땅을 의미함)이라 부르면서 되돌려 주었지만 솔로몬은 불평 없이 그것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였다.
- (5) 은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마 11:29)은 부족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지어 주셨다(엡 2:20-22;4:24).

3. **Q** 본장에 나타난 지명들의 위치를 말하라.

- A** (1) 지도를 참조하라.
- (2) 하맛소바: 일명 '소바'라고도 하며 다메섹 북동쪽에 있다(3절)
- (3) 다드물: 다메섹 북동쪽 약 96km 지점에 있다(4절)
- (4) 하맛(4절)
- (5) 윗 벰호론, 아래 벰호론: 예루살렘의 북서쪽 읍바 항구로 가는 요충지(5절)
- (6) 예루살렘(6절)
- (7) 레바논(6절)
- (8) 에시온게벨(17절)
- (9) 엘롯(17절): 예돔 땅 홍해 근처
- (10) 오빌(18절): 금이 풍부한 나라로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으로 추측됨(참조, 읍 22:24)



4. **Q** 솔로몬의 정복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절)

- A** (1)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만 그치지 않고 변경에까지 진출해 영토를 확장했다.
- (2) 그리고 그곳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해서 외적에 대해 방비를 튼튼히 함으로 평화스런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 (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5. **Q** '하맛소바'는 어떤 곳인가? (3절)

- A** (1) 일찌기 사울이 소바의 왕들을 쳐서 물리쳤고(삼상 14:47), 다윗도 소바 왕 하닷에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던 곳이다(삼하 8:3-8).
- (2) 솔로몬은 이러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여 그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전 하맛소바가 북방에 있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이제 솔로몬이 그들을 정복함으로 위협의 요소는 사라져 버렸다.
- (3)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사 9:6)의 모형적 인물이 되었다.
- (4)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주위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마 5:14-16; 10:34-39; 요 14:27).

6. **㉠** '국고성' (國庫城)은 무엇을 하는 성인가? (4, 6절)
㉠ (1) '국고성'이란 '저장의 성', 즉 '저장고'라는 뜻이다.
 (2) 국고성은 요셉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누어 주는 애굽의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참조, 창41:48).
 (3) 솔로몬이 시작하여 그 후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을 거쳐 계속되어 오면서 이 성들은 예루살렘 혹은 사마리아에 있는 궁중 직원들에게 보낼 기름과 곡식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고(왕상 4:7, 22, 23), 정부 세입의 중요 부분을 거둬들이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4) 솔로몬은 이처럼 국고성을 건축함으로써 재정적인 면에서 국가의 안정을 이룩했으니 이것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줄 신령한 양식을 저장할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먼저 갖추도록 해야 한다.
7. **㉠** 솔로몬이 윗 벤호론과 아래 벤호론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이들 두 벤호론 성읍들은 예루살렘에서 읍바 항구에 이르는 북서쪽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했다.
 (2) 이러한 도시가 허술하면 바다를 통한 외세의 침입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점에 성과 문과 문빰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던 것이다.
 (3) 솔로몬은 하맛소바같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하였지만 동시에 바다로부터 침입할 적들에 대한 방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4) 오늘날 교회들은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하지 말고 양적인 것과 동시에 말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내실(內實)을 이루는 데에 힘써야 한다.
8. **㉠**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1) 이것들은 국고성이나 벤호론의 방어성과는 달리 기병들을 수용하기 위한 처소로 건축되었다.
 (2) 이로써 솔로몬의 군인들은 보다 조직적으로 정비될 수 있었다.
 (3) 이처럼 솔로몬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4)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신령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9. **㉠** 솔로몬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 8절)
㉠ (1)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의 남아 있는 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2) 그들의 노동력이 이와 같이 강요된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건축과 건설 사업을 20년 이상 실시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전2:4-10).
 (3)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노아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창9:25)의 성취이다.
10. **㉠**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좀더 고급의 역군으로 삼아 군사와 두목과 장관이 되게 했다.
 (2)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신 예언(출19:5)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신 말씀(레25:39)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다.
 (3)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그들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4)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외적인 조건으로 성도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약2:1, 9).
11. **㉠**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1) 솔로몬은 그 이유를 '여호와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 솔로몬은 그와 결혼한 바로의 딸을(왕상3:1) 처음에는 다윗의 궁전에 거하게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가 들어올 다윗의 궁전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 (3) 아마도 그는 정략상(政略上)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그녀가 유대교로 개종했을지라도 여호와와의 계가 있던 곳에 살게 할 수는 없었다.
- (4) 후에 이 결혼이 울무가 되어 하나님을 배역(背逆) 했지만(왕상 11:1-8) 솔로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주목할 만하다. 솔로몬의 범죄 문제는 가나안의 많은 여인들을 후비로 맞는 후기에 발생했다(왕상 9:1). 우리는 본문에서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여 세상에 대처하는 신앙 원리를 배워야겠다.

12. **㉠** 솔로몬의 성전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12, 13절)

- ㉠** (1) 솔로몬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던 악습을 고치고 쌓여 있던 불경건을 제거했던 것을 나타내어 준다.
- (2) 그는 친히 백성의 대표로서 성전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했다.
- (3) 우리 주변에는 사회에 투신을 했으나 그의 개인적인 모든 봉사에는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다. 또 예배 의식에 도움을 주면서 자기 마음은 결코 거기에 쏟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본문은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

13. **㉠**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번제는 속죄적인 것이 아니라 표본적인 것으로 예배자 편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의미했다(롬 12:1).
- (2) 이러한 번제는 그 전에 속죄 제사가 없을 경우에는 결코 드러질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헌신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본문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전제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고(롬 8:9), 그의 드리는 아무런 헌신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14. **㉠**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13절)

- ㉠** (1) 번제는 '모세의 명을 좇아' 드렸다.
- (2)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의 기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 (3)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봉사하고 생활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롬 12:1)고 하신다.
- (4)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롬 12:2).

15. **㉠** '번제를 드리는 때'가 갖는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 (13절)

- ㉠** (1) 매일: 상번제(늘 드리는 번제)라고 불리워진다. 즉 어느 때에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기본적인 의미이다(출 29:42).
- (2) 안식일: 일곱째 날은 특별한 구속의 날을 기억케 하는 날로서 특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신 5:15). 이런 의미에서 상번제 외에 따로 번제를 드렸다.
- (3) 초하루: 한 달의 첫날은 여러 면에서 안식일과 유사하고(호 2:11; 암 8:5) 성전 제사는 안식일보다 더 철저히 지켜졌다(민 28:9-15). 그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시간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 (4) 3대 절기들: 이때는 특별한 구원의 역사적 사실, 부요함의 언약을 상기하며 새로이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가 있다.

16. **㉠** 솔로몬은 성전 일을 위한 직분을 어떻게 맡겼는가? (14절)

- Ⓐ (1)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의 정한 규칙을 따라’ 직분을 맡겼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말이다.
- (3) 현대의 목회자들도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 진리의 규범인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17. ⓐ ‘다윗의 정규(定規)’는 어떤 내용인가? (14절)

- Ⓐ (1) ‘다윗의 정규’는 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의 직무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대상 24-26장).
- (2)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24반차로 제비뽑아 나뉘어 각 반열이 1년에 2주간씩 지켰다(대상 24장). 찬양대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로 역시 24반열로 제비뽑았고(대상 25장) 문지기도 제비뽑혀 문과 창고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대상 26장).
- (3) 이들은 모두 차별 없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대상 24:31; 25:8; 26:13). 더구나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참조, 행 1:26) 하나님 중심주의로서 오늘날 교회의 직분에 대한 지침이 된다.

18. ⓐ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의 직무에 대해 어떻게 임했는가? (15절)

- Ⓐ (1) 그들은 보물 창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모두 지켰다.
- (2) 이것은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결과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였다(참조, 마 25:21).
- (3)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정확 무오한 유일의 규범임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
- (4) 이러한 신앙 위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거기에 따르는 본분을 이처럼 불평 없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19. ⓐ ‘여호와의 전이 결점(缺點)이 없이 필역(畢役)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드림에 있었기 때문이다.
- (2) 이제 그 지은 성전에서 제사드릴 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가 조직되어 ‘번제’를 드리게 되었으니 비로소 더 중요한 것이 구비된 것이다.
- (3)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결점 없이’ 필역했다고 서술한 것이다.
- (4) 우리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고전 3:16) 결점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하겠다. 당신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하고 또 익숙하다 하더라도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아직 성전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롬 8:9).

본장의 요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凡百)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필역하니라’
(16절).

제 9 장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

단락구분 1-12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의 진사 / 13-21 솔로몬의 부귀 / 22-28 솔로몬의 권세 / 29-31 솔로몬의 행적과 죽음

1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2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3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4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5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6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7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

8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지혜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 이에 저가 금 일백 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10 (후랍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 온지라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12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의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13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육백 육십륙 금 달란트요

14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 온지라

15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이백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육백 세겔이며

16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백 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7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18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합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 또 열 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0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1 왕의 배들이 후랍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삼 년에 일차씩 낙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22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23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24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5 솔로몬의 병거 메는 말의 외양간이 사천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6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28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29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십 년이라

31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함께 그의 부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2)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를 방문한 후 그의 뛰어난 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다(1-12절).
- (3) 솔로몬은 지혜 뿐 아니라 왕궁의 화려함과 풍요함에 있어서도 타(他)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13-21절).
- (4) 또한 그는 외교적인 면에서도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더욱 확장된 영토를 다스렸다(22-28절).
- (5) 그는 이러한 부귀와 권세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여 준 예표적인 풀이었다.

2. ㉠ 열왕기상의 동일 기사와 비교할 때 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열왕기상 10장의 각 귀절과 같다.
- (2) 그리고 본장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장(章)으로 왕상 10, 11장을 요약한 셈이다. 그런데 왕상 11장의 내용 곧 그의 말년의 태만함에 대한 기사(1-40절)가 모두 생략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 (3) 그 이유는 역대기의 저술 관점이 열왕기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열왕기가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3.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절)

- ㉠ (1) 스바 여왕의 방문은 우리로 하여금 전장(前章)의 마지막 부분(8:17, 18)을 상기(想起)하도록 한다.
- (2) 솔로몬의 상선들이 멀리 오빌에까지 왕래하게 되었으니 자연히 그의 명성도 원근 각처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 (3) 스바 여왕은 바로 그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묻기 위하여 왔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든 신자들의 삶 - 그것이 여행이든 상업이든 공적 업무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 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참조, 고후 2:14-16; 빌 1:27).

4. ㉠ '스바'는 어디인가? (1절)

- ㉠ (1)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로 사베아인들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 수도는 '마립'이라 한다.
- (2) 사베아인들은 금, 향품, 보석 등을 많이 수출했다(사 60:6; 렘 6:20; 젠 27:22).
- (3) '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상 1,920km가 되는 곳이었으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굉장한 먼 거리를 여행한 셈이다.
- (4)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땅 끝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심판 때에 그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경고하셨다(마 12:42; 눅 11:31).
- (5)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스바 여왕의 이러한 열심은 오늘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 더디고 게으른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

5.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부귀 영화에 대한 소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여호와와 은총으로 솔로몬이 얻은 명성' (Gesenius)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가 얻은 명성' (Ewald)이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므로 얻은 명성' (Weil)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적합하지 않다.
 (3) 비록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레셈 여호와>라는 히브리어가 보다 정확한 해석을 제공한다(삼하 7:13; 왕상 3:2; 5:5; 8:17-20, 44, 48). <레셈>이란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는 뜻이다.
 (4) 따라서 솔로몬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그가 최초로 지은 성전의 소문이었다.
 (5)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적합한 '진정한 명예'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교훈을 얻는다.

6. **㉠**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묻는 말에 모두 대답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여기서 여왕은 솔로몬과 단순히 수수께끼를 푸는 데 씨름했던 것은 아니다.
 (2) 그녀는 어떤 중대하고 난제가 되는 문제를 솔로몬에게 묻고 해결하기를 원했다.
 (3) 3,000 잠언을 말하였던 솔로몬(왕상 4:32)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는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애매하거나 숨겨진 것이 없이 시원스럽게 대답하여 주었다.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문들에 대답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까지 아셨다(마 16:7, 8).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하도록 하자.

7. **㉠**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무엇 때문인가? (3, 4절)

- ㉠** (1) 스바 여왕이 진정 놀랐던 것은 솔로몬 왕궁의 화려한 시설 때문은 아니었다.
 (2) 오히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다(참조, 3, 5-7절).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는 모든 신하들의 질서 있는 복종을 가져왔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약 3:17, 18).

8. **㉠**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8절)

- ㉠** (1)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된 스바 여왕은 왕과 그 신하들의 무한한 행복을 노래했고 또 여호와를 찬송했다.
 (2)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의 신하들을 '복되도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다스리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다.
 (3)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9. **㉠**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9절)

- ㉠** (1) 스바 여왕은 먼저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 그것은 약 4,08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때의 금 120달란트는 20성읍에 대한 배상금과 같은 가치가 있었다(왕상 9:14).
 (2) 또 그녀는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 향품은 아라비아 산품(產品)으로 심히 진귀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매우 풍성한 양을 예물로 바쳤다.

10. **㉠**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는 말씀은 10,11절의 부연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무슨 의미를 갖는가? (9-11절)

- ㉠** (1) 전에 오벨에서 금을 가져올 때(8:17, 18) 함께 가져온 백단목으로 층대와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10, 11절).

(2) 백단목(白檀木, almg tree)은 인도산으로 그 나무의 향기로 인하여 매우 값진 목재이다. 그것은 형상을 새기는 나무로 또는 고급 용도에 재료로 쓰이며 향을 태우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3) 이렇게 백단목처럼 스바 여왕의 향품도 희귀한 가치가 있었고 또 유용하게 쓰였다.

11. **㉠ 솔로몬의 세입금(歲入金)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 (13, 14절)**

㉠ (1) 여기서 세입금이란 특정하고 예외적이었던 어떤 한 해의 세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의 세입금은 금의 중량으로 666달란트(약18, 981kg)가 되었다. 아마도 스바 여왕의 방문이 있었던 그 해의 세입금이었던 것 같다.

(2) 이것 외에도 무역하는 상인들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방백들이 보내온 금과 은도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산은 참으로 막대한 것이었다(참조, 22절).

(3) 솔로몬이 이러한 부(富)를 누리게 된 것은 일찌기 기브온 당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1:12)이 성취되어진 결과이다.

12. **㉠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은 어떠한가? (15-21절)**

㉠ (1) 본문은 몇 가지 실례(實例)들을 통해서 그 화려함을 말해 준다.

(2) 그것들은 금과 관계되어 있는데 금방패와 금보좌와 금그릇 등이다.

(3) 솔로몬 왕궁이 이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계21:18)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계 21:20).

(4) 따라서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할(계 22:5) 천국의 영광을 상징한다.

(5) 주님께서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다(눅 22:30). 우리는 그 확실함을 굳게 믿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견디고 주님 가신 끝까지 길을 따라 가도록 하자(롬 8:18; 고후 4:16-18).

13. **㉠ 금방패들이 왕궁에 장식된 것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를 말하라(16절).**

㉠ (1) 방패는 성도의 믿음을 상징한다(엡 6:16). 특별히 금방패는 성도의 믿음이 금같이 연단되어 순결하고 진실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벧전 1:17).

(2) 이러한 금방패가 왕궁에 장식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롬 3:27; 히 4:3).

(3)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 주고 장식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고 아울러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갖도록 해야겠다(롬 15:3; 엡 2:8).

14. **㉠ 금보좌는 어떤 것이었는가? (17-19절)**

㉠ (1) 보좌는 상아로 크게 만들어 정금으로 입혔다. 보좌의 여섯 층계 좌우편에는 팔걸이 옆에서부터 열 두 사자 모양이 호위하게 했다. 또 아래에는 금족대(金足臺)가 있었다.

(2) 이 보좌는 왕의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 바닥에 앉거나 또는 의자에 기대는 것이 관습인 이스라엘에서의 의자 사용은 항상 위엄의 표시였다.

(3) 결국 이 금보좌는 천국에서 왕 노릇할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 준다.

15. **㉠ '열 두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1) 여러 국가들 간에 통치권의 상징인 사자(獅子)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상징으로 성경에 언급되었다(창 49:9; 참조, 민 23:24; 24:9).

(2) 그것은 주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한편 보좌의 수호자로서 열 두 지파를 상징한다.

(3)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 노릇할 때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다(눅 22:30).

- (4) 그러므로 '열 두 사자'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왕 노릇할 것이다(히1:14).

16. **㉠**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보좌의 화려함이 세상 모든 나라의 그것보다 뛰어났음을 나타낸다.
(2)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왕권(王權)은 이 세상의 어떤 군왕도 누려 본 적이 없는 위대한 것이다.

17. **㉠**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20절)

- ㉠** (1) 본문에 솔로몬의 식기 뿐 아니라 왕궁의 그릇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여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매우 평범한 그릇마저도 금으로 만들어 사용할 만큼 부유하고 영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3) 이러한 솔로몬 왕의 부귀(富貴)는 일찌기 기브온 산당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1:12)이 성취된 것이다.
(4)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참조, 마 24:35).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8. **㉠** 솔로몬이 무역했던 다시스는 어떤 곳인가? (21절)

- ㉠** (1) 다시스의 위치는 남서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협 근처이다.
(2) 다시스는 고대 베니게의 상업 중심지로 은이 많이 생산되었다.
(3) 솔로몬의 상선이 이곳을 다니며 무역했다는 것은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교역을 했다는 뜻이다.
(4) 여기서 솔로몬의 무역 물품은 금, 상아, 잔나비, 공작 등인데 이것들은 오빌, 인도에서 다시스로 실어 온 것들이다.

19. **㉠**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어느 정도였는가? (22절)

- ㉠** (1)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열왕(天下列王)보다 컸다. 하나님께서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3)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권적 위엄이 하나님의 임하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다(마 6:29).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요 14:2, 3)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5)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생각할 때, 그러한 영광을 기업으로 누릴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렘 1:18, 19; 5:8; 빌 1:27; 살전 4:1-3).

20. **㉠**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가? (26절)

- ㉠** (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천하 조공을 받고 외교적인 우위를 확보했다(22-24절). 그와 함께 강력한 병력을 기반으로(25절) 그의 통치 영역은 동(東)으로 유브라테 강까지 서(西)로는 애굽 지경까지 확장되었다(26절).
(2)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력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마 28:18; 요 17:2).
(3) 신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全權大使)이다. 성도들은 온 우주(宇宙)에 미치는 주의 권세를 힘입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vision)을 가져야 한다(행 1:8).

21. **㉠**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29절)

- Ⓐ (1)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역사의 근본 자료를 '솔로몬의 행장'이라고 했다(왕상11:41).
- (2) 역대기에서는 선지자 나단과 아히야와 잇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 (3) 이것은 구약의 왕들의 행적이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려 준다.

22. ⓐ 솔로몬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30,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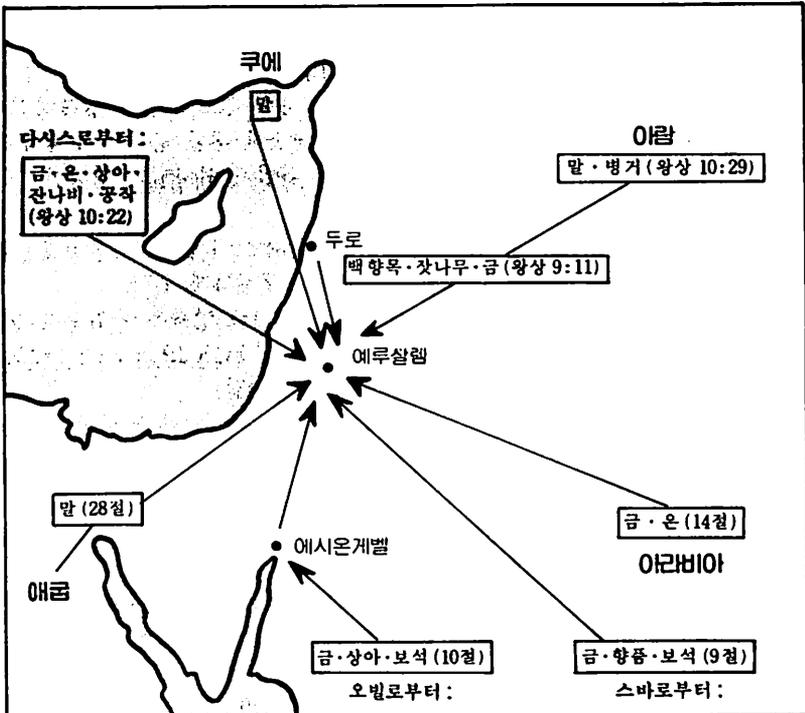
- Ⓐ (1) 그는 전무 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었다(1:12).
- (2) 그러나 그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왕상2:2). 그는 재위 40년 만에 60세로 죽어 장사되었다(참조, 왕상3:7).
- (3) 비록 솔로몬이 지혜자였으나 우매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다(전2:16). 이는 그도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요11:25)를 필요로 한 죄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23. ⓐ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 Ⓐ (1) 솔로몬은 전무 후무(前無後無)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다.
- (2) 그러나 솔로몬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무익한 것이었다고 슬회하였다(전2:9-11).
- (3) 이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헛되게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영혼은 영생할 것이다(참조, 벧전1:24).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기 보다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자료

솔로몬의 무역



제 10 장 이스라엘 열 지파의 반란

단락구분 1-5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요구 / 6-11 노인들의 종교와 소년들의 종교 / 12-15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다 / 16-17 열 지파의 반란과 분열 / 18-19 르호보암의 도주

1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음 이더라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3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4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삼 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담하게 하겠느냐

7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9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저렇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담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장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12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삼 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13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14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장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16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18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 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들로 쳐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라.

- ㉠ (1) 본장에 이르러서 120년간 계속되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가 열 지파의 반란으로 끝이 나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진 남북조(南北朝)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 (2) 이렇게 통일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에 있었다.
- (3) 즉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탄원을 들었을 때 늙은 신하들의 옳은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

하들의 강경론(強硬論)에 따라 백성의 탄원을 거절하는 실정(失政)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 (4) 이로써 민심(民心)은 르호보암을 떠나고 열 지파의 반란이 일어나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 (5)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15절). 즉 본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서(왕상 11:11-13) 본장에는 심판의 아픔과 함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 **㉠** 르호보암은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이방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다(왕상 14:31).
- (2)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아지다'이다. 아마도 이것은 그에 대한 솔로몬의 야심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것 같다.
- (3) 그러나 그는 유약(幼弱)한 사람으로 나타났다(13:7). 솔로몬은 그러한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었다(전 2:18, 19).
- (4)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2:14; 왕상 14:22). 이것은 그의 출생과 교육으로부터 나온 자연스런 결과였다.
- (5) 그는 41세에 즉위했고(재위, B. C. 931-913) 나라의 분열을 체험하는 비운의 왕이 되었다.
- (6)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녀 교육은 지식이나 행위보다 부모의 경건한 '삶'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배운다(참조, 왕상 11:33-36).

3. **㉠** '세겜'은 어느 곳인가? (1절)

- ㉠** (1) 세겜은 그리스 산 동북쪽에 있는 곳으로 현재의 텔 발라타(Tell Balatah)로 추정된다.
- (2) 세겜은 북쪽 지파들의 고대의 집합 장소였다(수 24:1). 그곳은 에브라임 지역의 수도로서 팔레스틴의 정 중앙부에 위치했다.

4. **㉠**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는 에브라임을 지파들의 강한 중심으로한 북쪽 지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 (2) 또한 르호보암은 그곳에서 백성의 추대를 얻어 북쪽 10지파를 확실히 연합키를 원했다.
- (3) 그러나 이 소원들은 어긋나고 말았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은 자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다.
- (4)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잠 16:7)을 기억하자.

5. **㉠**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2절)

- ㉠** (1) 그는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망명객이었다.
- (2) 그는 에브라임 족속으로 스레다의 과부 스투아의 아들이었다. 그가 솔로몬 시대에 밀로 건축의 감독자로 있을 때 선지자 아히야가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왕상 11:26-40).
- (3) 그는 후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왕국의 첫 왕이 되었다(왕상 12:20).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다(왕상 11:38, 39).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고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왕상 13:34).

6. **㉠** '명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명에의 히브리어인 <을>은 모든 종류의 무거운 짐을 가리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짐승의 목에 얹는 틀을 가리킨다(민 19:2; 신 21:3; 삼상 6:7).
- (2) 본문에 사용된 '명에'란 말은 노역(勞役)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 여러

곳에 ‘멍에’란 단어가 쓰여졌다(레 26:13; 신 28:48; 렘 27:8, 11).

- (3) 모든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멍에를 메고 사는 존재이다. 차이점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의 열매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에게 종 노릇하여 사망의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데 있다(롬 6:20-23).

7. **㉠**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와 무엇을 요청했는가? (4절)

- ㉠** (1)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메웠던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2) 사실 솔로몬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는 없었다(9:27; 왕상 4:25).
- (3)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큰 건축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전 2:4-6) 많은 백성들게 ‘노역과 세금의 멍에’를 메웠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청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백성들은 번영과 풍요와 함께 안식(安息)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8. **㉠**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는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2) 그는 충고를 듣기 위해 노인 모사들과 젊은 모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나블루스로 불러들였던 것 같다. 그 거리는 하루(12시간)가 꼬박 걸리는 먼 여행을 필요로 했다.
- (3) 3일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었다.
- (4)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미를 둔 것은 그가 백성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백성을 모르는 왕이었다.
- (5) 오늘날도 피지배자를 모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무지는 재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9. **㉠**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6절)

- ㉠** (1) 이들은 부왕인 솔로몬의 모사였던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왕상 4:2 이하에 나오는 관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 (2)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 (3) 미련한 자는 모사를 볼 줄 모른다. 아합 왕은 모사 시드기야를 좋아했고 참 모사 미가야를 무시하였다가 그날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18:1-34). 압살롬도 눈이 어두워서 아히도벳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다(삼하 17:14).
- (4) 우리의 참된 모사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된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된 모략으로 싸우는 자만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잠 24:6).

10. **㉠** 노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7절)

- ㉠** (1) 그들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백성의 참된 왕이 되는 길을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는 것과 선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 (2) 이것은 영구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왕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가 결국 높임을 받기 때문이다(눅 22:25, 26).
- (3) 오늘날도 복종할 줄 아는 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 당신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 바로 복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엡 6:9; 골 4:1).

11. **㉠** 노인들의 충고를 들은 르호보암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8절)

- ㉠** (1) 노인들의 충고는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피가 흐르는(12:13) 무모하고 오만한 젊은 왕에게는 거스리는 것이었다.
- (2)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이미 노인들의 제안을 거부해 버린 채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 (3) 르호보암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자였다(막 8:34). 그에게는 충성된 신하의 훈계를 받아들일 틈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는 궁핍과 수욕이 남아 있을 뿐이다(잠 13:17, 18).
- (4) 우리는 과연 마음 문을 닫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다(시 119:18, 20; 마 13:14, 15; 계 3:20).

12. **㉠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8절)**

- ㉠** (1)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드>는 태어날 때부터(참조, 출 2:3)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나이에도 사용될 수 있다.
- (2) 이들은 위에서 노인들을 가리킬 때 쓰여진 <제케남>과 같이 왕의 공식적인 고문(顧問)은 아니다.
- (3) 여기에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이미 왕도(王道)의 기준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호보암은 물을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 물으려 했던 사울(삼상 28:3 - 25)과 비교해 보라.
- (4) 우리의 참된 모사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명심하도록 하자(요 14:6).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다(딤후 4:3).

13. **㉠ 소년들에게 묻는 질문(9절)은 노인들에게 묻는 질문(6절)과 무엇이 다른가?**

- ㉠** (1) 소년들에게 묻는 질문에는 ‘백성이... 하였느니라’란 말이 첨가되어 있다.
- (2) 그것은 애초에 백성들의 요청이 달갑지 않았고 노인들의 충고도 불만스러웠다는 의미이다.
- (3)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르호보암은 바른 이성(理性)을 잃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쳤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 충직(忠直)한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직 그를 실족케 할 감언 이설(甘言利說)만이 들릴 뿐이다.
- (4) 이것은 오늘날 거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참조, 눅 20:1-18).

14. **㉠ 소년들의 대답은 어떠한가? (10, 11절)**

- ㉠** (1) 소년들은 백성들의 요청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과격한 말을 하도록 르호보암에게 고하였다. 즉 멩어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전갈(全蠶)로 정치(懲治)하리라는 것이다.
- (2) 이들은 백성의 사정과 어려움보다는 르호보암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르호보암의 발 앞에 그물을 치고 있는 것이다(잠 29:5).
- (3) 우리는 우리를 높여 주는 말을 들을 때 조심하자(눅 16:15; 6:26).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고 아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벧전 5:6).

15. **㉠ 소년들의 대답(10, 11절)과 노인들의 대답(7절)을 비교하라.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 ㉠** (1) 노인들의 대답에는 권고와 함께 약속(‘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이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들의 대답에는 그런 약속이 없다.
- (2) 대신 소년들은 왕이 덧붙여 인용했던 백성의 요청을 다시 맞받아 말하고(10절) 르호보암의 귀를 즐겁게 하여 왕의 대답할 말을 직접 소개해 주고 있다(11절).
- (3)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 깊이 숙고했으나 소년들은 르호보암 개인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다는 사실이다.
- (4)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선한 모략을 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명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잠 20:5).

16. ㉠ '전갈' (全蠶)의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전갈은 독이 있는 곤충으로(신 8:15; 젤 2:6; 눅 10:19; 계 9:3,10) 팔레스틴 지방에 약 10종류가 있다. 거미와 작은 벌레들을 꼬리에 달린 독 있는 침으로 쏘아 잡아 먹는다.
 (2) 본문에 사용된 '전갈'은 비유적 표현으로 '전갈의 독아(毒牙)처럼 가시 달린 채찍'을 가리킨다.

17. ㉠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 (1) 3일 후 나아온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12-14절).
 (2) 이것은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즉 르호보암은 강압에 의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경우처럼 스스로 강박케 되어 말한 것이다(참조, 출 14:4; 롬 9:18).
 (3) 그리고 이 사건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왕상 11:11, 31-36).
 (4)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다윗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그대로이다(신 5:9, 10).

18. ㉠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6, 17절)

- ㉠ (1)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계통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했다.
 (2) 그들의 반응에서 다윗의 왕가에 깊이 뿌리 박기를 원치 아니한 것이 강하게 나타난다.
 (3) 이것은 세바가 다윗의 집을 거스려 일어날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삼하 20:1).
 (4) 이로써 백성들은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포기까지 단행한 것이다.
 (5) 오늘날 교회에 부분적인 부조리가 있다 해서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난받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 그분은 비난받으실 수 없다. 감정의 도를 넘어 진리의 말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임을 명심하자(신 5:11).

19. ㉠ 하도람은 어떤 사람인가? (18절)

- ㉠ (1) 그는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였으니 공사를 지휘하고 또 세금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였다.
 (2) 그는 아도람(왕상 12:18) 또는 아도니람(왕상 4:6)으로도 불리워졌다. 아마도 그는 다윗의 감역관(監役官) 아도니람(삼하 20:24)과 동일인이거나 후손일 것이다.
 (3) 이런 배경을 가진 하도람은 멩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에게 원성을 받을 만 했다.

20. ㉠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하도람을 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 (1) 르호보암은 자기 권리를 강화하려 했고 또 그는 백성의 불평(16절)에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갈로 그들을 자기 말처럼(14절) 징치하려 했다.
 (2) 그러므로 하도람이 보냄을 받은 것은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엄중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3) 그는 결국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때 르호보암은 황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했다. 그는 하도람에게 던져지는 돌들이 자기에게 던져지는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4) 그의 위협적인 언사는 그렇게 불품 없이 끝나고 말았다(잠 11:2; 16:18; 18:12).
 (5) 그는 하도람 대신에 화친의 사절을 보내야 했다(눅 12:58, 59). 우리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즉 '짐을 가지는 자는 다 짐으로 망하느니라'(마 26:52)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제 11 장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의 통치

단락구분 1-4 르호보암의 통일 전쟁을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다 / 5-12 유다를 방비하기 위해 건축된 성읍들 / 13-17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 18-23 르호보암의 아내들과 자녀들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 팔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 여호와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 곧 베들레헬과 에담과 드고아와

7 벧술과 소고와 아들람과

8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11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그 장관을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13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이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15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삼 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18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19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20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야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아와 앓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21 르호보암이 아내 십 팔과 첩 육십을 취하여 아들 이십 팔과 딸 육십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야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22 마야가의 아들 아비아를 세위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23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 남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다.
- (2) 통치 초기 10지파를 회복하려 용사 18만을 모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보내어 그것을 저지하셨다(1-4절). 대신 르호보암은 유다를 방비하는 15성읍을 건축하게 되었다(5-11절).
- (3) 하나님께서는 통일 전쟁 대신에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와 르호보암은 강성하게 되었다(12-17절).

- (4) 또한 르호보암은 아들 28명을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를 하였다(18-23절).
- (5) 이러한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왕상 11:36)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셨던 것이다.
- (6)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약속되어 있다(참조, 히 10:23; 13:8).

2. **㉠**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1절)

- ㉠** (1) 베냐민 지파는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주도한 반역에 가담치 않고 유다에 포함되어 르호보암에게 속했다.
- (2) 그런데 사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경쟁자였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지파로 다윗의 통치를 오랫동안 거부한 적이 있었다(삼하 3:1).
 - (3) 그러나 신앙적 수도이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경내에 있었고 유다 지역과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었다.
 - (4) 이러한 두 지파의 신앙적 공통성은 과거의 정치적인 불화보다 더 깊어 베냐민은 그 주 사위를 유다에게 던지도록 결정했던 것이다.
 - (5) 이렇게 유다의 동반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위해 택한 백성들을 예비해 두신다(왕상 19:18; 사 6:13).

3. **㉠** 르호보암이 용사 18만을 모은 의도는 무엇인가? (1절)

- ㉠** (1) 이는 떨어져 간 열 지파를 무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것은 전갈로 징치한다고 했던 젊은 왕의 혈기(血氣)의 발로였다.
- (2) 그는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 (3) 만일 전쟁을 한다면 수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열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에 패한다면 유다의 등불이 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 (4) 르호보암은 그의 무모한 반응으로 인해 자멸(自滅)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4. **㉠** ‘하나님의 사람’ 과 ‘선지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사람’이란 명칭은 ‘선지자’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 (2) 그 명칭은 ‘천사들’에게(삿 13:6, 8), ‘모세’에게(신 33:1) 그리고 ‘다윗’에게도(8:14) 쓰였다.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자나 종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딤후 6:11).
 - (3) 이에 비해 선지자(히, 나비)는 ‘가르치는 자’에게만 한정된다(사 9:15).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스마야의 메시지가 한층 더 엄중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2-4절)

- ㉠** (1)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 (2) 그 내용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적인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다.
 - (4) 현대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까지 버리면서 무모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5) 교회의 사명은 외형적인 교파 통합으로 하나가 되자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이미 하나되어 있는 영적인 통일성을 성령 안에서 굳게 지키는 데 있다(엡 4:4-6).

6. **㉠** 스마야의 메시지는 아히야의 그것(왕상 11:30-39)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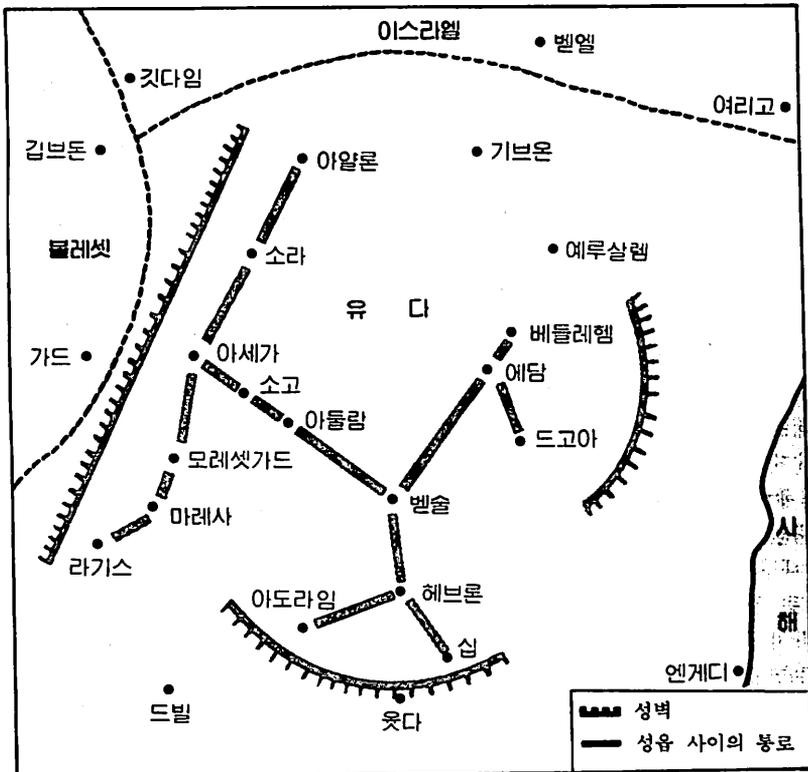
- ㉠** (1) 스마야는 유다의 선지자였고, 아히야는 에브라임의 선지자였다.
 (2)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열 지파를 주실 것을 예언하였다(왕상 10:30-39).
 (3) 스마야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함으로 아히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다(참조 10:15).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에 의해서 확증을 받는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7. **㉠** 5-1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영역에 있는 15개의 성읍을 요새화하여 유다 땅의 방어를 강화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 이 성읍들은 서쪽의 블레셋과 남쪽의 애굽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즉 이 요새들은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남쪽 애굽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되었다(12:2).
 (4) 르호보암이 이렇게 국방에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국방이 강화됨으로 유다 지방은 북쪽에서 신앙을 위해 탈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

8. **㉠** 15성읍의 위치와 용도를 말하라.

- ㉠** (1) 그 위치는 다음 지도를 참조하라.



- (2) 이들 성읍들은 유다의 동쪽(3성)·서쪽(8성)·남쪽(4성)에 위치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성을 쌓았다. 이것은 블레셋 및 애굽의 침략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경계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북방을 수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아마도 이 축성(築城)의 시기는 애굽 왕 시삭의 침입(12:2) 이전에 착수하여 약 8년 후에 완공하였던 것 같다.

9. **Q** 13-1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 A** (1) 이 부분에는 여로보암에 의해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사건은 여로보암이 등극한 직후(왕상 12:31)와 그 후에(14절의 '그 아들들'에 주의 할 것) 일어났다.
- (3)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신앙의 자유와 진실된 하나님 경배를 위한 것이었다.

10. **Q**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되는 제사장의 정신은 어떠한가? (16절)

- A** (1)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이다.
- (2) 즉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시켜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여 고향에 머물러 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 (3)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행치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과 산업을 떠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왕국으로 귀순해왔던 것이다.
- (4)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향과 산업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참조, 마 19:29; 눅 14:26; 행 20:24; 딤후 1:12).

11. **Q** 16절에 '마음을 오로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A** (1) 이 말은 '...에 마음을 두다'(KJV, set one's hearts to...)라는 뜻으로 당시 북왕국에 많은 경건한 백성들이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온 마음을 쏟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2)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동행하여 남왕국으로 내려왔다.
- (3) 이렇게 경건심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남으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은 아사 왕 때에도(5:9), 히스기야 왕 때에도(30:11,12) 나타난다.

12. **Q** 삼 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케 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A** (1) 처음 삼 년 동안은 북왕국에서 내려온 경건한 신자들이 르호보암을 도왔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위우친 바가 있어 그들과 함께 순종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나라가 강성해졌다.
- (2)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순종이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즉위 5년 때에 애굽 왕 시삭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12:1, 2).
- (3)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13. **Q** 르호보암의 가계(家系)는 어떠한가? (18-21절)

- A**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18-20절; 삼하 14:27).
- (2) 르호보암은 도표에 나타난 두 아내를 포함하여 아내 18,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였으므로 마아가의 소생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다(21절).
- (3) 이러한 르호보암 가계의 교훈에 대하여는 **Q** 14, 15를 참조하라.

14. **Q** 르호보암의 가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그가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던 것은 선민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어겼던 것을 가리킨다(참조, 신 17:17).
- (2) 이것은 르호보암이 비록 선민의 왕이었으나 결국 타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 (3)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자기 백성들을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지만(계19:16) 자신을 버리고(엡5:2) 오히려 섬기는 자 중에 계셨다(눅22:27).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므로(빌1:27)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벧전2:9).

15. **㉠**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결혼 기사를 비교할 때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 ㉠** (1) '많은 아내'를 얻은 점에서는 다같이 율법(신17:17)에 위반된다.
 (2)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처첩들은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도 다윗 가계에 속했다.
 (3) 그리하여 그는 많은 아들을 두는 축복을 얻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 외에 다른 아들을 두었다는 기사를 읽을 수 없다.

16. **㉠**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는가?(22, 23절)

- ㉠** (1) 그는 아비아람 후계자로 지목하고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을 지방의 각 성에 흩어져 살게 했다.
 (2) 그 이유는 그 아들들이 활동적인 자들이어서 후계자인 아비아람의 대적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3)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아들들을 신뢰하고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에게 성읍을 맡겼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그들은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4) 이렇게 르호보암은 통치자로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러한 통치의 결과 유다는 국력이 강하고 견고하여질 수 있었다(12:1).
 (5) 여기에서 우리들은 각자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교훈을 받게 된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6절).

제 12 장 애굽 왕 시삭의 침입과 르호보암의 말년

답략구분 1-3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입 / 4-8 백성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말씀 / 9-12 시삭의 악탈 / 13-14 르호보암의 통치 년도 / 15-16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

1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지라

2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오 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 저에게 병거가 일천 이백 승이요 마병이 육 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흡과 습과 구스 사람이 불기승수라

4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6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9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와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물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10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매

11 왕이 여호와와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 갔더라

12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들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13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사십 일 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십 칠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14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15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6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르호보암의 후기 생애를 요약해 보라.

- ㉠ (1) 본장에서는 병행 기사인 왕상 12장의 기록보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더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 (2) 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르호보암은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
- (3) 그러나 그 강성함으로 교만해진 르호보암은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로 애굽 왕 시삭으로 침입하게 하셨다(1-3절).
- (4) 이때에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과 백성이 다시 겸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4-12절).
- (5) 그러나 통치 17년 만에 죽은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결론적인 평가는 '악했다' 였다(13-16절).

(6) 인간의 모든 행사의 선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르호보암은 부분적으로 선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악했음을 본장은 밝혀 주고 있다.

2. **㉠**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1절)

- ㉠** (1)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보다는 도리어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했다.
- (2) 사실상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주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막으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약5:13).

3. **㉠** 애굽 왕 시삭은 누구인가? (2절)

- ㉠** (1) 그는 리비아 귀족 출신의 왕으로서 애굽 제 22왕조의 창건자이다(B. C. 945-924).
- (2) 그는 일찌기 솔로몬을 피하여 망명해 온 여로보암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해 주었다(왕상 11:40).
- (3) 그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을 무력으로 침공하였으며 여러 성읍들과 몇몇 요새들을 파괴시켰다.
- (4) 그가 이렇게 강력한 정복자가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대상 29:12). 왜냐하면 죄를 범한 다윗의 후손에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삭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삼하 7:14).

4. **㉠**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절)

- ㉠** (1) 시삭의 침입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던 르호보암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다(참조, 왕상 14:22).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란과 곤고가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만일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한다(겔 22:4).

5. **㉠** ‘홉과 슝과 구스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3절)

- ㉠** (1) ‘홉’은 ‘루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북아프리카 사막, 즉 애굽의 서쪽 지역에 거주하던 리비아인들이었다(창 10:13; 대상 1:11; 나 3:9).
- (2) 또한 ‘슝’은 ‘수킴’ 사람들로 애굽 동쪽 산악 지대에 사는 토굴인들이다.
- (3) 한편 ‘구스’ 사람은 셈어를 사용하던 애굽의 동남쪽 지역 에티오피아인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시삭의 군대는 애굽 주위의 3개국의 연합군을 동반한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6. **㉠** 선지자 스마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5절)

- ㉠** (1)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난 때는 시삭이 예루살렘에 육박해 오고 유다 방백들이 그 안전책을 강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였다.
- (2) 스마야는 이전에 열 지파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던(11:2)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고 하셨다.
- (4) 스마야는 시삭의 침입이 유다의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7. **㉠** 스마야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5절)

- ㉠** (1) 스마야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그에 비례하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참조, 시, 18:24).

- (2) 또한 유다의 환난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적하여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회개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을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롬6:1). 만일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요일1:9).

8. ㉠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본장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버린 것’ (1절)을 ‘여호와를 버린 것’ (5절)으로 보고 있다.
- (2) 그것을 또한 ‘여호와께 범죄한 것’ (2절)으로 말한다.
- (3) 이 사실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소홀히 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의 길로 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성경은 ‘복있는 사람은…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다(시1:1, 2).
- (5)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9. ㉠ 스마야의 메시지를 들은 방백들과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6절)

- ㉠ (1)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말은 자신들을 비천하게 여기며 낮추었다는 뜻이다(참조, 7:14).
- (2) 더구나 그들은 회개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참조, 약4:10).
- (3)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지적을 받을 때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회개해야 한다.

10. ㉠ 백성의 회개에 따라 여호와와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를 통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 (2) 그 말씀은 완전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셨으나 시삭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유다 나라를 다시금 은총으로 구원하셨다. 이것은 이미 주셨던 약속을 이행하심이었다(삼하7:14-16).
- (4) 택한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징계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히12:5-13).

11. ㉠ ‘대강 구원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7절)

- ㉠ (1) ‘대강’ (大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메아트)는 ‘잠깐’, 즉 ‘짧은 시간’, ‘곧’이란 뜻이다(참조, 슥9:8).
- (2) 그러므로 ‘대강 구원한다’는 것은 ‘얼마 동안만 구원한다’는 의미이다.

12.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기는 하되 유다로 하여금 얼마 동안 애굽 왕 시삭의 지배를 받으며 속국(屬國) 노릇을 하도록 하셨다.
- (2) 그 목적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벼운 명에인 반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데 있었다(마11:28-30).
- (3) 결국 유다 백성들은 육신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 (4)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참조, 고후12:7-10; 약5:13-18).

13. ㉠ 9-12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성전 보물을 약탈케 하는 등 징벌을 가하셨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7, 8절) 유다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합3:2).
- (4) 죄인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 비록 우리가 보물같이 아끼던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자(참조, 욥 1:21).

14. **㉠** 시삭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약탈해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9-11절)

- ㉠** (1) 하나님의 길로 행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일면 전쟁으로, 다른 일면으로는 상업에 의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충만히 채웠다.
- (2) 더구나 금방패는 솔로몬 영화(榮華)의 상징이었다(9:13-16).
- (3) 그러나 그러한 영화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르호보암 대에 이르러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참조, 약4:14).
- (4) 이 사실은 신자들이 허탄한 것을 자랑치 않도록 경고한다(약4:16).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자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빌3:3).

15. **㉠** 주께서 진노를 돌이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이다.
- (2) 르호보암은 젊은 왕으로 교만했었으나(10:14) 이렇게 겸비해졌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었다.
- (3) 여호와와 진노 앞에서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벧전5:5) 때문이다.
- (4) 영육간에 병들어 쓰러진 자가 누구인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께 기도하라.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약5:15).

16. **㉠**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이것은 종교적·정치적인 면에서 유다 나라에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 (2) 즉 유다에는 선한 사역자들과 선한 백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나라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더 선하여졌다.
- (3) 이렇게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鍊達)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히 12:11).

17. **㉠** 르호보암의 생애는 어떠하였는가? (13-16절)

- ㉠** (1)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였다. 그는 변방의 유다 성읍들보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시하여 17년을 통치했다.
- (2) 그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것은 이방인 압몬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3) 또 그는 호전적(好戰的) 이어서 여로보암과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것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었다(11:4).
- (4) 이렇게 르호보암은 한때 겸비하기도 했으나(12절) 한결갈지 못하여 악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그가 육(肉)은 강했어도 심령은 연약했기 때문이다(13:17).
- (5) 신앙 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잠4:23).

제 13 장 유다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기다

단락구분 1-3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 / 4-12 아비야가 신앙으로 전쟁 중지를 권하다 / 13-19 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다 / 20-21 유다의 강성과 이스라엘의 쇠약 / 22 아비아에 대한 기록

1 여로보암 왕 제 십 팔 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2 예루살렘에서 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3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사십 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팔십 만으로 대진한지라

4 아비야가 예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서 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들으라

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6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7 난봉과 비류가 모여 좃으므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8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9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좃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좃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니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11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

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제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13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15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17 아비아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오십만 이었더라

18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벨엘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예브론과 그 동네라

20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와 치심을 입어 죽었고

21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 넷을 취하여 아들 스물 둘과 딸 열 여섯을 낳았더라

22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라.

㉠ (1) 본장에는 르호보암의 대를 이은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전쟁에서 물리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비야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전쟁 중지를 여로보암에게 권하는 긴 발언(4-12절)이다.
- (3) 아비야가 말하는 사이에 여로보암은 작전을 개시하여 전쟁의 상황은 유다가 매우 불리해졌다. 그러나 아비야가 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패하게 하심으로 유다는 대승을 거두었다(13-19절).
- (4) 이 전쟁으로 하여금 여로보암이 쇠퇴하고 아비야는 더욱 강성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0-22절).
- (5) 본장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교훈하고있다(렘 17:7).

2. **㉠ 유다 왕 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1, 2절)**

- ㉠** (1) 그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B. C. 913)에 유다의 2대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
- (2) 그는 르호보암과 미가야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가야는 마아가라고도 불리우는데(왕상15:2), 그녀는 압살롬의 딸 '다말'(삼하 14:27)이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하여 낳은 딸이다.
- (3) 아비야가 다윗 가문의 어머니를 두었던 것은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그가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는 못하였으나 다윗 성에 장사되었음은(왕상 15:1-8) 그의 기본 신앙을 보여 준다.
- (4) 이것은 다른 유다 왕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들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렘 2:8).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신앙 성도들은 감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벧전 2:9).

3. **㉠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력은 어떠한가? (3절)**

- ㉠** (1) 쌍방은 모두 싸움에 용맹한 정예병으로 포진했는데 아비야의 군사(40만)는 여로보암의 군사(80만)의 반밖에 안 되었다.
- (2)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아비야가 승리자로 판명되었다.
- (3) 전투란 반드시 강한 자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전 9:11).
- (4) 아비야는 여호와와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전술을 믿고 나갔다(13절).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비야는 승리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는니라'(잠 21:31).

4. **㉠ 아비야의 연설(4-12절)은 어떤 내용인가?**

- ㉠** (1) 그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의 불의를 지적한다(4-7절).
- (2) 또한 현재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지적한다(8, 9절).
- (3) 그에 비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섬기고 있음을 알려 준다(10, 11절).
- (4)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것이라고 아비야는 결론을 내리며 전쟁 중지를 여로보암에게 권한다(12절).
- (5) 이것은 이전 스마야의 메시지(11:4)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5. **㉠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山) 위에 서서 연설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스마라임 산은 에브라임 산지의 벨엘 근방에 있었다. 그는 서로 대결하고 있는 맞은편 산 꼭대기에서 말한 것이다.
- (2) 위대한 장수들은 그 부하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비야의 연설은 그런 의도도 다소 띠고 있었으나, 주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

- (3) 만일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아비아의 말에 동의한다면 아비아는 조약을 맺고 평화로이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 (4) 우리도 이 같은 화해의 복음을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눅 12:3). 또한 우리의 생활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나타나 주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마 5:14).

6. **Q** '소금 언약'이란 무슨 뜻인가? (5절)

- A** (1) 이 말은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언약이라는 뜻이다(레 2:13; 민 18:19).
- (2) 아비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른 것이다.
- (3) 여호와께서는 거제를 드리는 성물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다윗 왕권은 그와 같이 제사장적 신성 불가침의 것이다.
- (4)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마 26:28)을 상징한다. 예수의 피로 속함 받은 신자에게 향한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영원하다.

7. **Q** 여로보암의 반란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가? (5-7절)

- A** (1) 여로보암은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왕상 11:30-39).
- (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왕권을 추구했다.
- (3) 그리하여 그는 소금 언약을 어기고 다윗의 집에 반기(反旗)를 들고(10:16)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 (4) 그는 반역을 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했다(삼상 24:6; 삼하 16:11, 12).
- (5) 우리가 은총에 의해서 약속을 받았다면 또한 은총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8. **Q** '난봉과 비류(匪類)'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 A** (1) '난봉'이란 '허전하고 변덕스런 사람'을 뜻한다(참조, 사 9:4; 11:3).
- (2) '비류'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불량자'란 뜻이다.
- (3) 그런 자들은 통치자의 명을 떨쳐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 줄 자를 통치자로 삼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 (4) 여로보암의 반란이 불법임을 이런 자들이 추종자요 힘이 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9. **Q**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A** (1) 이 말은 현재 전쟁을 도발하려는 여로보암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다윗 집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곧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셈이 된다.
- (3) 의인을 대적하는 자는 그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망이 전혀 없다.
- (4) 정의가 한때에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10. **Q** 여로보암 치하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 부패상은 어떠했는가? (8, 9절)

- A** (1)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8절).
- (2) 또한 그들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을 쫓아내고 뇌물을 바치는 무자격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9절).
- (3)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악상에서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다.
- (4)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여로보암이 불순종한 결과이다(왕상 11:38). 그러므로 불순종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삼상 15:22, 23).

11. **Q**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8절)

- Ⓐ (1)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킨 후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벨엘과 단에 두었다(왕상 12:26-29).
- (2) 그는 또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왕상 12:30-33).
- (3) 이것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백성들의 부패상과 흡사하다(출 32:1-6).
- (4)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출 20:4-6)에 대해 무지한 결과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죄의 유혹에 이끌린다(시 119:11). 그러므로 성도는 앞서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시 119:96).

12. ⓐ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삼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족속인 아론 자손만 될 수 있었다(출 28:41).
- (2) 그러나 여로보암은 오히려 이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구든지 원하여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오는 자마다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 (3) 이것은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은 것이었다(9절). 그런 자들은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자들이었다.
- (4) 그러나 거짓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자는 거짓 제사장이 가장 적합했다. 말씀이 중심 되지 않는 교회는 이처럼 타락한 성직자와 교회 제도를 낳기 마련이다.

13. ⓐ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유다의 종교 상태는 어떠했는가? (10, 11절)

- Ⓐ (1) 유다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또한 여호와와 규례를 따라 바른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다.
- (2) 그러한 유다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씀 중심인 것을 말한다.
- (3)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나라, 교회, 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싱싱하며 든든하다.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시 1:1-6).
- (4) 외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유다가 열세이었으나 이러한 유다의 경건한 종교 상태는 유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였다.
- (5) 우리들도 세상에서 거의 멸하게 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소성시켜 주실 것이다(시 119:87, 88).

14. ⓐ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제사장들이 전쟁 때에 나팔을 불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민 10:9)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 (2)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3) 그러므로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대적인 여로보암의 군대에게는 최대의 경고이다.
- (4)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로보암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 (5) 여로보암의 살 길은 경고의 나팔을 듣고 전쟁을 중단하여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신속히 회개해야 한다(계 2:16).

15. ⓐ 아비아와가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이었는가? (12절)

- Ⓐ (1) 그는 그의 나라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 (2) 따라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
- (3) 비록 그에게는 적은 병력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를 믿었던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滿船)의 축복을 받았다(눅 5:4-7).

16. **㉠** 아비야가 전쟁의 중지를 권했던 것은 무슨 교훈을 주는가? (12절)

- ㉠** (1) 그는 이전의 스마야 선지자처럼(11:4)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면했다.
 (2)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요 형제이므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3) 그러므로 아비야는 군대들이 대진(對陣)하여 이미 임전 태세를 갖추어도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중지하도록 권면했던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해야 한다(참조, 마 24:13; 눅 22:51).

17. **㉠** 아비야의 경고에 대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3절)

- ㉠** (1)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열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 대신에 그는 아비야가 그 기회를 이용했다. 그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모든 전쟁 관례에 어긋나게도 유다의 배후에 복병을 매복시켰다.
 (3) 여로보암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진 셈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므로(시 18:31), 그의 행위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
 (4)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눅 20:18).

18. **㉠** 전쟁의 양상은 어떠했는가? (14-17절)

- ㉠** (1) 유다 군대는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잠시 당혹과 고통에 휩쓸렸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했었다. '처회가 나를 벌 때처럼 에워쌌나이다'(시 118:10-12).
 (2)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3)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큰 공포와 경악으로 치셨고 그들은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하였다.
 (4) 그 결과 이스라엘은 50만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하여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다.
 (5) 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다(눅 10:17-20). 이것은 오늘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권세이다.

19. **㉠** 유다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14, 15, 18절)

- ㉠** (1) 그들은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환난을 당했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14절; 시 50:15).
 (2) 또한 그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믿음의 합성을 질렀다(15절; 수 6:20).
 (3) 그리고 그들은 저희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기들을 도와 주실 그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의탁하였다(18절; 시 44:6, 7).
 (4)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곧 응답되는 기도이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요일 5:4).

20. **㉠** 전쟁의 결과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 전쟁의 전사자 50만 명은 성경에 나타난 단일 전투 전사자의 최고 기록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셨는가를 보여 준다.
 (3) 동시에 그들이 물같이 흐르게 한 피는 이스라엘의 피였다는 비참한 사실을 지나칠 수 없다. 그것은 이방 대적들이 보기 원했던 선민(選民)의 비극이었다.
 (4) 하나님의 뜻은 선하나 그렇다고 인간의 범죄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움을 기억하고 더욱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롬 6:19).

제 14 장 아사의 선정 (善政) 과 세라의 침입

단락구분 1-5 아사가 우상을 피하다 / 6-7 아사의 성읍 건축 / 8 아사의 군대 / 9-11 구스 사람 세라의 내침과 아사의 기도 / 12-15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다

1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십 년을 평안하니라

2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4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 아사가 일찌기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삼십 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 팔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9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11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사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13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 말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14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교훈을 말해 보라.

㉡ (1) 본장은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다.

(2)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계속되던 전쟁이 그치고 아사 시대에 10년간 평안이 있었다. 그것은 아사가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1-5절).

(3) 또한 아사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 국방을 튼튼히했고 군사 58만을 거느렸다(6-8절).

(4) 이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침입해 왔다. 그러자 아사는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9-11절).

(5)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크게 승리케 하셨다(12-15절).

(6) 이처럼 본장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자만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큰 승리를 얻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2. ㉢ 아사가 행한 종교 개혁은 어떤 것이었는가? (1-5절)

- A** (1) 아사의 종교 개혁은 왕상 15:12-15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그는 자기 할머니(마아가)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든지 또는 자기 할머니를 위해 만든 우상이든지 간에 많은 우상을 열정적으로 파괴하였다(참조, 15:16).
 (3) 그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말씀의 부흥에 있었다(4절).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추방하는 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어떤 우상에도 미혹되지 않는다(참조, 시 119:9-11).
- 3. C '열조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4절)**
A (1)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이다.
 (2) 특히 여호와를 이방의 우상과 대조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여호와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3)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구하는 자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
- 4. C 아사 시대에 나라가 평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5-7절)**
A (1)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여호와를 구하였기 때문이다(5, 7절).
 (2) 여호와를 찾고 그를 바로 섬기면 여호와께서 친히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사 참된 평안을 주신다(시 18:1, 2).
 (3) 예수께서도 그에게 오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다(마 11:28-30; 요 14:27).
 (4)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 5. C 아사는 평안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6, 7절)**
A (1) 그는 평안의 시기를 열락의 기회로 삼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오히려 나라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2) 초대 교회 때에도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성도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행 9:31).
 (3) 이와 같이 우리도 평화시에 환난을 대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또 어려울 때를 예상해서 그에 대한 저축을 해야 한다.
- 6. C 아사가 백성에게 한 말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가? (7절)**
A (1) 아사는 유다가 적의 침공으로부터 평안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2) 이것은 아사 왕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 주는 고백이다.
 (3)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은 행동을 수반한 신앙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은 부지런히 일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던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4)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선한 일에 힘썼다(참조, 요 5:17).
- 7. C 아사의 군대는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가? (8절)**
A (1) 그의 군대는 58만이나 되었는데 이는 상비군이 아니고 국민병이나 시민병이었을 것이다.
 (2) 유대와 베냐민이 각각 따로 점호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작은 베냐민' (시 68:27)이라 불리웠던 베냐민이 거의 유다의 군병에 육박하는 군대로 28대 30의 비율까지 이르렀다.
 (3) 이 지파는 늦게서야 이토록 놀랍게 증가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자 하나로도 천 명이 되게' 하실 수 있다(사 60:22).

(4) 베나민은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번성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하여 언제나 풍성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말 3:10; 요 10:10; 눅 6:38).

8. **㉠** 아사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두 지파는 각각 어떻게 무장하고 있었는가? (8절)

- ㉠** (1) 유다는 큰 방패와 창을 잡았고 베나민은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로 무장했다.
 (2) 이렇게 무장했던 이유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적과 접근전을 벌이며 창으로 싸웠고 베나민 사람들은 멀리서 적을 맞추기 위해 활을 당기려 함이다. 또한 한편은 공격을 맡았고 한편은 방어를 맡았던 것이다.
 (3) 양쪽이 다 자기의 할 일이 있었으니 어느 쪽도 나는 '내가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전 12:21). 각기 다른 재능과 직업이 다같이 공통선을 찾았던 것이다.
 (4) 교회의 일꾼들도 이러한 관계에 있다. 그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고전 12:24-31; 골 3:14).

9. **㉠** 구스 사람 세라는 어떤 사람인가? (9절)

- ㉠** (1)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수단, 즉 애굽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2) 세라는 이집트 제 22왕조의 둘째 왕 오솔콘(Osorchon) 1세로 주석가들 대부분이 추정한다(Unger, Manetho, Thenius).

10. **㉠** 세라는 어떤 규모로 쳐들어 왔는가? (9절)

- ㉠** (1) 그는 막대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수는 무려 100만 명이었다.
 (2) 또한 병거 300승을 이끌고 왔다.
 (3) 이것은 현재 유다가 보유하고 있는 58만의 군대에 비하면 월등히 많고 강력한 군대였다.

11. **㉠** 세라의 침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 (1) 아사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이런 환난이 닥쳤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더구나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은 대군이 침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크나큰 일을 행하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3)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환난과 시험을 주신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 낙망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참조, 시 42:5; 50:15).

12. **㉠** '마레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10절)

- ㉠** (1) 헤브론과 아스돗 사이에 있는 땅으로 아사와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예루살렘 중간의 성읍을 말한다(11:8, 9).
 (2) 그곳은 엘루테로폴리스(Eleutheropolis)의 남쪽 3.2km 지점에 해당한다.
 (3) 아사가 마주 나아가 진친 스바다 골짜기는 마레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13. **㉠** 아사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자신이 약한 자에 속한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고 했다(참조, 시 146:3-5).
 (2) 특별히 그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불리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음을 고백한다.
 (3) 그러므로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전쟁이라고 했다.
 (4) 이 기도는 성전 봉헌식 때에 여섯번째의 간구 제목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었다(6:34, 35). 아사는 그때 맺어진 약속의 말씀(7:15, 16)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14. **㉠** 11절 마지막에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란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여기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쉬>는 '깨지기 쉽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쉬>

에서 유래된 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mortal being)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는다.

- (2) 그러므로 그 기도는 ‘죽을 인간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아니함을 나타내소서’라는 뜻이 된다.
- (3)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을 수 있다. 하나님보다 강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요 10:29).

15. **㉠** 아사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11절)

- ㉠** (1) 아사는 저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호소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기도하였다.
- (2) 그는 또한 하나님을 자기들의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해 그의 이름에 호소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유다를 이겼다면 하나님을 이겼다고 주장할 것임을 상기했다.
- (3)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원리와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4) 이렇게 죄인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예에 중심을 두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기본 자세이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참조, 사 41:17).

16. **㉠**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12-15절)

- ㉠** (1) 아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놀렘으로 도망가게 하셨으니 그토록 강하게 보이던 구스 군대는 검불과 같이 흩어지고 말았다.
- (3) 또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아사의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개설했다.
- (4)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17. **㉠**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여기에서 ‘그 군대’란 ‘여호와와의 군대’란 뜻이다.
- (2)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마하네)라는 말은 ‘(군부대의) 야영’(camp)이라는 뜻과 함께 상징적으로 ‘천사들’, ‘별들의 대군’이란 뜻을 갖고 있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유다와 함께 하시고 유다를 돕고 제셨기 때문에 ‘그 군대’는 ‘유다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4) 즉 12절의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다 군대를 자기 군대처럼 사용하셨고 2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군대를 합세(合勢)시키셨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그 군대’란 유다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를 다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딤후 2:3)에게는 이와 같이 항상 천사의 군대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 불릴 수 있다.

18. **㉠** 유다 군대가 그랄의 모든 성읍까지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구스 군대가 그리로 피신하려 갔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랄 성읍들은 구스 사람편에 가담하여 유다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악한 자에게 연합하는 자는 악한 자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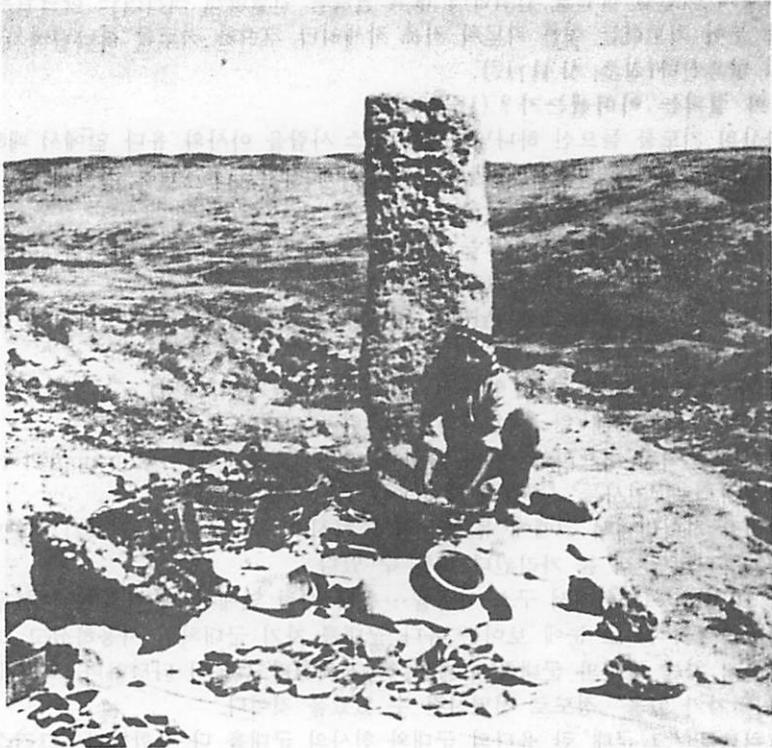
19. **㉠** 유다가 그랄 성읍들의 많은 물건을 노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 15절)

- ㉠** (1) 유다는 대적의 땅에서 무수한 가축을 가지고 왔다.

(2) 이것은 죄인의 재물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결국은 의인을 위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잠 13:22).

화보자료

주상(柱像). 아래의 사진은 텔 엘 파라(Tell-el-Phara)에서 발견된 이방의 돌기둥이다. 주상 옆의 소년은 도자기의 파편을 모으고 있다.



아사가 깨뜨린 주상(히, 마체바)은 세워져 있는 돌을 가리킨다(3절). 이 주상은 처음에는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후에는 달을 숭배하는 경우에도 세워졌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셨으나(잠조, 레 26:1)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호 10:1).

제 15 장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아사가 시행한 개혁 운동

단락구분 1-7 선지자 아사라의 예언 / 8-11 아사의 개혁 운동 / 12-15 언약을 새롭게 하다 / 16-17 마아가의 우상을 타파하다 / 18-19 물품을 성전에 드리다

1 하나님의 신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2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밋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4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았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5 그 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6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7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8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렛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예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설 앞 여호와와 단을 중수하고

9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예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

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10 아사 왕 십오년 삼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11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칠백과 양 칠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무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6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뿔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17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8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19 이 때부터 아사 왕 삼십오년 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 ㉠ 아사가 시행한 개혁 운동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해 보라.

- ㉠ (1) 구스 침략군에 대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더 무서운 적들이 나라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우상들이었다.
- (2) 그때 아사는 선지자 아사라의 예언을 통해 큰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어 우상을 파괴하는 개혁 운동을 시행했다.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 (3) 이와 같이 교회는 외부적인 환난을 이겨내고 또 내부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더욱 부흥하게 된다.(참조, 행 9:31).

2. **㉠** 아사라는 누구이며 그의 예언의 중심 요점은 무엇인가? (1-7절)

- ㉠** (1) 아사라는 오벳의 아들로 무명 선지자였다.
 (2) 그가 개선하는 아사의 군대들에게 파송된 것은 저들의 승리에 대한 찬사보다는 저희로 계속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3) 그 의무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즉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2절) 라고 아사라는 엄숙하게 예언했다.
 (4) 이것은 외적인 성공보다도 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가에 주의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번 승리했다고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3. **㉠** 2절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가?

- ㉠** (1) 본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찾으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2) 본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행위에서 출발하지만 본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는다면 결코 그분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다(참조, 사 5:6, 7; 스 1:3).
 (3)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정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롬 9:11-13; 엡 2:8, 9). 그러나 승리에 찬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얻어질 수 있다.

4. **㉠** 3-6절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2절의 교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 어느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실례로 든 부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으나 저자는 3절에서 어떤 명확한 시간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가 뚜렷한 시간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5. **㉠**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으므로 참 신도 없다고 했으며 제사장은 있으나 가르치지 않으며 국민들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3)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사와 그의 군대는 구스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6. **㉠** 곤경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4절)

- ㉠** (1) 환난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구원자들을 세우셨다.
 (2)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실증되었다.
 (3) 아무리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개와 기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참조, 출 14:13, 14; 시 50:15).

7. **㉠**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어떠했는가? (5, 6절)

- ㉠**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이 원수 저 대적에게 빈번히 압제를 당하였다. 그들은 모압인들과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열방들에게도 지독하게 고통을 당했다.

- (2) 그러므로 그때 백성들간에 평화스런 교제의 자유가 없었다(5절). 그리고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6절).
- (3) 이러한 실례는 사사 시대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시대에도(36:17-20) 있었고 초대 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파멸로 나타났다(눅 19:41-44).
- (4) 이런 사실들은 모두 우리에게 생생한 경고가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쓰라린 아픔을 맛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 아사라의 예언의 결론은 무엇인가? (7절)

- ㉠** (1) 그 결론은 아사가 세속해야 할 내부적인 개혁을 격려하는 말이었다. 즉 개혁을 하려는 아사 왕에게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 (2) 이 말은 요단 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행동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수 1:6-9).
- (3)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란 말은 아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결단 없이 성취될 수가 없다.
- (4) 또한 '상급'을 약속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보장이다.
- (5) 이것은 가장 어려운 대적인 내부의 우상을 버리는 개혁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격려이다.

9. **㉠** 아사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한 일은 무엇인가? (8절)

- ㉠** (1)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고자 하던 일을 곧 실행에 옮겼다.
- (2) 먼저 그는 가중한 물건을 자기가 통치하는 온 땅에서 제거하고 대신 성전의 현관 앞 제단을 새로이 단장시켰다.
- (3)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와 교제하는 영적 생활이 소홀히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들어서게 된다. 우리도 아사와 같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과 교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

10. **㉠**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이란 무엇인가?(8절)

- ㉠** (1) 이것은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놓은 성읍을 말한다(13:19).
- (2) 왜냐하면 아사와 북왕국과의 전쟁은 이때까지 아사의 통치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 **㉠** 9-15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라.

- ㉠** (1) 여기에는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을 모아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겠다는 선포가 언급되어 있다.
- (2) 아사 왕은 이러한 언약의 선포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할 징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 (3) 왜냐하면 제사는 언약의 한 절차였으며 거기에 사용된 희생 제물은 그 언약을 범한 자에게 내려질 징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언약을 맺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언약을 자르다' (히, 베릿) 입을 불 때에도 확증된다.
- (4) 비록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나 당시 그들은 온 국민이 비장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맹세했다.
- (5) 언약의 결과 유다 나라 사방에 평안이 있었다(15절).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이런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 11:28-30).

12. **㉠** 아사는 누구를 모았는가? (9절)

- ㉠** (1) 그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을 뿐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등 3지파에서 나와 거주하는 사람들도 소집했다.

- (2) 그 3지파 사람들은 마치 르호보암 시대와 같이(11:16) 신앙 때문에 유다 나라로 온 사람들이었다.
- (3) 특히 그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로 온 것이다.
- (4)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고 있다. 아사는 그들을 영접했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유다, 베냐민 지파와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초청했던 것이다.
- (5) 오늘날도 인종과 민족과 국가에 상관없이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참조, 요1:12, 13).

13. **㉠** 13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13절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엄한 맹세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란 잠신들을 경배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우상 숭배자나 철저한 무신론자를 가리킨다.
- (3) 이것은 저희가 만든 새 법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실행을 확실케 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이었다(신 17:2).
- (4) 만약 이 율법이 지체 없이 시행되어 왔더라면, 그토록 많은 가증한 우상들이 유다와 베냐민에서 발견될 턱이 없었다.
- (5)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징계 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과 저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의미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본문에 '죽이는 것'이 상징하는 단호한 징계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5:5).

14. **㉠** 유다 백성의 엄숙한 언약과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15절)

- ㉠** (1) 온 유다는 여호와를 찾기로 한 맹세를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 (2) 그 결과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 주셨다. 이것은 최대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창 18:14; 욥 42:2; 마 19:26; 막 14:36; 눅 1:37).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불의와 미움이 의와 사랑에 의해 정복당하고 결국에는 참된 평안이 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사 9:7).
- (4) 이렇게 단호하게 세상 줄을 끊어 버리는 것은 일시적인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참된 축복을 주신다.

15. **㉠** 아사가 마아가를 폐위시킨 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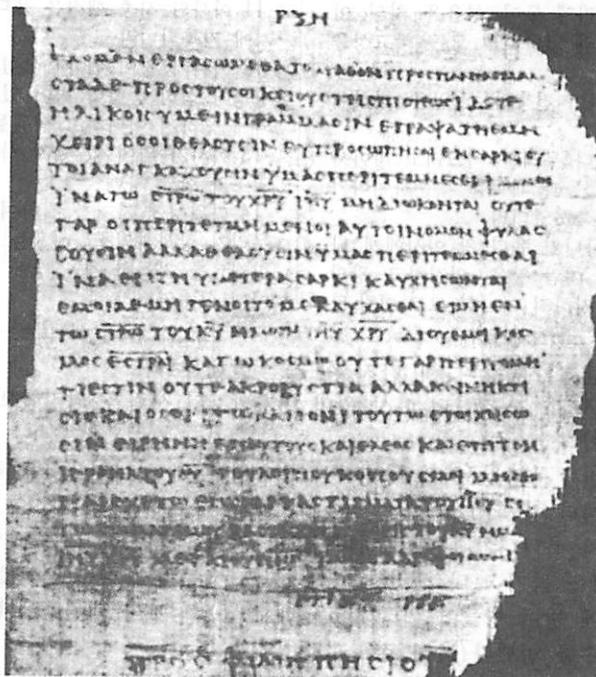
- ㉠** (1) 아사 왕은 자신의 모친이며 태후인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도 종교 개혁을 이루려는 강한 열정을 보였다.
- (2) 그녀는 아사 시대에 태후의 위에 있었다. 그러나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기에 아사는 가차없이 징계를 가했던 것이다.
- (3) 이렇게 아사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의 우상 숭배조차 묵과하고자 아니하였다. 그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옛날 레위 자손처럼 그 부모에 대해서까지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던 것이다(출 32:26-29; 신 33:9).
- (4) 기독교인에게 부모 공경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기에 인간에 관한 여섯 계명 중 첫 자리에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참다운 부모 공경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출 20:1-12; 엡 6:1).

16. **㉠** 아사의 개혁 운동 중 완전치 못했던 점은 무엇인가? (17절)

- Ⓐ (1)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였다. 비록 많은 산당이 헐리었다고는 하나(14:3, 5) 모두 다 철거된 것은 아니었다.
- (2) 성읍에 있는 산당들은 제하여졌으나 시골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또한 유대에 있는 것들은 제해졌으나, 다윗가에 환원된 이스라엘 성읍들의 산당들은 제하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 (3) 그는 이런 것들을 묵인하기는 했으나 그 마음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 개개의 어떤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데 다소의 결점이 있었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정직하였다.
- (4)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롬 8:3, 4).

화보자료

파피루스(papyrus)에 기록된 성경. 아래의 사진은 신약 가운데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의 일부가 헬라어로 기록된 A.D. 3세기의 파피루스이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는 자가 오래였다는 말은 (3절) 율법의 기록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은 있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말이다.

제 16 장 아사의 실정과 그의 죽음

단락구분 · 1-6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과 연합하여 바아사의 라마 건축을 저지하다 / 7-10 하나님의 책망과 아사의 분노 / 11-12 아사가 병들다 / 13-14 아사의 죽음과 장례식

1 아사 왕 삼십 육 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 지라

2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3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흔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교성을 쳤더니

5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6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수운하여다가 계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

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9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11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 구 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 아사가 위에 있던 지 사십 일 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14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아사 왕의 세 가지 실수를 말해 보라.

- ㉠ (1) 본장에는 선하고 정직했던 아사 왕이 여호와보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일어난 실수들이 기록되고 있다.
- (2) 아사의 첫번째 실수는 북왕국 바아사의 침입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다 (1-6절).
- (3)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한 그를 책망했다. 그러나 아사는 이 책망을 듣기 보다 선견자를 핍박함으로 두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7-10절).
- (4) 아사는 후에 발이 병들어 위급해졌을 때도 하나님보다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세번째의 실수를 범했다 (11, 12절).
- (5) 이러한 아사의 마지막 생애는 우리에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는 교훈을 준다.

2. ㉡ 아사 왕 36년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 (1) 아사 왕 36년은 필사자의 실수에 의해 아사 왕 26년을 잘못 필사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설명된다 (Zöckler).

- (2) 히브리어에서 수자를 나타내는 <카프>(20)와 <라멧>(30)은 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의 가능성이 많다.
- (3) 이러한 수자상의 착오로 인해 본장에서 아사 왕 36년에 유다를 침입한 바아사가 왕상에서는 아사 왕 26년에 사망했다는 난제를 발생하게 했던 것이다(왕상 16:8).
-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아사 26년에 유다를 침입하였고 그 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 ‘라마’는 어떤 곳인가? (1 절)

- ㉠ (1)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9km 지점 고도 792m의 구릉 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 오늘날의 엘 램(er-Ram)과 동일시된다.
- (2) 특별히 이곳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였다.
- (3) 따라서 바아사는 이 성읍을 군사 기지(軍士基地)로 건축하여 북쪽 백성으로 하여금 남유다로 귀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던 것이다.
- (4) 이것은 과거 여로보암이 시행한 가증한 종교 정책을 본딴 행위로서(왕상 12:27-29) 백성들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교적 핍박이라고 할 수 있다.

4. ㉠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할 때 아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2 절)

- ㉠ (1) 그는 멀리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했다.
- (2) 그는 벤하닷과의 동맹보다는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 (3) 그는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 (4)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눅 21:36).

5. ㉠ 아사는 어떠한 물건을 뇌물로 사용하였는가? (2 절)

- ㉠ (1) 그는 왕궁에서 뿐 아니라 성전 고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어 뇌물로 사용했다.
- (2) 아사의 세속적인 정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전이 약탈되었던 것이다.
- (3) 아사가 참된 도움을 얻으려 했다면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바치고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했을 것이다.
- (4) 아사는 아마도 평안한 기간에 성전 예배까지 태만히 하였던 것 같다. 또한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할 것도 있으나 자신의 요령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5)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이 성전을 약탈하는 최악으로까지 파생되었다.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롬 12:11).

6. ㉠ 아사가 벤하닷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절)

- ㉠ (1) 그는 은금의 뇌물을 보내며 동맹 관계 맺기를 요청하면서 바아사와의 동맹을 깨뜨리도록 권유했다. 당시 바아사는 벤하닷과 동맹을 통해 북쪽에서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다를 침입했던 것이다.
- (2)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한 뇌물 때문에 국제적인 조약을 깨뜨리는 것은 최악이다. 또 이런 최악을 짓도록 뇌물 공세를 행한 아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 (3) 이처럼 개인적인 신의를 저버리거나 국가적인 신의를 저버리도록 뇌물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치 아니하다.

7. ㉠ ‘이손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이란 각각 어느 곳을 말하는가?(4 절)

- ㉠ (1) ‘이손’은 요단 강 상류 납달리 지파에 있는 성읍으로 단의 서북쪽 13km에 위치하며 오늘날 텔 엔 디빈(Tell ed-Dibbin)과 동일시된다.

- (2) ‘단’은 이스라엘 경계의 북쪽 끝에 있는 성읍으로 본래 이름은 라이스(삿 18:29) 혹은 레센(수 19:47)이었으나 단 지파가 이곳을 점령한 후부터 단이라고 불리워졌다.
- (3) 또한 ‘아벨마임’은 단의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하며 아벨마아가와 동일지이다(대하 16:4).
- (4) 마지막으로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이란 곡식이 특별히 많이 생산되던 납달리 지방에서 곡식을 저장하던 여러 성읍들을 가리킨다.
- (5) 이상의 모든 성읍들이 벤하닷에 의해 공략을 당하자 바아사는 그쪽을 방비하기 위해 부득이 라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8. **㉠** ‘게바와 미스바’는 각각 어디인가? (6절)

- ㉠** (1)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다 중단하고 철수한 후 아사 왕은 그 건축 현장에 남아 있던 돌과 재목을 거두어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데 사용했다.
- (2) 이 두 성읍은 모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는데 ‘게바’는 북방 약 9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유다 국경의 최북단으로 간주되어졌다(슥 14:10).
- (3) 한편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방 약 7.5km의 고지에 있는 성읍으로 ‘게바’와 같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국경선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다.
- (4) 이로써 아사의 유다 왕국은 북방 방어를 견고히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람과의 동맹은 깨어졌다.

9. **㉠** 아사가 벤하닷과 동맹하여 바아사를 물러 가게 한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5-9절)

- ㉠** (1) 그 정책은 언뜻 성공한 듯이 보였다.
- (2) 왜냐하면 아사는 바아사의 라마 축성 공사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까지 탈취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5, 6절).
- (3) 그러나 선견자 하나니의 예언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음을 밝혀 주었다.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를 진멸시키지 못했고(7절) 전쟁의 소요가 시작되었다(9절).
- (4) 이렇게 인간 중심의 정책은 당시에는 잘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참조, 잠 14:12; 16:2).

10. **㉠** 선견자 하나니는 누구인가? (7절)

- ㉠** (1) 하나니는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였다(19:2; 20:34; 왕상 16:1, 7).
- (2) 그 아들 예후는 바아사 가정의 파멸을 선언하고(왕상 16:1-4) 여호사밧에게도 잘못을 징책했다(19:1-3).
- (3) 본장에서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은 아사에게 배척을 받았다(10절).
- (4) 이처럼 선지자의 책망은 회개치 않고 도리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5) 오늘날 신자들은 핍박과 배척 중에서도 말과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그때의 핍박은 오히려 축복으로 천국 소유권의 증표가 된다(마 5:10-12).

11. **㉠** 하나니는 아사에게 어떤 잘못을 책망했는가? (7절)

- ㉠** (1) 하나니는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였다.
- (2)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불신당하고 또한 당신의 권능과 인자하심보다 사람의 팔에 더 의지하는 자들을 볼 때 진노하신다(출 20:5; 신 4:24).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그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 영예를 다른 것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진노하신다.

12. **㉠**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7절)

- Ⓐ (1) 그 말은 원문에 <쉬안>으로 되어있는데 ‘기대다’, ‘기울다’란 뜻을 가진다.
 (2) 여기서 ‘기울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대상이나 사태에 마음을 쏟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만세 반석이 있으면서도 꺾어진 갈대에 기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4)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호흡하여야 하며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롬 1:17).

13. ⓐ 아사가 망령되이 행했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8, 9절)

- Ⓐ (1) ‘망령되이’의 히브리어 <싸칼>은 ‘어리석게’란 뜻이다. 이 말은 전에 사울이 여호와와 명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한 말과 같다(삼상 13:13).
 (2) 아사가 어리석게 행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전심(全心)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잠 9:10).
 (3)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여호와를 향했지만(8절)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7절)는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4) 아마도 아사는 두번째 태평 시기에(15:15, 19) 계속하여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아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다.
 (5)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평안할 때에도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살전 5:3).

14. ⓐ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9절)

- Ⓐ (1)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곧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참조, 렘 29:13; 마 6:24).
 (2)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계 1:14)로 온 땅의 구석구석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길을 속일 수 없다.
 (3) 아사의 정책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판명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아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었다.
 (4)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전 1:27).

15. ⓐ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 Ⓐ (1)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아사는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욕에 가두고 말았다. 또 그는 더욱 화를 발하며 하나니와 관련된 백성과 친지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다.
 (2)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자만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있지만 나의 모략으로 해결될 일도 있지 않겠는가? 보라 계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하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는 자만했을 것이다.
 (3) 이것은 경건 생활에 게을러서 마음이 살찌 교만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다(시 119:69, 70). 다윗은 나단의 직선적인 책망을 듣고서 겸손히 회개하였다(삼하 12:7, 13).
 (4) 여기서 아사가 회개하였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해야겠다.

16. ⓐ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는 어떤 책인가? (11절)

- Ⓐ (1)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권위 있는 문헌으로 역대기 저자에게 역사적 자료로 사

용되었던 책이다(참조, 왕상 14:19).

17. **㉠** 아사는 자기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12, 13절)

- ㉠** (1) 아사는 재위 39년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들어 크게 악화되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뢰하였다.
- (2) 말년에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경험에 의지하여 세상적인 방법만을 신봉했다.
- (3) 이러한 일은 아사의 후기 신앙 생활에 한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즉 그는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때에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다.
- (4)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병든 지 2년 후에 그는 죽고 말았다(13절).
- (5) 우리는 여기서 작고 쉬운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18. **㉠** 아사의 장례식은 어떠했는가? (14절)

- ㉠** (1) 아사는 살아 있을 때 다윗 성에 자기의 묘실을 마련해 놓았었다. 무리는 그곳에 장례했는데 성대하게 치루었고 그를 위하여 많은 향을 피워 경의를 나타냈다.
- (2) 이 화려한 장례는 그의 말기에 있었던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사를 향해 품었던 큰 존경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 (3) 비록 오점을 남긴 적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람들의 탁월한 경건성과 열심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기념될 것이다.

화보자료

군대. 아래의 사진은 비록 수는 적어도 전세계적으로 그 용맹성을 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화국의 군인들의 모습이다.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9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가장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이다(비교, 삼상 14:6).

제 17 장 여호사밧 즉위 초의 교육 사업과 국방

단락구분 1-6 여호사밧의 경건과 그에 따른 축복 / 7-9 여호사밧이 율법 교사를 각 성읍에 파송하다 / 10-11 여호와께서 열국에 두려움을 주시다 / 12-19 여호사밧이 보유한 군대의 수효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2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3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6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7 저가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나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 저희가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

르쳤더라
 10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칠천 칠백과 수염소 칠천 칠백을 드렸더라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웅성한 군사를 두었으니
 14 군사의 수효가 그 족속 대로 이르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삼십 만을 거느렸고
 15 그 다음은 장관 여호하난이니 이십 팔만을 거느렸고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이십 만을 거느렸고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이십 만을 거느렸고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십 팔만을 거느렸으니
 19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라.

- ㉠ (1) 본장에는 유다의 3대 성군(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이 즉위 초에 시행한 교육과 국방 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2)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와 도를 행하였다(1-6절).
 (3) 그는 즉위 3년 때에 방백들과 레위인을 율법 교사들로 각 성읍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다(7-9절).
 (4)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 주위 나라들로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전쟁 대신 조공을 받게 되었다(10, 11절).
 (5)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져 116만의 군대를 보유하여 국방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12-19절).
 (6)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국방력을 강하게 하셔서 평

화롭게 하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느8:10).

2. ㉠ 아사와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1절)

- ㉠ (1) 여호사밧은 유다 왕 아사의 아들로 그를 이어 유다 제 4대 왕으로 즉위했다.
 (2) 본서에서 아사는 3장(14-16장)에 걸쳐 소개되었고 여호사밧은 4장(17-20장)에 걸쳐 소개되었듯이 두 사람은 경건한 왕들이었다.
 (3) 이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육, 즉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
 (4) 자기 아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기초를 놓아 준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복되다 할 것이다. 또 자기가 놓아 준 기초 위에 훌륭한 건축을 할 아들을 둔 아버지 또한 복되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그러한 두 왕의 통치 기간을 축복으로 받은 나라도 복되다고 할 것이다.

3. ㉠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이 말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메섹에 도움을 청하던 부친 아사 왕(16:2, 3) 처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유다 자체의 국력을 강하게 했다는 뜻이다.
 (2) 여호사밧이 즉위할 당시는 활동적이고 호전적 군주였던 아합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는 지 3년이 되어(왕상 22:41) 유다에게 무서운 존재로 발전해 갔다.
 (3) 이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스라엘 왕의 비대를 견제해야 했다.
 (4) 여호사밧은 이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유혈 사건이 없이 잘 수행해 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되,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작전을 취하지 않고 단지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5) 이러한 자주 국방은 오늘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4. ㉠ 여호사밧은 자주 국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2절)

- ㉠ (1) 그는 자기 나라의 일선 지방에 위치한 성읍들에 군대를 주둔시켜 강화하였으며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역에 전보다 더 강력한 수비대를 투입하였다.
 (2) 그는 부왕 아사처럼 수리아 왕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견제하지 않았다. 오직 그는 공명正大하고 정구적인 방법으로 침략보다는 자체 방비에 주력했다.
 (3)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거기에 맞는 방책을 강구하여 국방에 임했던 것이다.
 (4)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의 부왕 아사의 실정(16:7-9)을 거울 삼아 바른 정치를 했다. 우리도 그러한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교훈을 받아 그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겠다(고전 10:6, 11).

5. ㉠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국방 사업을 했던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3절)

- ㉠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요세화된 성읍에 군대 곧 수비대를 파견하여 주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여호사밧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2) 이러한 사실은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다는 것으로도 증명된다(20:18-23).
 (3) 또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5절).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국내 민안(國泰民安)의 복을 끼칠 수 있었다.

6. ㉠ 여호사밧의 경건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3, 4절)

- ㉠ (1) 그는 삶의 자세에 있어 그의 조상 다윗이 초기에 하나님을 진실하고 흠없이 섬겼던 것처럼 행하였다.

- (2)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결코 이방 신들에게 묻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경건한 삶의 방법을 택했다.
- (3)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씀 중심의 생활 규범을 갖고 있었다.
- (4) 이러한 삶의 자세와 말씀 중심의 생활 규범은 여호사밧의 경건 생활을 보여 준다.

7. ㉠ 여호사밧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3-5절)

- ㉠ (1)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다.
- (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 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여 많은 예물들을 드림으로 여호사밧은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 (3) 이러한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릴 기업의 그림자일 따름이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요 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삼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

8. ㉠ 3절에 '바알들'이란 무슨 뜻인가?

- ㉠ (1) '바알'은 베니게와 가나안 족속의 신으로 가나안 신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풍요의 신인 '하닷'(Hadad)을 가리킨다.
- (2) 여호사밧 당시 주위 국가들은 바알을 저들의 신으로 삼아 이 민족에게는 한 바알이, 저 민족에게는 다른 바알이 있었다.
- (3) 따라서 '바알들'이란 바알 신이 여러 가지 지방 신으로 변모된 것을 나타내어 준다. 이러한 허무한 신들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밀려 들어오는 실정이었다(참조, 13:9; 왕상 11:5-8).

9. ㉠ 여호사밧은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는가? (6절)

- ㉠ (1) 그는 '전심(全心)으로 행하였다. 여기서 전심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그바 리브>는 흔히 '거만한'이라는 뜻이지만(참조, 26:16; 32:25) 여기서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경건한 길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 (2) 결국 여호사밧의 중심 소원은 여호와를 좇는 일이었다. 그의 영적인 소원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계함을 느끼게 했다. 아사 시대에 실시된 부흥 운동 중에도 우상 숭배는 유다에 계속 나타났다(15:8).
- (3) 그래서 여호사밧은 소극적인 면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하였고 적극적인 면에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 (4)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전심으로 행하는 자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약 4:4).

10. ㉠ 여호사밧은 그의 종교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시행했는가? (7-9절)

- ㉠ (1) 그는 즉위 3년(B. C. 869)에 다섯 방백을 유다 각 성에 보내어 교육 사업에 종사하게 했다(7절).
- (2) 또 그들과 함께 아홉 명의 레위인과 두 명의 제사장을 보내어 방백들과 함께 성읍을 순회하면서 여호와와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8, 9절).
- (3) 이러한 교육 사업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도를 행하는 적극적인 방편이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떠나게 한 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였다.
- (4) 이와 같이 현대의 교회나 국가들도 잘못된 것을 버리는 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교육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11. ㉠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절)

- ㉠ (1) ‘방백’이란 지방 장관들을 의미한다. 본문에는 다섯 방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즉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등이다.
 (2) 이들을 동원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당시의 사회는 종교적이었다.

12. ㉠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

- ㉠ (1) 레위인은 아홉 사람(스마야, 느다냐, 스바댜,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비아, 도니야, 도바도니아)이고 제사장은 두 사람(엘리사마, 여호람)이었다.
 (2)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직무상 선생이었다(신 33:10).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생업의 하나였다.
 (3)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칠 것을 명하셨다(마 28:19, 20).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과 생활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13. ㉠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9절)

- ㉠ (1) 그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며 가르쳤다. 여기서 여호와와의 율법책은 오경, 즉 토라(Torah)를 가리킨다(34:14; 눅 24:44).
 (2) 여호와와의 율법책은 종교법이자 민법이었다. 여호사밧은 이 엄숙한 순례에서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강조하였다.
 (3) 율법책은 순회 교사들이 사람의 제명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지침이 되었다.
 (4) 또한 율법책은 백성들의 확신을 도왔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의 말은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백성들로 믿게 했다.
 (5)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사람들로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과 마음이 쏠리게 해야 한다.

14. ㉠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는 동안 유다의 외교 관계는 어떠했는가? (10, 11절)

- ㉠ (1) 그때 유다 주위의 나라들은 여호사밧과 감히 전쟁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사밧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2) 오히려 그들은 경건한 여호사밧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즉 블레셋 중에서는 은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많은 짐승(수양 7,700마리, 수염소 7,700마리)을 바쳤다.
 (3) 즉 여호사밧이 진리를 가르치는 귀한 교육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국방을 담당하여 주셨던 것이다.
 (4) 하나님의 규례는 국방에 있어서 국가의 군사력보다 더 신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보다 더 큰 힘이 된다(참조, 왕하 6:8-13). 그래서 성군(聖君)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15. ㉠ 여호사밧은 국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 (12 - 19절)

- ㉠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침(外侵)이 없을 때 여호사밧은 자만하지 않고 교육 사업에 이어 구체적인 국방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그는 그의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군사 시설을 확충하였다. 곧 견고한 채(寨, 튼튼한 요새)와 국고성(저장성)을 건축하고 각 성에 공사를 많이 하였다(12, 13절).
 (3) 그리고 군대 양성에 힘쓴 결과 116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게 되었다(14-19절).
 (4) 그의 이러한 국방 사업은 평화를 보존하거나 유사시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더욱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들을 시행하여 나가야 한다.

16. ㉠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의 조직과 수효는 어떠한가? (14 - 19절)

- ㉠ (1) 여호사밧의 군대는 유다에 속한 3명의 장군과 베냐민에 속한 2명의 장군을 지휘관으로 한 5개 군단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2) 그 장군들의 이름과 그들이 거느린 군대의 수효는 다음과 같다.

지파	지휘관	병력	비고
유다	아드나	30만	유다 천부장 중 으뜸
	여호하난	28만	장관(the commander)
	아마시아	20만	시그리의 아들,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
베냐민	엘리아다	20만	큰 용사,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여호사밧	18만	싸움을 예비한 자

(3) 이렇게 족속을 따라 적절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된 것은 오늘날 교회 조직의 한 원리가 되기도 한다. 우주적 단일 교회는(엡 1:23) 신학 사조에 따라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교단은 노회로, 노회는 개교회로 조직된다. 또 개교회도 각 지회(支會)로 구분되되 모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한 교회로 유기적 통일성을 지닌다.

17. ㉠ 유다의 사령관 아마시아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16절)

- ㉠ (1) '즐거이 드렸다'는 말은 (군인으로) '지원하다', (자발적으로) '바치다'란 뜻으로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하대라고 번역될 수 있다(참조, 출 25:2; 대상 29:14).
 (2) 따라서 아마시아는 자기의 영예나 권세나 이득을 위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으로 맘미암아 조국을 위해 일할 사명을 느꼈기 때문에 유다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던 것이다.
 (3) 그 당시에는 장군들이 자신들의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상례였다(대상 26:27). 그러나 이 신앙의 용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 바침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고후 12:14).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유물을 드려야 한다(고후 8:5).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딤후 2:3).

18. ㉠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떤 성격을 지닌 군대인가? (19절)

- ㉠ (1) 여호사밧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라 일종의 민병대였다.
 (2) 그 군대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었다. 각 병사는 자기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종종 점호를 받고 출두하였고, 훈련을 받았으며,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국가의 소집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3) 평시에 다섯 명의 사령관들은 궁정 관리로서 또는 국정의 자문관, 장관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시종하였다.
 (4) 이러한 유다의 병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신약 신자들(딤후 2:3)의 생활을 상징한다. 신자들은 주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자기의 모든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민병대인 것이다.

19. ㉠ 여호사밧의 군대의 수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여호사밧의 116만 대군(유다 78만, 베냐민 38만)은 두 지파의 좁은 분깃으로 볼 때 너무 막대한 수자였다. 선왕(先王) 아사의 58만(14:8)이나 아비아의 40만(13:3)을 능가한다.

- (2) 그 수자는 특별히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축복하심으로 여호사밧의 사정이 크게 융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 (3) 이때 예루살렘 도성이 매우 확장되어 이 군대들을 포용할 만하였을 것이다. 또한 아사 때에 북왕국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15:19) 백성의 수효가 매우 증가하였다.
- (4) 결국 여호사밧 군대의 막대한 수자는 일찌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리라는 약속(창 22:17)이 성취된 결과이다.
- (5)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은 그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따라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욥 8:7). 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사 60:22).

화보자료

활 쏘는 군인들 . 아래의 사진은 앓수르의 궁수(弓手)를 묘사한 부조(浮彫)이다.



궁수들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 엘리아가 지휘했는데 20만의 대병력이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휘하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13-19절). 이처럼 여호사밧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이었다(3-6, 10절).

제 18 장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다

단락구분 1-3 여호사밧이 아합의 동맹 권유를 받다 / 4-11 두 사람이 라못 전투에 대하여 선지자 400인에게 묻다 / 12-22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 / 23-27 미가야가 핍박받다 / 28-34 길르앗 라못 전투와 아합의 전사

1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2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4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5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은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6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8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0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쪼러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1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12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13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4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15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16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가

18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쪼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쪼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쪼이겠고 또 이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2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

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24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꿀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25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운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6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늙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27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

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들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30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1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2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3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치적을 말해 보라.

- ㉠ (1) 본장은 왕상 22:2-35과 문자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은 아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서는 여호사밧에게 맞추고 있다.
 (2) 여호사밧은 북국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는 실수를 했다(1-27절).
 (3) 그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오고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다(28-34절).
 (4)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은 악한 자와 친밀했다는 사실은 그의 치적 가운데 일대 오점이다.
 (5)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성도의 친구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받게 된다.

2. ㉠ 본장 1절은 여호사밧의 실정(失政)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는가?

- ㉠ (1) 1절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풍족히 누렸다는 사실을 17:5에 이어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이 아합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서 다 지녔으므로, 자기 아들을 평민의 딸에게 결혼시킨다는 것은 명예의 손상이라고 생각하였다.
 (3) 왕의 딸이어야 하되 이방인이 아닌 자를(신 7:3) 염두에 둔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케 했던 것이다(21:6).
 (4) 이 혼인 정략은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정으로 유다 왕국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 넣기까지 하였다(22:10-12).
 (5) 이런 엄청난 비극이 여호사밧이 극한 부귀와 영광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자만심에서 비롯되었음은 경악할 사실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고 하신 말씀은 모든 경우의 어떤 사람에게든지 적용되는 진리이다.

3. ㉠ '두어 해 후'란 언제를 말하는가? (2절)

- ㉠ (1)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라와 결혼한 지 2,3년 후라는 말이다. 이 해는 아합 통치 22년째 되는 해이고 여호사밧 20년 때였다(B. C. 853).

- (2) 이때의 여호사밧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굉장히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3)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군사적인 동맹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4) 여호사밧은 본장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것은 아합과의 연혼(連婚)이 가져올 불길한 결과의 전조(前兆)였다. 또한 악인과의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4. **Q**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인가? (2절)

- A** (1)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에게 패했을 때 이전에 자기의 부친이 빼앗은 도시들을 모두 다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이 있었다(왕상 20:34).
 (2) 그 후 아람이 그 조약과 관련된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라못은 요단 동편 야베스 동북편에 있는 여섯 도피성 중의 하나이다(신 4:43).
 (3) 그래서 아합은 아람과 전쟁할 것을 생각하고 여호사밧에게 연합할 것을 권한 것이다(왕상 22:1-4).

5. **Q**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아합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3절)

- A** (1)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승락했다.
 (2) 그는 아합을 매우 친밀하게 여기는 표현으로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3) 이것은 여호사밧의 그릇된 연합 사상을 나타낸 말이다. 물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독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따라 나가서는 안 될 전쟁터에 나가게 했던 것이다.
 (4) 우리가 정통적이 아닌 자유주의 교파에 대해 포용성을 가지고 화합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그들의 비진리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6. **Q** 아합이 베푸는 잔치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3절)

- A** (1) 아합이 여호사밧을 위하여 풍성하게 베푸는 잔치는 단지 그를 감언이설로 피어 길르앗 라못을 토벌하는 일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 이렇게 악인이 베푸는 호의는 하나의 올무가 된다.
 (3) 그러한 아합에게 여호사밧은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고 친절한 대답을 했다. 악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때로 치명적인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7. **Q**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4절)

- A** (1) 그는 '청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라고 말했다.
 (2) 그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선지자를 불러 물어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3) 이것은 아합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비록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투에 나갔지만 그런 신앙 자세를 보신 하나님은 전쟁터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다(31절).

8. **Q** '선지자 사백 인'은 어떤 사람인가? (5절)

- A** (1)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400인'은 바알 선지자는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와 타협한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
 (2) 그 이유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미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 산의 대결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왕상 18:22, 40).
 (3)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00명을 남겨 두셨다(왕상 19:18).
 (4)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비록 우상주의와 타협한 자들이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9. **Q** 그 사백 선지자들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5절)

- A** (1)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라고 했다.
 (2) 그들은 후에 미가야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치 못했던 것을 볼 때 (23절)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었다.

10. **Q**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던 아합에게서 무슨 교훈을 받는가? (5절)

- A** (1) 아합은 바른 예언을 했던 미가야는 미워하고 아침을 하며 비위를 맞춰 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다.
 (2) 이렇게 아침하는 무리에게 둘러싸이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는 불행하다. 이 아침하는 자들은 아부하는 예언자로서 아합에게 평화를 외치고 오직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일만 예언했다. 결국 아합은 속아 넘어가고 파멸을 당하였다.
 (3) 우리에게 가장 기분 좋게 들리는 충고라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4) 오늘날 주위의 친구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솔직한 책망을 할 자유를 주고 또 그것을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11. **Q** 6절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신앙은 어떠한가?

- A** (1) 여호사밧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고 아합에게 질문했다.
 (2) 여호사밧은 아합이 모은 400인 선지자의 말, 즉 아람과 전쟁하라는 말로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요구했던 것이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다.
 (4) 여호사밧의 신앙이 거기까지는 나아갔지만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결국 전투에 참여했다(28절).
 (5)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갈급하듯 그 말씀에 반응하는 데에도 갈급해야 한다.

12. **Q** 7절에 나타난 아합의 말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 주는가?

- A** (1)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아침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며 나쁜 일만을 예언하므로 그를 미워했다.
 (2) 아합은 미가야의 참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아합의 사람됨을 보여 준다. 아합은 바른 말하는 참 선지자를 미워하는 악한 성품이 있었고(참조, 왕상 18:17; 21:20) 회개하기를 싫어했던 완악한 자였다.
 (3)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여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시 7:12).

13. **Q** 미가야는 어떤 사람인가? (7절)

- A** (1) 그는 이물라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
 (2)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로 그의 사람됨을 적절히 나타낸다.
 (3) 전에 엘리야(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증거했듯이(왕상 18:22),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둘러싸여 홀로 투쟁해야 하는 고독한 선지자였다.
 (4) 그러나 그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려 했다(13절).
 (5) 오늘날도 외치는 자는 많아도 생명수는 말라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자들은 정직해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다(시 3:6).

14. **Q**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는 미가야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 Ⓐ (1) 400 선지자들이 모두 길(吉)하게 예언하니 미가야도 다르게 예언치 말고 그들처럼 길하게 예언해 주기를 부탁했다.
- (2) 이러한 관원의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당시 부패한 종교상을 보여 준다. 그 관원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보려고 하는 영적으로 지극히 무지한 인간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다.
- (3)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들려 온다. ‘다수의 의견’과 ‘낙관적 견해’가 편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5. ⓐ 사자의 말에 대한 미가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13절)

- Ⓐ (1) 미가야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대답했다.
- (2) 그는 결코 진실을 왜곡해서 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말만을 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 (3)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관원에게 미가야는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그렇기에 예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한 근거로 전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 (4)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설교자들은 예수의 이름과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요 16:13, 14).

16. ⓐ 14절에 나타난 미가야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 Ⓐ (1) 14절에 아합이 전쟁 참여의 여부를 물을 때 미가야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라고 했다.
- (2) 여기서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은 예언을 한다.
- (3) 그러나 그 속에는 아합을 향한 조롱이 다분히 섞여 있었다.
- (4) 사실 아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항상 아합의 처사가 불의하다고 했으며 그에게 흉한 예언만 했기 때문이다.
- (5) 그런데 여기서 아합의 의도는 올바르고 의로운 말만을 하는 미가야에게서 다른 선지자와 같은 예언이 나올 경우 여호사밧이 전쟁론(戰爭論)을 따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 ⓐ 미가야가 밝힌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16절)

- Ⓐ (1) 미가야는 그가 본 하나님의 계시를 16절에서 밝혔다.
- (2) 즉 이스라엘 군대는 아합이 전사한 뒤 전의(戰意)를 상실하고 모두가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며, 지도자가 없으니 자연히 전쟁에는 관심이 없이 집을 찾아가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 (3) 이 예언은 그대로 적용되어 아합은 죽고(34절; 왕상 22:35) 이스라엘은 패퇴하여 흩어지고 말았다(왕상 22:36).
-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마 5:18).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장차 임할 두려운 심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난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시 46:1; 눅 11:28; 21:36).

18. ⓐ 미가야가 재차 밝힌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18-22절)

- Ⓐ (1) 미가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다.
- (2) 그 내용인즉 여호와께서 아합을 누가 피어 죽게 하겠느냐고 하늘의 만군에게 물으셨을 때 한 영(靈)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했다는 것이다(18-21절).
- (3) 여기에서 ‘하늘의 만군’은 천사를 가리키며 ‘한 영’ 곧 ‘거짓말하는 영’은 사단을 가리킨다. ‘보좌’란 통치하시며 관할하시는 자리를 말한다. 이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함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거짓말 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처벌하시는 일에 있어서 수행자에 불과한 것이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 사단의 권세를 생각하게 된다(요 8:44; 엡 2:3). 미가야의 예언은 확실한 근거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경고이었건만 아합은 불순종하고 말았다.

19.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에게 어떤 일이 뒤따라 왔는가? (23-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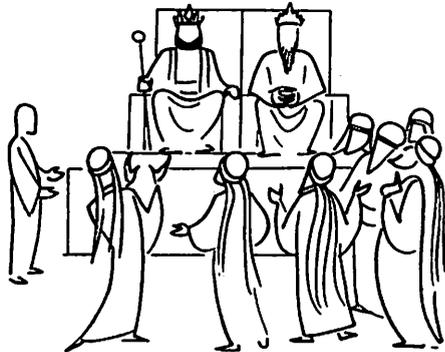
- ㉠** (1) 그나아나의 아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구타를 당했다(23절). 그리고 아합의 명에 의해 투옥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다(25, 26절).
- (2) 그러나 미가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장래 심판을 예언하고(24, 27절) 백성들에게 공포했다(27절).
- (3) 이것은 참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는 일시적 고난과 수치보다는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참조, 사 50:6).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으므로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다.

20. **㉠** 길르앗 라못의 전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8-34절)

- ㉠** (1)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아람 왕과 전쟁을 하였다.
- (2) 이미 아람 왕이 아합을 죽이도록 어명을 내렸다. 비록 아합이 평복으로 변장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시선은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 없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던 것이다(시 7:12).
- (3)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났다(31절). 그는 아합으로 오인(誤認)받아 죽을 확율이 절대적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매 아무도 해할 수 없었다(참조, 시 121:5-8).
- (4) 아합과 여호사밧은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19, 27절) 그의 공의를 나타내고 여호사밧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이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8절).



제 19 장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개혁하다

단락구분 1-3 여호사밧의 귀국과 예후의 책망 / 4 여호사밧의 민간 순행(民間巡行) / 5-7 유다 전국에 재판관을 세우다 / 8-11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우다

1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2 하나니의 아들 선전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5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6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 하는 마음

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8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10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립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나 너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11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라도 하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라.

- ㉠ (1) 전장에서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는 실수를 했던 여호사밧이 본장에서 선전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1-3절).
- (2) 그는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다에서 민간을 순행하면서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한 정치를 했다(4절).
- (3) 그리고 그는 재판 제도를 개혁했다. 먼저 유다 전국 각 성에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게 했다(5, 7절).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세운 재판관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나누어 성실한 마음으로 재판을 했다(8-11절).
- (4) 이렇게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확립한 것은 이전에 시행한 교육 사업(17:7-9)에 연속된 개혁 운동이었다. 그는 예후의 책망을 듣고 심기 일전하여 다시 여호와를 찾는 일(3절)에 힘썼던 것이다.
- (5) 우리들도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눅 3:7-9).

2. ㉡ 1-3 절의 내용을 말하라.

- ㉡ (1)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했던 일에 대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다.
- (2) 선전자 예후는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간 까닭에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임할 것이라 경고했다.

- (3) 그러나 한편으로 여호사밧의 선한 일, 즉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을 일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 적절한 것이어서 여호사밧을 깨우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참조, 딤후 3:16, 17).
- (5)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선견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 우리는 이 자비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겸손히 귀기울여 들어 자기 생활에 적용해야 하겠다.

3. **㉠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절)**

- ㉠** (1)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온 것은 그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스스로 악의 꾀임에 빠져 죽게 하셨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에 섰던 것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 (3)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늘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성도는 세움을 받는다(잠 24:16).
 - (4)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우리가 한번 넘어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일어남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소생시키신 하나의 기적이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4. **㉠ 선견자 예후는 어떤 사람인가? (2절)**

- ㉠** (1) 그는 전에 유다 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투옥되었던 선견자 하나니(16:7-10)의 아들이다.
- (2) 예후는 담대한 선지자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3대 왕 바아사를 책망한 적이 있었다(왕상 16:1-4).
 - (3) 이제 그는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동맹한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예후는 남국과 북국에서 모두 예언 활동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국경을 넘어서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5. **㉠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책망했는가? (2절)**

- ㉠** (1) 예후는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왔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였다.
- (2) 여기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란 명백히 아합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후는 아합을 도와 준 여호사밧의 행위를(18:1-34; 왕상 22:1-36) 정죄하고 엄중히 문책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어서 예후는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참조, 20:1).
 - (4) 오늘날 성도들이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는 것도 전쟁이다(고후 6:14-16).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엡 5:6, 7).

6. **㉠ 예후는 또한 여호사밧을 어떻게 격려했는가? (3절)**

- ㉠** (1) 예후는 비록 여호사밧이 아합을 돕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격려했다.
- (2)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이란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신앙을 가리킨다(17:6).
 - (3) 과연 선견자 예후의 예언대로 암몬과 모압의 침략을 받아 유다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유다를 구원하셨다(20: 15, 22-24, 29).

(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합3: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참조, 눅3:8; 엡5:9; 요일1:9, 10).

7. **㉠ 여호사밧은 선견자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4절)**

- ㉠** (1)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유다 전역을 순행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 (2) 이제 그는 다시 아합을 방문하는 것같이 위험한 국외 여행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국내의 일에 전념하였다.
- (3) 이것은 여호사밧이 선견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 복종하였고 즉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행동으로 옮겼음을 보여 준다(참조, 잠9:8, 9).
- (4)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아사)가 선지자에게 취하였던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16:7-10).

8. **㉠ 여호사밧이 민간에 순행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쓴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것이다.
- (2) 이것은 여호사밧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기에’ 힘쓴 것을 의미한다.
- (3)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한 것을 복구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9. **㉠ 여호사밧이 재판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5절)**

- ㉠** (1) 여호사밧은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친 일이 있으며 그 일은 잘 행해졌었다(17:7-9).
- (2)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은 그들 가운데 재판관들을 세워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행악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알았다. 이 일은 교육 사업에 뒤이어 시행되어야 했던 중요한 일이었다.
- (3) 여호사밧은 예후의 격려를 힘입어 전에 미처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개혁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된 것이다.
- (4) 오늘날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종교적인 진리를 분별하여 주는 재판 제도가 약화된 감이 있다. 교육의 연장이라는 선한 목적과 동기에서 상담, 권면, 근신 등을 통해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시켜 줌이 필요하다.

10. **㉠ 여호사밧이 지방 재판관들에게 ‘삼가 행하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6, 7절)**

- ㉠** (1) 여호사밧은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7절)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 (2) 이러한 ‘삼가 행하라’는 거듭된 부탁은 매우 주의깊고 신중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 (3) 그 이유는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공평치 못하게 재판하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 (4) 이것은 오늘날 모든 재판관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만일 사람에게 치우쳐서 거짓된 판결을 내리는 자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시7:11; 딤후4:8)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1. **㉠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7절)**

- ㉠** (1)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偏僻)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고 하였다.

- (2) 그러므로 인간 재판관도 불의함 대신 옳고 바르게, 편벽됨 대신 공평하게, 뇌물 대신 청렴 결백하게 재판해야 한다.
- (3) 그와 같이 올바르게 공평하게 청렴 결백하게 재판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행 10:42).
- (4)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참된 재판관이 될 특권이 있으며 아울러 두려운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5) 또한 이러한 재판의 원리는 신자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주신 교훈이기도 하다.

12. **㉠ 예루살렘에 설립된 법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8절)**

- ㉠** (1) 예루살렘 법정은 고등 재판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재판관도 특별히 선별(選別)하여 세웠고 재판 업무도 세분(細分)하였다.
- (2) 재판관에는 원래부터 재판장 자격이 주어져 있던 레위 제사장(신 17:8, 9) 외에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 (3) 족장이란 ‘가장 중의 우두머리’(chief of fathers)란 뜻으로 재판에 익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을 가리킨다.
- (4) 재판 업무는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 즉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 (5) 이러한 것들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13. **㉠ 예루살렘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명한 것은 무엇인가? (9절)**

- ㉠** (1)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忠義)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부탁했다.
- (2) 여기서 충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한결같음’, ‘진리’, ‘성실’ 등을 뜻한다(참조, 출 17:2; 사 33:6).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란 말도 이 말과 같은 어원인 <아만>에서 유래되었다(사 65: 15; 고후 1:20).
- (3) 또한 성심의 히브리어 <레벳 쇠뿔>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 즉 완전한 마음(perfect heart)를 의미하는 말이다.
- (4) 이상의 세 가지, 즉 경외, 충의, 성심은 올바른 재판을 할 때 필수적인 3대 원리이다.
- (5) 즉 재판관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재판석에 앉아야 하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되 사람의 뇌물이나 아침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 **㉠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8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0절)**

- ㉠** (1) 첫째는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문제이다. 이것은 형제간의 불화로 서로 피를 흘리는 의견 대립의 문제, 즉 피살자와 피의 보복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 (2)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는 헤브론을 제외한 도피성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여 있어서 살인범에 대한 재판은 예루살렘 법정에서 하도록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둘째는 하급 백성들이 어떤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을 때에도 해결해 주어야 했다.
- (4)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것과 구별되어 혹은 종교적인 것에 입각하여 다루어졌다.
- (5) 이리하여 모든 문제를 선히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

15. **㉠ 예루살렘 법정에 두 명의 재판장은 누구 누구인가? (11절)**

- ㉠** (1) 대제사장 아마랴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이다.
- (2) 대제사장 아마라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 즉 종교적인 것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재판관들을 명령하고 또 그들의 대변자가 되기도 했다.

- (3) 스바다는 국가 사무의 수석 처리자로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즉 행정적인 일을 주관했다.
- (4) 이처럼 그들은 지체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영에서 나온 것이었고, 한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전 12:4-7, 12, 13).
- (5)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은사를 받은대로 또한 일군이 되어야 한다(벧전 4:10). 하나님의 청지기 된 제사장이나 장관, 서기관이나 정치가, 학자나 사업가 등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

선견자(先見者)와 선지자(先知者).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삼상 9:9)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별개의 사역을 하는 자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었다. 성경에는 이들을 일컫는 여러 개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견자'(seer)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호제>와 <로에>가 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호제>라는 말이 '선견자'(삼하 24:11; 왕하 17:13; 대상 2:9; 암 7:12)와 '살피는 자'(사 47:13)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로에>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차례 나오는데 '선견자'로 번역되어 있다(삼상 9:9). 둘째, '선지자'(prophet)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나비>, <나타프>, <느비아>가 있다. 이 중 <느비아>는 여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여성 명사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선지자'(출 15:20; 삿 4:4; 왕하 22:14; 느 6:14)로 번역되어 있다. <나타프>라는 단어는 미 2:1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나비>라는 단어와 의미상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한편 <나비>라는 단어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가 창 20:7; 민 11:29; 신 13:1; 왕상 1:34; 렘 28:1 등에서는 '선지자'로, 출 7:1에서는 '대언자'로, 그리고 겔 13:2에서는 '예언하는 자'로 번역되었다. 이상의 예언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 직분이 세습되지 않았으며 대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하였다(참조, 렘 1:4-19; 은 1:1, 2). 이들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하거나 예언하는 것에 주력하였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뜻을 좇아 살도록 사람들을 계도(啓導)하는 일에 주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예언 활동도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계도적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참조, 렘 4:1-22).

제 20 장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입을 기도로 물리치다

단락구분 1-4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입을 당하여 금식을 선포하다 / 5-13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 / 14-19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예언 / 20-23 침입자들의 지멸 / 24-28 전쟁의 노획물과 하나님께 드린 진송 / 29-30 나라가 태평하여지다 / 31-34 여호사밧의 행적 / 35-37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다

1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은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 흑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5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서 서서

6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7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8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9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은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칠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떨하지 아니하였거늘

11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

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4 여호와와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맛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에서 만나려니와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19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하고

21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

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24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 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26 제 사 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27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28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 전에 나아가니라

29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30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31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삼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이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32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들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3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34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35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 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던라

36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시온계뱃에서 배를 지었더니

37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교훈을 설명해 보라.

- ㉠ (1) 전장(前章)에는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를 개혁하고 재판 제도를 확립하여 그것을 통하여 종교를 바로잡는 일을 잘 수행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 (2) 이렇게 선한 정치를 하였다면 나라가 평온해야 할텐데 본장에는 반대로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침입함으로 유다 나라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그러나 이때에도 여호사밧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유다 나라는 태평시대를 맞이했다(29, 30절).
- (4) 이처럼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운 환난을 당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려는 것이다(시 50:15).

2. ㉠ 어떤 무리들이 유다 나라에 침입해 왔는가? (1, 2절)

- ㉠ (1) 모압과 암몬 군대가 마온 사람과 함께 합세하여 쳐들어왔다(1절). 이 침입은 116만 대군을 보유한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만큼 매우 큰 무리였다(2, 12, 15, 25절).
- (2) 여기서 '마온 사람'이란 마온 성의 거주민들을 가리킨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아라비아의 페트레아에 거주했던 것 같다. 마온 사람은 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웃시야에 의해 정복당하게 된다(26:7).
- (3) 이들은 전에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였으나(17:10) 아마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밀하게 지내자 그의 품위를 낮게 평가하고 급기야는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성도가 경건 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공격해 온다.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이다(참조, 시 18:1-3).

3. **㉠** ‘바다 저편 아람에서’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바다 저편은 사해 건너편을 가리키고 아람은 가나안 동북편에 떨어진 지방을 말한다.
 (2) 여기 ‘아람에서’란 <므아람>의 번역인데 시리아 역본은 <므에돔>이라 읽으므로 ‘에돔에서’ 혹은 ‘이두매에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4. **㉠** ‘하사손다말’이란 어디인가? (2절)

- ㉠** (1) 사해 서해안 중간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창 14:7).
 (2) 이 도시는 동쪽 리산 반도와 서해안의 반대 지점 사이에 있고 엔게디 골짜기에서 가까운 곳이다(수 15:62; 아 1:14).
 (3) 지금 사해 서해안 중앙에 위치한 아인지디에 해당하는 곳이다.
 (4) 이 사실은 침략자들이 사해 남단 근방으로 진입해 온 것을 밝혀 준다.

5. **㉠** 그들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3절)

- ㉠** (1) 여호사밧은 어느새 그들이 자기 영토에 진입해 들어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찾아 간구했으며 백성에게는 금식령을 내렸다.
 (2) 이때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 중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이다’ (19:2)란 말을 상기(想起)했을 것이다.
 (3) 말씀을 존중했던 그는 영적 감각이 매우 민감했다. 그는 아사처럼 인간적인 수완을 생각지 않고(16:2) 어떤 일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신속히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4)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에 대해 민감하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 22:46).

6. **㉠** 여호사밧이 내린 금식령(禁食令)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여호사밧이 금식령을 공포했던 것은 참회와 기도의 날을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여호와와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 이런 비상 시국에 육신의 원기 회복을 금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징표요 앞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근신하겠다는 표시이다.
 (3)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은 비록 최악이 전에는 우리에게 맛있는 빵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7. **㉠** 여호사밧의 금식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4절)

- ㉠** (1) 그들은 쾌히 유다 성읍으로부터 나와 성전 뜰에 모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까지 동원되었다(13절).
 (2) 당시의 상황은 장정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위협에 처해 있으므로 가족들도 데리고 와 여호와께 간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상황이 유다 전국민에게 관계된 특별한 비상 시국이었음을 보여 준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깨달아 꼭 필요한 때에 금식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3)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의 명령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 백성들이 순종하게 된다.

8. **㉠** 여호사밧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는가? (5-13절)

- ㉠** (1) 그는 성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했다(5절).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까지 유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13절).
 (2) ‘성전 새 뜰’은 4:9의 큰 뜰과 같은 곳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전 새 뜰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7:15)을 기억함이다.

- (3) 회중 앞에 서서 기도했고 기도를 마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들 모두를 위해 중보적으로 기도했음을 의미한다.
- (4) 이렇게 여호사밧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참조, 요 17:1-26).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 성도들이 취할 기도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 (5)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9. **㉠**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6-12절)

- ㉠** (1) 여호사밧은 먼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6절).
- (2)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영히 주셨다는 언약 관계를 상기하고 또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 주신 약속(6:28-30)을 기억하며 여호사밧은 호소한다(7-9절).
- (3) 이어서 기도의 본론으로서 침입자들의 배은 망덕과 부당성을 호소한다(10, 11절).
- (4)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자기들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시 7:11)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12절).
- (5)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눅 18:7).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10. **㉠**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부르고 있는가? (6, 7절)

- ㉠** (1)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다(6절). 여기서 여호사밧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가 민족을 위한 중보적 자세로 기도함을 나타내어 준다.
- (2) 또한 여호사밧은 '하늘에서 하나님임'을 고백했다(6절). 즉 땅에 있는 피조물의 우상과는 다른 창조주이심을 고백한 것이다. 그는 지역신이 아닌 온 우주의 통치자이다. 그렇기에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 (3)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고백했다(6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 여기서도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의미한다.
- (4)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7절). 6절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면 7절은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 (5) 이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

11. **㉠** '주의 벼'이란 무슨 의미인가? (7절)

- ㉠** (1) 본문에 쓰인 '벼' (히, 아하브)이란 말은 '사랑스런', '사랑받는 애인'으로서의 친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라고 풀이될 수 있다.
- (2)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의 벼'이라고 칭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 (3)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도 전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참조, 사 41:8, 9; 엡 2:4).
- (4) 예수께서도 사랑하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셨다(요 15:12-15).

12. **㉠**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성소를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나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8절).
- (2) 성전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환난당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9절).

(3)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5절). 여호사밧은 성전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6:28-31)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다.

(4)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참 성전되신 예수님(계 21:22)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시행하신다고 하셨다(요 14:13, 14).

13. **㉠**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이스라엘 침략이 부당(不當)한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1)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당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진멸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해하지 않았었다(신 2:8, 9).

(2)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니 이는 참으로 부당한 배은 망덕의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3) 성도들도 때로는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다. 그때 성도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어야 한다(롬 12:19, 20).

14. **㉠**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침입자들의 징벌을 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12절)

㉠ (1)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침입자들의 부당한 침략은 하나님의 징벌 외에는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그 침입자들은 큰 무리임에 비해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했다.

(3) 이 기도는 유다 군대가 무력했다는 사실보다 여호사밧이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 자세를 나타낸다. 그는 실로 도움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았던 것이다(시 146:3-5).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자의 모습이다.

15. **㉠**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4-19절)

㉠ (1) 여호와와 신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2) 그 응답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7절)는 놀라운 내용이였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3)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

16. **㉠** 야하시엘의 제보는 어떠한가? (14절)

㉠ (1) 야하시엘의 제보는 스가라-브나야-여이엘-맛다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5대조인 맛다나는 아삼의 자손이다.

(2) 이처럼 야하시엘의 제보가 그의 5대조까지 언급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혈통 자체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의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저자는 야하시엘이 근거가 없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임을 보여 준다.

17. **㉠**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1) 이 말은 당시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결국 모압·암몬 족속 대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유다 군대가 싸울 필요가 없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친히 침략군들을 대항하여 싸우실 것을 의미한다.

(3)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존을 분명히 나타내어 주는 표현이다.

(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며 의지적으로 역사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18. **㉠**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8, 19절)

- ㉠** (1)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믿음과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2)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18절).
 (3) 또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19절). 적극적인 믿음을 지닌 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4) 참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시 106:12). 우리의 생활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

19. **㉠** 20-30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이 드고아 들로 진군할 때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격려하면서 그것이 험통한 길이 될 것을 확신했다(20절).
 (3) 또한 성별한 성가대에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다(21절).
 (4) 그때 여호와께서는 친히 적군들을 혼란케 하사 자기들끼리 치고 받게 하심으로 완전 전멸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22, 23절).
 (5) 이리하여 유다 군대는 적군이 소유했던 많은 노획물을 사흘 동안에 거두었고 제 4일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루살렘으로 개설했다(24-30절).
 (6)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셨듯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참조, 출 14:13-31).
 (7)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20. **㉠**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여기서 복병(伏兵)이라 함은 유다의 군인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 아마도 이 복병은 전리품을 탐내는 세일 족속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매복해 있다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습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한편 공격을 받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으나 곧 세일 족속에 게 반격을 가하였으며 그들이 멸절된 후에는 서로 싸워 자멸하고 말았다.

21. **㉠**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9, 30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2) 즉 주위의 이방 나라들은 적군이 침공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무 방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3)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을 믿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모두가 알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최대의 힘이다(참조, 시 18:1).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자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시 18:2).

22. **㉠** '산당'(山堂)은 어떤 곳인가? (3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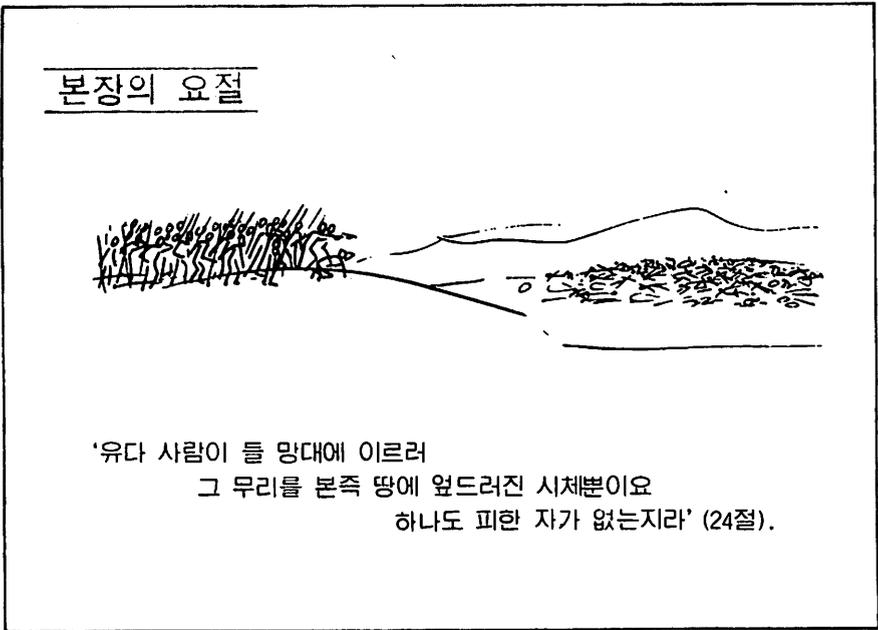
- ㉠** (1) 산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나안인들이 그

들의 우상 바알(Baal)을 섬기던 장소이다(참조, 민 23:41; 왕상 11:7).

- (2)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산당을 허물어버리라고 하셨다(민 33:52).
- (3)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완전히 수행치 않아 산당은 모두 제거되지 않았으며 그 곳에서는 여호와 경배와 우상 숭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참조, 삼상 9:12-14; 10:5).
- (4) 더우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B. C. 931-910)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벧엘과 단에 산당을 짓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된 북왕국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懷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왕상 12:31).
- (5) 그러므로 남왕국 유다에서 마저 솔로몬 성전 건축 후 산당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것은 후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6) 따라서 여호사밧이 비록 경건한 왕이었으나 산당을 철저히 폐지하지 못한 것은 그의 커다란 실책으로 간주된다.

23. **㉠**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교제는 어떠하였는가? (35-37절)

- ㉠** (1)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교제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교제하고 있다.
- (2) 여기서 아하시야는 심히 악한 왕이었으나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21:6) 아합가(家)와의 교제를 쉽게 끊을 수 없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다(37절). 그리하여 두 왕이 결합하여 시행코자 했던 다시스 해운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4) 아하시야가 다시 결합할 것을 요청했을 때 여호사밧은 허락지 아니하였다(왕상 22:49).
- (5) 악한 자와 교제하고 우정을 맺는 것은 참으로 해로운 일이다. 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다.



제 21 장 여호람의 악정(惡政)과 그의 운명

단락구분 / 1-4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 아우들을 죽이다 / 5-7 여호람의 악정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 8-10 에돔과 립나가 유다를 배반하다 / 11-15 선지자 엘리야가 보낸 책망의 편지 / 16-17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입 / 18-20 여호람이 병들어 죽다

1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3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4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5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삼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팔 년을 치리하니라

6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라

8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9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10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립남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11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케 하였으므로

12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13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 여호와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15 또 너는 창자에 증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17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재 아들 여호아사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18 여러 날 후 이 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항하던 것같이 저에게 분항하지 아니하였으며

20 여호람이 삼십 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 제 5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2) 여호람은 32세에 즉위하여 8년을 치리하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

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 (3) 그는 혈육인 자기 아우들을 살해했다. 그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 에돔과 랍나가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또 엘리야의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입하여 왕궁을 황폐케 했으며 여호람은 창자에 심한 병이 들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
- (4) 이처럼 유다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중 하나인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여호람이 가장 사악한 왕의 대표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 (5)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악인과 교제하던 여호사밧 때 이미 뿌려졌던 죄의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2).

2. ㉠ 유다 왕 여호람은 어떻게 왕위를 재승하게 되었는가? (3절)

- ㉠ (1) 그의 선왕(先王)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며 그의 동생들에게는 성읍과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 (2)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불의를 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환(一環)으로 자신의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 (3) 그런데 여호람의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짐작될 수 있었다. 즉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패역하고 사악한 아합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왕하 8:18).
- (4) 따라서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유다 왕국을 위해서는 커다란 불행이었다.
- (5)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실력도 배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3. ㉠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 왜 그 모든 아우들을 죽였는가? (4절)

- ㉠ (1) 여호람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 같은 이유에서 그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죽였을 것이다(참조, 요일 3:12).
- (2) 아우들의 경건한 태도가 여호람의 불경건함을 비난받게 했고, 아우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반면에 여호람은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이리하여 여호람은 형제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치적 위치가 안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악한 자의 손을 빌려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을 것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4. ㉠ 여호람이 아우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까지 칼로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여기서 여호와께 대한 선한 지식을 가르쳤던 유다의 방백들이 (17:7) 앞에서 '이스라엘의 족장' (19:8)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방백'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며 흠없는 자들이었다.
- (2) 여호람은 그들이 그의 아우들을 지지하고 복수를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백들마저 살해하였다.
- (3) 또한 그는 그의 선왕이 물려준 권세로 충신들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절대화시키려 했다.
- (4) 이처럼 '피로 나라를 건설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합 2:12). 그러한 기초는 지붕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5. ㉠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게 된 원인은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
- (2) 즉 그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으며 그 영향으로 여호람도 죄를 짓게 되었다.
- (3)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

으시는 혼인 관계를 아합가(家)와 맺었던 데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 (4) 이렇게 선한 왕인 여호사밧의 경미한 실수가 이렇게 커다란 문제로 비약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5:6).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속주의의 누룩을 조심하여야 한다.

6. **㉠ 악한 여호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때에 다윗의 집이 비참하게 부패하고 타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왕실을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2) 그 언약의 요지는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그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삼하 7:12; 왕상 11:36; 시 89:30-37).
 (3)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상징한다(눅 22:20).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고 성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흘림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7. **㉠ 에돔과 립나가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8-10절)**

- ㉠** (1) 에돔은 유다에게 공물을 바치던 이방 나라였고 립나는 유다의 한 지방이었다.
 (2)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호람은 출정(出征)하여 에돔의 도시 '사일'까지 진격하였으나(왕하 8:21) 그곳에서 에돔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전멸할 위기에서 겨우 빠져 나와 후퇴하였다.
 (3) 이러한 틈을 타서 립나도 반기를 들고 유다로부터 독립을 시도하였으므로 여호람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4) 이렇게 여호람이 외교적인 위기에 몰린 것은 종교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즉 '여호람이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은 유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5)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강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가장 약하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외부적 환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중에 멀리했기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8. **㉠ 여호람의 우상 숭배는 어떠한가? (11절)**

- ㉠** (1) 여호람은 백성들이 자진해서 만들기를 두려워하던 산당을 만들어 자신만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2) 예루살렘 거민이 우상을 섬긴 죄가 '음란'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섬겨서는 안 될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다(출 20:4-6; 절 20:30).
 (3) 또한 여호람은 유다를 미혹케 하였다. 그는 백성들을 바로잡으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다.
 (4) 오늘날 평신도들을 지도해야 할 교역자가 그 권위를 통하여 평신도들을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케 한다면 그 '직분'이 그를 정죄할 것이다(갈 1:9).

9. **㉠ 엘리야는 왜 여호람에게 책망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11, 12절)**

- ㉠** (1)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우상 숭배는 너무 심각할 정도여서 북이스라엘에까지 소문이 전해졌다.
 (2) 이때는 엘리야가 승천할 날이 임박할 무렵이었다. 엘리야는 그 자신이 직접 여호람에게 갈 수는 없었지만 여호람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글로 보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 준다. 엘리야는 하나

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데에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던 것이다.

- (4) 우리도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나 책이든 전파 매체이든 우리의 전생활을 통하여 말씀은 증거되어야 한다.

10. ㉠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엘리야는 여호람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여호람의 행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2)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영예로운 사실이었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람은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었다.
 (3) 세례 요한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였다(마 3:7).
 (4)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를 받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요 1:12).

11. ㉠ 여호람의 죄목(罪目)은 무엇인가? (13절)

- ㉠ (1) 여호람은 다윗의 길로 가기는커녕 가까운 부친 여호사밧이나 조부 아사의 길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죄목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신다. 여호람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보다 훌륭하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3) 여호람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고 아래로 형제들을 사랑치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합의 길’을 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
 (4)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마 7:21-27).

12. ㉠ 여호람이 지은 죄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벌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14, 15절)

- ㉠ (1) 여호람의 나라와 가족이 큰 재앙을 당하리라고 하셨다(14절). 여호람은 왕과 가장(家長)이었기 때문에 그 형벌의 규모도 컸다.
 (2) 여호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파멸을 당하리라고 하셨다(15절). 즉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重病)이 들어 죽게 될 것이다. 잔인하게 형제의 창자를 찌른 자가 이제는 자신의 창자에 중병을 얻어 최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3)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았다(롬 5:18, 19). 또한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죄성(罪性)에 따라 지은 수많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롬 6:23).
 (4) 여호람이 받아야 할 심판은 곧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심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와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사 53:5).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요 14:6; 행 4:12).

13. ㉠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예언된 ‘여호람의 백성과 가족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시행하셨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심으로 ‘여호람의 백성과 가족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셨다.
 (2) 그들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끌어 갔다. 특히 왕자들은 막내인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다(참조, 22:1).
 (3) 이처럼 여호람의 가족들이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즉위하던 때 자신의 동생과 방백들을 죽인 데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4) 이와 같이 무고하게 피 흘린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피 흘림의 심판을 받게 된다(창 9:5,6).

14. **㉠** 여호람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8,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15절)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여호람의 창자에 들게 하였다.
 (2) 여호람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병을 앓았으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드디어 그 심한 병으로 죽고 말았다.
 (3)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율법에 이미 경고되어 있었다(신 28:58, 59).

15. **㉠** 여호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분향(焚香)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19절)

- ㉠** (1) 백성들은 선왕(先王)들이 죽었을 때 분향하던 것같이(16:14) 여호람에게는 분향하지 않았다.
 (2) 여호람은 오랫동안 심한 병을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향료를 뿌릴 필요가 있었으나 백성들은 향긋하고 귀한 향료로 그의 시체를 영예롭게 하려하지 않았다.
 (3)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좇는 경향이 심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에 대하여 결코 존경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거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자들은 경멸의 대상이다.
 (5)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여호람처럼 그 자신이 '천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16. **㉠** 여호람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 (1) 그는 8년밖에 재위하지 못한 가운데 아내와 자식들도 잃고(17절) 또 2년 동안은 심히 고통스런 병으로 신음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그에게서 떠났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신하들도 그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다.
 (3) 여호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왕이라는 영예로운 직책을 맡았으나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죽은 셈이다.
 (4) 우리 성도는 한 알의 밀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로 살다가 바로 죽어야 한다(엡 4:1).

17. **㉠** 백성들이 여호람을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백성들은 여호람에 대해 애착이나 존경을 거의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릇된 정치를 한 왕을 다른 유다 왕들과 함께 둘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여호람의 장지(葬地)를 그 조상들의 묘소와 따로 격리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것은 죽은 후에도 사악한 자의 영혼이 의로운 자의 영혼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부활 사상을 나타낸다. 즉 마지막 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요 5:28, 29).

제 22 장 아하시야와 아달라에 의해 꺼질 뻔한 다윗의 등불

단락구분 1-4 아하시야가 아함의 집같이 악을 행하다 / 5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행하다 / 6 아하시야가 요람을 문병(問病)하다 / 7-9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살해당하다 / 10-12 아달라의 반란과 요아스의 피신

1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쑥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사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3 아하시야도 아함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피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4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때마침 하는 아함의 집 교도를 좇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함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 아하시야가 아함의 집 교도를 좇고 이스라엘 왕 아함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함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사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7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함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8 예후가 아함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왔으매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가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10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라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12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다윗 왕가의 비극을 설명하라.

- ㉠ (1)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 아합으로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데에서 비롯된 다윗 왕가의 비극은 본장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 (2) 21장에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던 중 홀로 살아 남은 말쑥 아하시야는 아함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다 재위 1년 만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살해되고 말았다(1-9절).
- (3) 이때 아하시야의 모친이며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라가 일어나 전대 미문(前代未聞)의 광란극(狂亂劇)을 연출했다.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키 위해 자기 혈육을 포함한 왕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이다. 경건한 여인 여호사브앗에 의해 오직 한 왕자 요아스만이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10-12절).
- (4) 이 후 아달라가 통치한 6년 동안은 외형적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 이 장(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된다.

2. ㉠ 역대기 저자가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요점은 무엇인가?

- ㉠ (1)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실의 범죄는 바로 아합의 집 교도(敎導)를 좇는 것임을 강조한다. 3-5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그것을 언급했다.
- (2) 아합의 집의 사악한 길은 패망케 하는 것이었다(4절). 그 길을 따라 아합의 집과 어울렸던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을 멸하는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3) 그 뿐 아니라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라에 의해 비참한 살인극이 벌어져 다윗 왕가마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 (4) 역대기 저자는 본장에서 오실 메시아는 혼합주의의 영향을 전연 받지 않으신 분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가 있는 한 그 감감함은 결코 메시아의 오시는 길이 될 수 없다.

3. ㉠ 본장 전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지극히 작은 실수가 패망케 하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남을 가르쳐 준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잘못된 혼인 관계로 적은 누룩이 들어와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어 불과 2대 만에 파멸적인 결과를 낳았다(참조, 고전 5:6).
- (2) 따라서 본장은 외부적인 거룩함 뿐 아니라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겉으로 보이는 죄악보다 보이지 않는 매우 사소한 불신앙이 치명적인 파멸을 초래케 할 수 있다.
- (3)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죄악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참조, 롬 1:4).
- (4) 그러므로 본장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교훈한다(빌 1:27).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사시게 하라는 것이다.

4. ㉠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딸째 아들인데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1절)

- ㉠ (1) 아하시야는 유다 왕 여호람의 막내 아들로 아합의 외손자이며 북왕국 아하시야 왕의 조카가 된다
- (2) 그 위에는 형들이 있었으나 전에 예루살렘을 침입한 아라비아 군대가 모두 죽였다.
- (3) 그것은 여호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으나 다윗 왕가이기 때문에 죽었어야 할 아하시야는 살아 남아 유다의 제 6대 왕이 되었던 것이다.
- (4)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 노아 때나 롯의 때처럼 모두 멸망되었어야 마땅하나 아직 생존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기 때문이다(마 24:22).
- (5)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겸손히 의(義)의 길을 가야 한다.

5. ㉠ 유다의 제 6대 왕의 이름이 22:1과 21:17에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말하라.

- ㉠ (1) 22:1에는 아하시야로 되어 있으나 21:17에는 여호아하스로 되어 있다.
- (2) 그것은 히브리 원문에 글자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것뿐으로 그 두 이름의 뜻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두 이름은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6. ㉠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2절)

- ㉠ (1) 본문에는 42세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 필사된 것이다.
- (2) 왜냐하면 그의 부친인 여호람 왕이 32세에 즉위하여 8년을 치리하고 죽었으니 아하시

야에게 왕위가 계승될 때는 40세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하시야는 그때 42세가 될 수는 없다.

- (3) 왕하 8:26에는 아하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22세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본문의 42는 22를 필사자가 잘못 옮겨 쓴 것이다.

7. **㉠ 아하시야는 몇 년을 통치했는가? (2절)**

㉠ (1)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다.

(2) 이것은 매우 짧다고 생각되지만 아하시야의 통치가 이전보다 조금도 더 개선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었다.

(3)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더욱 중요하다.

(4) 자기의 본분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사람은 단 일 년을 살아도 쓸데없는 삶이기 때문에 매우 지루하고 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속히 거두어 가셔도 아무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다(21:20).

8. **㉠ 아하시야의 악한 행실은 누구의 유혹에 이끌렸기 때문인가? (2-4절)**

㉠ (1) 아하시야의 성장 배경은 지극히 불경건했다. 그의 부친 여호람은 잔인한 폭군이었다고 그의 모친 아달라는 아합의 딸로 광적(狂的)인 우상 숭배자였다.

(2) 특별히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종교적으로 악하게 된 것은 그의 모친의 유혹 때문이었다.

(3) 결국 아하시야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 조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우상주의자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실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4)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금주를 하려는 사람이 매일 술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5) 예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마 16:6)고 하셨다.

9. **㉠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5, 6절)**

㉠ (1) 아하시야는 아합의 종교를 좇았고 그와 외사촌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

(2) 아하시야는 요람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 길르앗 라못(라마와 같은 장소이다)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도 참가했다. 이것은 그의 조부 여호사밧의 실수를 재연한 것이다(18:28).

(3) 그리고 그 전투에서 부상한 요람을 위문하려 이스라엘까지 찾아갔다(6절).

(4) 이러한 선린(善隣) 관계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했다.

(5) 우리는 여기서 친구 관계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평화할 수 있으나(롬 12:18)를 돕는 일까지 하면서 그와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19:2).

10. **㉠ 아하시야는 요람을 방문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는가? (7-9절)**

㉠ (1) 아하시야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여호람)을 방문하던 중에(왕하 8:29) 임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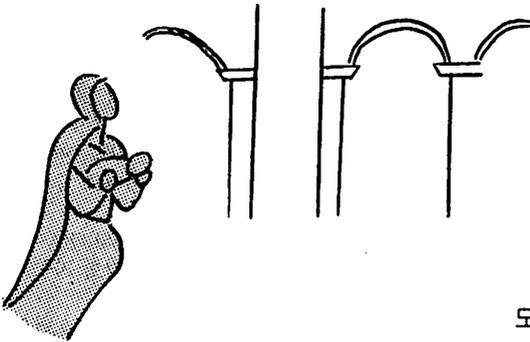
(2)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7절). 하나님의 섭리는 극한 배교(背敎)의 죄에 빠져 가던 아하시야로 하여금 바로 이 치명적인 때에 요람을 보러 오게 하여 마치 울무에 걸린 자처럼 요람과 함께 파멸당하게 하셨다.

(3)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인생은 비록 부귀와 영화를 누리든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된다.

11. **㉠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는 어떻게 반역을 하였는가? (10, 12절)**

- Ⓐ (1)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죽자 그의 모친 아달라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
- (2) 아달라가 자신의 피붙이인 손자들을 포함한 많은 왕손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본다면 우상 숭배자의 악함을 실감할 수 있다.
- (3) 우상 숭배자는 곧 사단을 섬기는 것이며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요 8:44). 아달라가 다윗 왕가에 들어온 이후 일어난 술한 살인극은 끔찍한 것이었다(21:4; 22:1).
- (4) 아달라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형이다(참조, 마 2:16).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다윗 왕가의 등불을 꺼질 뻔하게 할 정도로 강함을 기억해야 한다.
12. ⓐ **꺼져 가는 다윗의 등불을 지킴으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킨 자는 누구인가?(11, 12절)**
- Ⓐ (1) 다윗 왕가가 근절될 뻔한 결정적인 위기는 선한 한 여인에 의해서 면할 수 있었다. 그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의 누이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 이었다
- (2) 여호사브앗은 학살극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한 살된 아들 요아스를 구출하여 아달라의 폭정이 계속된 6년 동안 생명 걸고 요아스를 보호하였다.
- (3) 여호사브앗의 이 같은 행동은 다윗 왕가를 지키려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달라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 못했으며 결국 아달라는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의 혁명군에 의해 죽게 된다(23:15).
- (4) 이로써 다윗의 왕통은 여호사브앗이 지킨 요아스에 의해 이어지며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은 우상 숭배가 발붙이지 못했다(24:1-14).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전 1:27-29).

본장의 요절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라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11절).

제 23 장 요아스의 즉위로 다윗 왕권이 회복되다

단락구분 1-7 제사장 여호아다의 거사 계획 / 8-11 왕자 요아스로 왕을 삼다 / 12-15 아달람을 처형하다 / 16-21 왕을 보좌에 앉히다

1 제 칠 년에 여호아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디아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2 지회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아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4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삼분 일은 문을 지키고

5 삼분 일은 왕궁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6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 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 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와 명하신 바를 지키지며

7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8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아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아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라

9 제사장 여호아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10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11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새 여호아

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2 아달람이 백성들이 분주하여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3 보매 왕이 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였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람이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4 제사장 여호아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역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5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 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16 여호아다가 자기와 못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18 여호아다가 여호와와의 전의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19 또 문지기를 여호와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뒷문으로 좇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21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람을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 A** (1) 2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다윗 왕조의 어두움은 22장에서 음녀 아달라에 의해 완전한 흑암으로 드리워져서 6년 동안 계속 되었다.
- (2) 이제 본장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거(義舉)로 아달라의 권세가 깨어지고 다윗 왕손 요아스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다윗 왕위가 회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이 사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시(豫示) 한다(히 12:14; 참조, 골 2:15). 이 부활의 광명은 오늘날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참조, 눅 1:78, 79).

2. C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인가? (1 절)

- A** (1) 본장에서 다윗 왕가 회복을 위한 거사의 주도자인 여호야다는 여호람 왕의 사위로서 왕가와 인척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 (2) 또한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22:11; 23:8).
- (3) 여호야다는 아내 여호사브앗이 구출한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보호하며 6년 동안 기다려 왔던 인내(忍耐)의 사람이었다.
- (4) 그러므로 그는 다윗 왕위를 회복시키는 거사를 주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합한 일군을 예비해 두신다. 성도들은 자신을 적합하게 여기셔서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야다처럼 담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C 여호야다는 신성한 거사를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1 절)

- A** (1) 여호야다는 무엇보다도 다윗 왕위의 보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6:15-17) 을 기억하며 아달라가 통치하는 흑암의 시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졌다.
- (2) 그는 영아였던 왕자 요아스가 자라나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왕위를 회복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거사 준비에 착수했다.
- (3)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시기의 결정이 중요하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고 태만하면 기회를 놓친다. 여호야다는 6년을 묵묵히 기다리며 의거를 위한 그의 세력을 준비하여 왕자의 성장에 따라 가장 적합한 때에 거사의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4. C 여호야다가 거사의 시행에 앞서 먼저 착수했던 일은 무엇인가? (2-4 절)

- A** (1) 여호야다는 의로운 거사에 협력할 동지(同志) 들을 찾았다.
- (2) 그는 먼저 다섯 백부장(여로함의 아들 자아사라,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라, 마아세야, 엘리사밧)과 더불어 의거의 시행을 위해 언약을 세웠다.
- (3) 또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유다 전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레위인과 족장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다시금 언약을 세웠다.
- (4) 이들은 여호야다의 경건함에 따라 기꺼이 그와 협력키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여호야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 (5)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군들을 찾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C 여호야다가 모인 회중들에게 시달한 거사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3-7 절)

- A** (1) 여호야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사의 당위성을 선포했다(3절).
- (2) 그리고 거사에 참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가 지켜야 할 위치와 임무를 분명히 지시했다. 또 나머지 족장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4, 5절).

- (3) 마지막으로 거사의 방법을 시달했다. 즉 행동 규범은 반드시 '여호와와의 명하신 바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
- (4) 이렇게 여호야다의 거사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 이로써 여호야다의 거사는 인간적인 폭력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의의 혁명이었다.
- (5)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수행되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 개혁과 함께 신앙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사회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6. **㉠ 3절에 '은 회중'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 ㉠** (1) 본래 '은 회중'으로 번역된 <갈하카할>은 전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 (2) 본문 3절에서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여호야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명한 레위인들의 대표와 족장들을 가리킨다.

7. **㉠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그것은 솔로몬이 일찌기 성전 기도에서 회상한 바와 같이(6:16)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가리킨다(삼하 7:6).
- (2)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유다의 진정한 왕은 '아달랴'가 아니고 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왕자 '요아스'인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이제 요아스가 비록 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이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당연한 일이다.
- (3) 비록 인간은 변하고 세상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찾아야 한다.
- (4) 또한 진리를 잃고 표류하는 이 세대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약속(마 1:21)에 따라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시는 개혁 운동이 부단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8. **㉠ 여호야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4, 5절)**

- ㉠** (1) 여호야다는 레위인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1대(隊)는 '문'을 지키고 2대는 왕궁을 호위하고 3대는 기초문(혹은 수르문)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 (2) 반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신속히 거행하기 위해 미리 대기시킨 것이다.
- (3) 이처럼 여호야다는 동역자들의 직분을 따라 적재 적소에 모든 사람을 배치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위치를 못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없게 했다.
- (4)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꾼들에게 그들의 재능(달란트)에 따라 적합한 직임(職任)을 분담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배정받은 자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9. **㉠ '안식일에 입번한 자'란 무슨 뜻인가? (4절)**

- ㉠** (1) 제사장들은 24 반열로 나누어져서 한 주간씩 윤번으로 성전 봉사를 하였다(참조, 대상 24:1-19).
- (2) 이들은 안식일 아침부터 다음 안식일 저녁 제사 직전까지 성전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중 성전 봉사를 시작하러 안식일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입번하는 자'라고 부르며 성전 봉사를 마치고 안식일 저녁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출번하는 자'라고 부른다.
- (3) 여호야다는 이들 '출번하는 반'도 보내지 아니하고(8절) 두 대로 나누어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겼다(왕하 11:7).
- (4)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지파의 레위 사람들만을 군인으로 세운 것은 그들의 온전한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기밀을 유지하여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기 때문에 (참조, 출 28:30; 말 2:7) 그 약속을 믿는 자들끼리만 몽친 것이다.

(5)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10. C 여호야다가 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6, 7절)

A (1) 여호야다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명하신 바’ 를 지키면서 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 이 ‘여호와와 명하신 바’ 는 제사 의식에서 또는 성전의 안뜰에 드나드는 데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한다(참조, 민 3:5-10). 그 계명을 따라 레위인 외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도록 엄명을 내렸다.

(3) 아무리 훌륭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하나님의 일이라도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호야다는 거사의 동기를 말씀에서 찾았듯이(3절) 그것을 수행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철저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했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사는 세속적인 혁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이 지시하는 진리를 따라서 수행해야만 하는 의롭고 거룩한 혁명이다.

11. C 거사는 어떻게 수행되어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가? (8-11절)

A (1) 부름 받은 무리들은 지도자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것들을 그대로 준행하여 각자의 일에 충신했다(8절).

(2) 그리고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어 왕을 호위하도록 하였다(9, 10절).

(3) 이때 무리가 왕자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대관식을 거행하였다(11절).

(4) 이처럼 경건한 지도자가 제시하는 성경적인 명령에 모든 일꾼들이 순종하므로 거사는 성공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도 철저한 성경적인 설교와 지도 방침이 있고 그것에 모든 교인이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행 6:7; 12:24; 16:4; 19:20).

12. C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백성들에게 각각 어떤 무기를 주었는가? (9, 10절)

A (1) 백부장들에게는 성전 안에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주었다. 이것은 전에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여호와께 바쳤던 것이다(대상 18:7, 8).

(2) 또한 백성들에게는 병기를 잡게 하였는데 여기서 병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실르호)는 특별히 날아가는 무기(화살, 돌 등)를 의미한다.

(3)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무기가 필요하다.

(4) 바울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한다. 그 전신 갑주 중에 중요한 두 무기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이다.

(5) 여기서 우리는 도전해 올지 모르는 사단의 공격에 항상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13. C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왕을 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A (1) 율법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에두트>로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증거’(KJV, testimony)가 된다.

(2) 여기서 여호야다가 왕에게 준 율법책은 왕이 준수할 것을 적어 놓은 모세 율법의 사본으로 추측된다(NIV, a copy of the covenant).

(3) 그리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의미는 왕의 머리에 ‘율법책을 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왕이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함을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16:34; 25:16, 21; 신 17:8-20).

(4) 그런데 이 같은 의식은 새로운 대관식의 형태로 후기 왕조에 있어서 왕권의 점차적인 축소를 암시한다.

(5) 이것은 교회의 목회 원리가 됨은 물론 국가의 통치 원리가 된다. 즉 국가의 최고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국가 번영의 참된 비결이 여기에 있다. 청교도적 건국 이념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14. **㉠ 여호야다가 아달라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2-15절)**

- ㉠** (1) 아달라가 대관식에서 나는 만세와 찬송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야다는 아달라를 성전 안에서 말고 반열 밖으로 몰아 내어서 죽이되 성전 밖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했다.
- (2) 이것은 여호야다가 수행하는 혁명이 신성한 것이었으므로 성전에서 아달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음을 의미한다.
- (3) 즉 아무리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 내는 혁명의 와중(渦中)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림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성전 밖에서 죽이라 명하였다.

15. **㉠ 여호야다의 의거는 어떻게 함으로 완성되었는가? (16 - 21절)**

- ㉠** (1)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라를 처형함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거사가 완성되었으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미완성이었다.
- (2)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
- (3)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신성한 언약을 세운 후 우상을 깨뜨리며 성전 제사를 복원(復元)하고 왕을 왕궁의 보좌에 앉게 하였다.
- (4) 만일 '왕'의 권리를 찬탈한 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은 것을 멸하지 않았다면, 즉 왕좌의 영예만을 돌보고 제단의 영예를 돌보지 않았다면, 일을 절반밖에 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16. **㉠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는가? (16절)**

- ㉠** (1) 본문에 여호야다는 못 백성과 왕으로 여호야다 '자신' 과 언약을 세우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백성과 요아스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했다(왕하 11:17).
- (3)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옛날 모세처럼 이 일을 주관한 대표자 혹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기의 특징이다.

17. **㉠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16절)**

- ㉠** (1) 언약 증서는 '그들은 여호와와 백성이 될지라' 하는 것이었다.
- (2)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언약하셨던 것이다.
- (3) 그리고 나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릴 것을 서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했다.
- (4)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여호와와 백성'으로 존중하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강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18. **㉠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7절)**

- ㉠** (1) 여호야다는 아달라를 처형할 뿐 아니라 그녀가 뿌려 놓은 우상 숭배의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래서 바알의 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모두 깨뜨려 없애고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

- (2) 특히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신 때문이다(신 13:5, 6).
- (3)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한다(골 3:5). 그러므로 죄의 머리만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체까지 죽여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19. **㉠** 요아스 왕을 왕궁으로 인도하여 나라 보좌(寶座)에 앉힌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21절)

- ㉠** (1) 요아스 왕을 왕궁 보좌에 앉힌 것은 종교적·정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이 확립됐음을 뜻한다. 이리하여 여호야다가 주도한 의로운 거사는 완성되었다.
- (2)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다른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고 조용하여 성중이 평온했다.
- (3) 이처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보좌에 거하게 될 때, 모든 것은 조용해지며 기쁨의 샘이 열리게 된다.

화보자료

아달라의 죽음. 아래의 사진은 「고귀한 남녀의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15세기의 사본의 삽화로서 아달라가 죽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파리의 아르스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집권을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살해한 아달라의 악행은(22:10) 끝내 자신이 처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15, 21절) 그 보응을 받았다. 이처럼 악인들의 행위는 언젠가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잠초, 시 112:10).

제 24 장 요아스의 선정(善政)과 타락

단락구분 1-3 여호야다가 생존한 동안 요아스가 선정을 베풀다 / 4-7 요아스가 성전 수리됨 명령하다 / 8-14 풍성한 헌금으로 성전 수리를 마치다 / 15-19 여호야다 사후 요아스가 타락하다 / 20-22 선지자 스가라의 순교 / 23-27 아람 군대의 침입과 요아스의 죽음

1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칠 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밖이더라

2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3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5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팔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팔리하지 아니한지라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8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밖에 두게 하고

9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11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떼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 공장들이 말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14 필역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술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5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일백 삼십 세라

16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할때 왕이 그의 말을 듣고

18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20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21 무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와 전 뜰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비 여호야다의 배후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3 일 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

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 요아스가 크게 상하며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6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증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요아스의 선정과 타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1) 본장에는 유다 8대 왕 요아스가 그를 지도해 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선정을 베풀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타락하여 버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특별히 본장에는 타락한 요아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즉 그는 아람 사람의 침입을 받고 큰 타격을 입었으며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23-27절).
 (3)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4) 본장의 기사(記事)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신자들을 경고하신다(참조, 갈3:1-3).

2. **㉠** 본장 24장과 왕하 12장의 차이점을 말하라.

- ㉠** (1) 본장에 나타난 요아스의 기사는 왕하 12:1-21에 다루어진 바 있다.
 (2) 왕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요아스 말기의 타락상이 본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 사람들의 선한 일은 어느 때나 거듭 이야기해야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신중한 역대기 저자는 자세에서 요아스의 타락상을 기록한 것이다.

3. **㉠**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요아스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2절)

- ㉠** (1)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2)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불경건한 신하들의 아침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17, 18절).
 (3)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정직히 행할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보다는 인간 여호야다만을 신뢰하다가 그만 타락해 버렸던 것이다.

4. **㉠** 3절의 요아스의 결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요아스의 결혼에 있어서는 후견인 여호야다가 그것을 친히 주선하여 왕비를 간택했다.
 (2) 이러한 결혼은 아달라를 통하여 왕실의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었는지를 여호야다가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되어졌음을 보여 준다.
 (3) 오늘날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실패와 성공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 4절의 '그 후에'란 언제를 말하는가? (4절)

- ㉠** (1) 요아스 왕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이다.
 (2) 왕하 12장에 의하면 요아스 왕 23년(B. C. 813) 이고 요아스의 나이 29세되는 때이다.

6. **㉠** '요아스가 여호와와의 전을 중수(重修)할 뜻을 두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4절)

- ㉠** (1) 요아스는 성전의 낡은 부분들을 수리하기로 생각하고 레위인들에게 지시했다.

- (2) 요아스가 이러한 일을 계획하여 지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행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으므로 그 성전에 대한 각별한 애착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이것은 그를 성전에서 보호하며 지켜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 바알 숭배를 하며 타락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요시아의 나머지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4) 하나님은 때로 육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사44:28).

7. **㉠ 성전 수리는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5-14절)**

- ㉠** (1) 성전 수리는 먼저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 석수와 목수와 공장(工匠)들을 고용하여(12절)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회복시킴으로 완성되었다.
- (2)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헌금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오게 한 방법은 실패했으나(5절) 백성들이 스스로 헌금하도록 한 방법은 성공했다는(8-11절) 사실이다.
- (3)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나 자원함으로 감사하며 해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참조, 출35:21; 대상29:14; 고후8:3).

8. **㉠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에 힘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5-14절)**

- ㉠** (1) 요아스는 제사장인 여호야다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성전 수리하는 일에 성의를 기울였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 점에 있어서 실책했다고 책망하기까지 하였다.
- (2) 이렇게 형식적인 경건심만을 소유한 자들도 믿음의 권능을 지닌 자들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헌신의 표시를 할 수도 있다.
- (3) 이것은 우리들에게 옳은 일에 힘쓰라고 촉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일은 힘쓰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다.
- (4)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전9:27).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전6:19, 20).

9. **㉠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은 유다 왕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15-19절)**

- ㉠** (1)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주의로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되었다.
- (2) 즉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변절하여 우상 종교를 포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요아스 왕까지 그들의 아첨과 유혹에 넘어가서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로 타락하고 말았다.
- (3) 이러한 방백들의 아첨과 유혹에 요아스 왕마저 변절했다(18절).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그렇게 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버렸다.
- (4) 이처럼 유다 방백들이나 왕이 급변한 원인은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겨 왔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막9:50). 즉 우리는 내적인 원칙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행해야 한다.
- (6)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부모나 사역자, 또한 친구를 잃어도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0. **㉠ 여호야다가 다윗 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15, 16절)**

- Ⓐ (1)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할 유다 왕 요아스는 장사되지 못하고(25절) 장사될 수 없는 평민 여호야다는 그곳에 장사되었다(16절).
- (2) 여호야다는 죽을 때 나이 130세였으므로 보아 솔로몬 시대에 태어났고 이전에 일곱 왕 시대를 모두 살았을 것이다.
- (3) 그는 그 오랜 기간을 살면서 거질 뻔한 다윗의 등불을 돋우는 귀한 일을 했다. 6년 동안 계속된 아달라의 우상 숭배 정권을 깨뜨리고 다윗 왕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던 것이다.
- (4)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고 말한다(16절). 그래서 왕도 아닌 여호야다는 영예롭게도 '열왕의 묘실'에 묻힘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약속받았던 것이다.
- (5) 어느 때보다도 최악이 관영해 가는 이 세대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영원한 나라의 기업받기를 사모해야 했다.

11. ⓐ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계를 듣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배교(背敎)한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경계하게 하심으로 자비를 나타내셨다.
- (2) 매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언자를 보내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벧후 2:5-8).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악행을 계속하여 멸망하기 보다는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므로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게 하신다.
- (3) 이렇게 보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계를 유다 백성들은 무시하여 듣지 않았다. 이것은 곧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눅 10:16).
- (4)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말씀보다는 표적을 구한다(마 12:39).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보다도 더 큰 표적이었다(눅 16:27-31).
- (5) 오늘날 신자들은 말씀을 풀어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했다. 또 설교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12. ⓐ 20절에 나타난 '스가라'는 누구인가?

- Ⓐ (1)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구약 스가라서를 지은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와는 다른 사람이다.
- (2)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당한 바라가의 아들 스가라'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본문의 스가라를 지칭하신 것이다(마 23:35; 눅 11:51).
- (3) 마 23:35에서 스가라의 아버지로 언급된 '바라가'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스가라는 여호야다의 손자가 된다.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은 이후에 스가라는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13. ⓐ '하나님이 신이...스가라를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감동시키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바쉬>의 번역으로 <라바쉬>는 '옷입다' (clothe)란 뜻이다. 따라서 '성령이...스가라를 옷입혀'라고 이해될 수 있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악의 길에 들어서려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우치려 하셨다.
- (3) 이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스가라는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능히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21절).
- (4)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행 1:8).

(5)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담대히 외쳐야 할 것이다.

14. **㉠** 스가라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20절)

- ㉠** (1) 스가라는 여호와와 명령을 어기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율법을 어긴 죄악을 지적했다.
- (2) 모반한 자 '사밧'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이었고 '여호사밧'은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이었다. 그들의 모친이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3)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왕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 율법으로 금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장려했던 것 같다.

15. **㉠** 선지자 스가라가 죽을 때에 예언한 말은 무엇인가? (22절)

- ㉠** (1) 스가라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악으로 갚음에 대해서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언했다.
- (2) 그러한 스가라의 말은 원수갚는 것과 처벌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이다. 특별히 신원(伸冤)하여 달라는 것은 가인을 고발하여 울부짖는 아벨의 피와 같이 살인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다.
- (3) 그리스도께서도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 스가라의 피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순교자들의 피는 이토록 오랫동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마 23:35).
- (4) 이러한 영혼들은 지금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계 6:10)라고 울부짖고 있다.
- (5) 인간의 모든 악 특히 복음에 대하여 행한 불신자들의 훼방은 언젠가 모두 그들에게 갚아지고 말 것이다.

16. **㉠** 요아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내려졌는가? (23절)

- ㉠** (1) 스가라의 예언대로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왕국에 떨어졌다. 즉 아람 군대의 침입으로 징벌을 받았다. 이것은 유다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 (2) 백성 중 모든 방백이 멸절되는 심판을 받았다(23절). 그들이 요아스 왕을 피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 (3) 이때 아람 군대는 소수의 병력이었으나 유다의 심히 큰 군대가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맥없이 패배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24절).
- (4)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했고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게 배반당하여 살해되고 말았다(25, 26절). 이처럼 그는 은인의 손자를 죽인 죄값으로 신하의 손에 죽은 것이다.
- (5) 이러한 예루살렘의 심판은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 (시 19:12)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17. **㉠** 모반한 자들의 모계(母系)는 어떠한가? (26절)

- ㉠** (1) 역대기 저자는 모반한 자들을 말할 때 특별히 그들의 모친과 혈통을 밝히고 있다.
- (2) 또한 그 불순종은 곧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버린 자는(18절)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 (3) 이렇게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 주는 것이 사역자들의 임무인 것을 기억해야겠다.

제 25 장 아마샤의 승전과 패전

단락구분 1-2 아마샤의 신앙 / 3-4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형하다 / 5-13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얻은 승전 / 14-16 선지자를 무시하다 / 17-24 우상 숭배로 인한 패전 / 25-28 아마샤가 반도(叛徒)에게 피살되다

1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 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3 그 나라가 곧게 서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4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5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삼십 만을 얻고

6 또 은 일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을 샀내었더니

7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은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일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 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수 있나이다

10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명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11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일만을 죽이고

12 유다 자손이 또 일만을 사로 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서 그 몸이 부숴지게 하였더라

13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 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벧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삼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14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는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17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강하는도다 네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20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라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벧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여호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24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벨에들의 지키는 모든 금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불로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5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십 오 년을 생존하였더라

26 아마샤의 이 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8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아마샤의 치적을 설명하라.

- ㉠** (1) 본장은 유다 9대 왕 아마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대의적인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좌우했는가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 (2) 처음에 아마샤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 족속을 정벌하는 전쟁에 승리했다(5-13절).
- (3) 그러나 이 승리로 인해 아마샤는 교만해졌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 (4)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자들에 의해 아마샤는 살해를 당하였다.
- (5) 이러한 아마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얼마나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2. **㉠**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했다.
- (2)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일을 계속 행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에돔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14절).
- (3) 아마샤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였다. 그는 신앙 생활에 대해 적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냉담하고 무관심했다.
- (4) 이러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대단히 많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계 3:19).
- (5)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다(참조, 수 24:14).

3. **㉠** 아마샤가 반역자들을 죽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4절)

- ㉠** (1) 아마샤가 자기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사밧과 여호사밧 등 역적들을 죽인 것은 공의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 (2) 비록 그들이 선지자를 가혹하게 처죽인 요아스 왕에 대해 가졌던 불만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24:25) 그들의 사악함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아마샤는 이에 대해 합당한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신 24:16)을 지켜가면서 반역자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는 공의의 심판을 내렸던 것이다.
- (4) 이점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길이 된다(시 19:8).

4. **㉠** 아마샤가 유다에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샅내게 된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가? (5, 6절)

- ㉠** (1) 아마샤는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에돔 사람들(21:8-10)을 다시 굴복시키려고 원정을 시도했다.
- (2) 그래서 유다와 베나민의 군대를 소집하여 계수해 보니 30만에 불과했다. 50-60년전 여호사밧의 군대 116만에 비하면 4분의 1로 감소된 것이다(참조, 17:14-18).

- (3) 아마샤는 에돔 정벌에 자기의 군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 결손을 돈으로 보충하려 했다. 그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 10만을 샀내었다.
- (4) 그러나 이것은 선왕들(여호사밧, 아하시야)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지 않은 경솔한 처사였다.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되돌려 보내지고 그 보용으로 유다는 그들에 의해 노략을 당하고 말았다(13절).
- (5) 우리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아마샤와 같은 시행 착오와 애매한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5. **㉠** 경솔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경고하였는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 아마샤가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와를 좇지 않고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13:8).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이유였다.
- (3)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과 사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고후 6:14-16).
- (4) 또한 수자적으로만 많이 포섭하여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름과 관계 없는 자들을 일군으로 세우게 되면 결국 주님의 원수들을 교회에 용납하는 것이 된다. 이런 처사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 온다.

6. **㉠**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란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선지자는 인간적인 병력으로만 전쟁을 대비하는 아마샤에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도 아마샤를 능히 도와 승리케 하실 것이고, 아마샤가 그들과 함께 한다 해도 아마샤를 패하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형편없는 수적 열세에도 이기게 하신다(참조, 삿 7:22, 23; 8:10-12). 또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신다(20:17).
- (4)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심히 큰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무리에게 패배당하기도 한다(24:24).

7. **㉠**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에 대하여 이미 샀으로 지불한 은 100달란트(약 3,400kg)를 잃게 되지 않겠느냐고 염려했다.
- (2) 그러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는 답변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유를 잃어버리는 자에게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밝혀 주었다.
- (3) 하나님께 복종하여 은 100달란트를 잃었을 때 아마샤는 그의 손자 요람에게 바로 그만큼 액수의 돈이 선사되었다(27:5). 그리하여 원금도 상환되었고, 그 이자로 밀 일만 석과 보리 일만 석을 더 얻게 되었다.
- (4)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 주시며 그에게 봉사하는 동안 생기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 (5)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마 11:29,30).

8. **㉠**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대로 에브라임 군대를 돌려 보내고 전쟁에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떠한가? (10-12절)

- ㉠** (1)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약속)을 믿고 에브라임 군대를 본곳으로 돌려 보낸 대

신 담력(膽力)을 내어 적은 군대를 이끌고 염곡(사해 남단에 있음) 전투에 참가하여 에돔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 (2) 아마샤는 세일 자손 1만 명을 도륙하고(11절) 페트라에 있는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했다(왕하 14:7).
- (3) 이 승리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대로 아마샤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였다.

9. **㉠** 에브라임 군사들이 유다 성읍을 살륙하고 노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에브라임 군사들은 단순히 돌려 보낸 것에 대한 분풀이로 자기들이 도울려고 했던 유다의 성읍을 습격하여 죄없는 양민(良民)을 3,000명이나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 (2)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비겁한 행위로서 에브라임 군대의 사악성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7, 8절)가 정당했음을 입증해 준 사건이다.
- (3) 만일 이런 군대가 유다 군대와 함께 전쟁에 참가했다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요인이 되어 큰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함께 협력할 동역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해야 한다.

10. **㉠**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어떻게 타락하여 갔는가? (14절)

- ㉠** (1)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그의 마음은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겼다.
- (2)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 별 이유도 없이 자기를 정복한 자들의 신을 섬겼다(28:23). 그러나 자기가 정복해 버린 그 나라의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 (3) 만일 아마샤가 에돔에서 사로잡은 자 대신에 이 우상들을 바위에 던져 산산 조각을 내었다면 이스라엘인의 자비심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명백히 드러내게 되었을 것이다.
- (4) 그러나 에돔 포로를 잔인하게 죽일 때 싹튼 아마샤의 교만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나타났다.
- (5) 우리는 여기에서 곤경에 처할 때보다 형통할 때 더욱 타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형통할 때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 8:11-18).

11. **㉠**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5절)

- ㉠** (1) 아마샤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홀이 풍성하셔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권고하셨다.
- (2) 선지자는 매우 온화하고 정당하게 아마샤를 향하여 이치를 밝혀 주었다. 즉 에돔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아마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죽은 신들이니 어찌 그런 죽은 신과 관계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 (3)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도움을 바라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능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선지자의 권고에 즉시 회개할 것이다.
- (4) 우리들도 종종 교만에 기울어 헛된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공홀의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12. **㉠**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한 아마샤에게는 어떤 징벌이 선고되었는가? (15, 16절)

- ㉠** (1) 아마샤는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의 말을 꿩고 오히려 위협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고 하였다(참조, 24:20, 21).
- (2) 이러한 위협은 스가라를 죽인 일을 정당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아마샤 자신도 사

실상 그 피를 범한 죄인이 되어 버렸다.

- (3) 이에 대해 선지자는 무서운 징벌을 선언하였다. 즉 '하나님이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결정 하셨다'고 하였다.
- (4)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창 6:6) 사람의 형편이란 비참할 수밖에 없다.
- (5) 문간에 있는 견책자(하나님의 종들)나 마음속에 있는 견책자(양심)는 오랫동안 타이트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다(잠 29:1).

13. **㉠** 선지자를 통하여 선고된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7-28절)

- ㉠** (1)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경멸적인 조언을 받고 도전했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으며 그것으로 해서 그 자신과 그의 성읍이 참화를 당하고 말았다(17-24절).
- (2) 또한 자신의 신복들에게 모반(謀叛)을 당해 도망을 다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왕으로서 치욕적인 최후를 맞았다(25-28절).
- (3) 이러한 아마샤의 후기 행적은 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받을 징벌을 보여 준다. 성도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더욱 섬겨야 한다(신 28:47, 48; 약 5:13).

14. **㉠**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보낸 답신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18, 19절)

- ㉠** (1) 요아스는 아마샤가 자신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용이라는 점을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상대가 될 수 없는 나무로서 혼인 관계를 맺자고 한 것에 풍자하여 말했다.
- (2) 즉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를 대적의 손에 붙여 패배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 (3) 특별히 아마샤가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요아스의 조언을 거부한 교만에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 16:18)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

15. **㉠** 아마샤가 요아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전쟁하다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아마샤가 요아스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로 맘미암았기 때문'이었다.
- (2) 더구나 아마샤의 경우는 그의 부친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한 죄로 모반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은 사실(24:25)을 알고도 그 전철을 밟고 말았다.
- (3)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도 죄의 대가는 어김없이 찾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거울삼아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전 10:6-11).

16. **㉠** 아마샤의 죽음은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27, 28절)

- ㉠** (1) 아마샤는 반란자들에 의해 쫓겨 다니다가 라기스에서 반란자들의 자객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2) 요아스는 그러한 풍자로 아마샤의 의기를 꺾어 보려 하였다.
- (3) 즉 가시나무가 자신을 백향목과 동등시하려 하였으나 들짐승들이 그를 짓밟는 것처럼 아마샤도 화를 자초하여 망하지 말고 자기 궁에나 머물러 있으라고 조언했다.

제 26 장 웃시야가 강성한 후 교만해지다

단락구분 1-5 웃시야의 형통 / 6-8 인접국을 정벌하다 / 9-10 농업을 진흥시키다 / 11-15 군대를 강화하다 / 16-20 웃시야가 교만하여 분향(焚香)하려다 문둥병에 걸리다 / 21-23 웃시야의 격리된 여생(餘生)

1 유다 은 백성이 웃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십륙 세라

2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웃시야가 열 뜻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3 웃시야가 위에 나아가갈 때에 나이 십륙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이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 웃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을 형통케 하셨더라

6 웃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7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시니라

8 아몬 사람이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9 웃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뚫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를 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11 웃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 족장의 총수가 이천 육백 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 그 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 오백 명이라 견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14 웃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들을 예비하고

15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16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와 제사장 용맹한 자 팔십 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 웃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 웃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와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20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 내고 여호와께서 치시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와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22 이 외에 웃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 웃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웃시야의 선정(善政)과 실정(失政)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 나타난 유다 10대 왕 웃시야는 25장의 아마샤와 24장의 요아스처럼 초기에는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나 말기에는 실패하여 오점(汚點)을 남겼다.

- (2) 웃시야는 외교적인 면에서는 인접 국가들을 정벌하여 명성을 떨치고(6-8절), 경제적인 면에서는 농업을 진흥하였으며(9, 10절), 군사적인 면에서는 군대 조직과 무장과 병기를 강화함으로 강성하였는데(11-15절) 이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 (3) 이러한 강성함으로 웃시야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성전에서 금지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문등병에 걸리고 말았다(16-20절). 그러므로 그는 왕궁과 격리된 채 여생을 살았고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21-23절).
- (4) 우리는 형통하고 강해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2. ㉠ 웃시야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1절)

- ㉠ (1) 웃시야의 다른 이름이 왕하 14:21에는 '아사랴'로 나타나고 있다.
- (2) 두 이름은 서로 뜻이 비슷한데 웃시야는 '여호와로부터 온 힘'이란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이란 뜻이다.
- (3) 이 두 이름 중 웃시야가 좀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즉 아사랴는 왕하 15:13, 30, 32, 34에 나타나고 대상 3:12에도 기록되었으나 본장에는 항상 웃시야로 기록되었고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서 등에서도 모두 웃시야로 통용되어졌던 것이다.
- (4)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된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웃시야'나 '아사랴'는 동일 인물, 즉 유다 10대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3. ㉠ 웃시야가 엘랏을 건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절)

- ㉠ (1) '엘랏'은 아카바 만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8:17; 왕상 9:26) 에시온게벨 가까이 있으며 또 엘랏이라고도 부른다(신 2:8). 이 지명은 에돔 족속의 족장 엘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창 36:41).
- (2) 그곳은 항만의 수심이 깊지 않고 아라뱃에서 몰아치는 강한 북풍 때문에 항구로서의 입지 조건은 나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장소였다.
- (3) 비록 지명은 나오지 않으나 왕하 8:21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 왕 당시에 엘랏을 포위했던 것 같다.
- (4) 그 후 아사랴(곧 웃시야) 때에 이르러 엘랏이 재건(再建)되어 유다의 전략적 요지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 (5) 그러나 아하스 통치하에서 이곳은 다시 에돔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다(왕하 16:6).

4. ㉠ 웃시야는 몇 살에 즉위하여 몇 년을 치리하였는가? (3절)

- ㉠ (1) 웃시야는 16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다. 그의 통치 연대는 B. C. 790-739년이다.
- (2) 웃시야의 모친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5. ㉠ 웃시야의 행적은 어떠하였는가? (4, 5절)

- ㉠ (1) 웃시야는 부친 아마샤가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듯이(25:2) 그도 정직히 행하였다.
- (2) 웃시야는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하여 그의 고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다.
- (3) '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다라쉬)는(추적, 혹은 찾기 위하여)'따르다'란 뜻으로 경건되게 예배하는 구도자(求道者)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 (4) 이렇게 웃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을 때는 깊은 좌절 속에 빠지고 말았다(21절).
- (5) 이것은 형통의 원인이 웃시야의 인간적인 우수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 준다.

6. ㉠ 5절에 웃시야에게 하나님을 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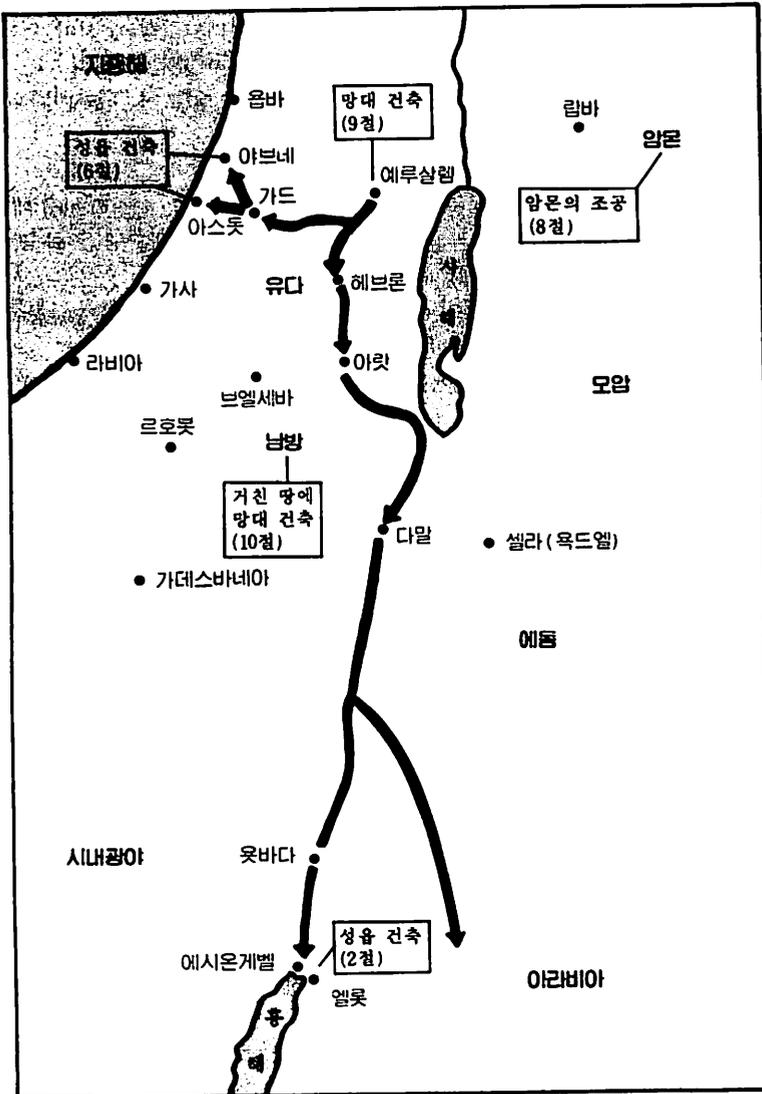
- ㉠ (1) 여기서 '스가랴'는 사 8:2에 언급된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이다.

본장의 스가라는 후자보다 한 세대 이전 사람이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 스가라(속 1:1)와도 다른 사람이다.

- (2) 이 스가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 그 묵시(vision)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받은 것이었거나 선배 선지자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다.
- (3) 스가라는 예언에 능통하며 옛 세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지식과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웃시야 왕의 선지자적 교사요 고문이었다.
- (4) 주위에 이런 교사가 있어서 그의 충고를 기쁘게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구할 어떤 원칙도 지니지 못한 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7. **Q** 6-10절에 나타난 웃시야의 정복 사업과 건설 사업을 지도를 사용하여 설명하라.

A 지도를 참조하라.



8. ㉠ 웃시야의 정복 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6-8절)

- ㉠ (1) 웃시야는 블레셋의 중요한 방어 기지였던 세 개의 성, 즉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브넬 성을 함락시켜 파괴한 후 거기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했다.
- (2) 그리고 유다 남동쪽 경계선의 구르바알이란 곳에 거주하던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까지 공략함으로 그 세력이 남쪽 갈대 바다까지 미쳤다.
- (3) 또한 동쪽의 암몬 사람은 웃시야에게 조공(朝貢)을 바치게 되어 웃시야는 심히 강성해지고 그 명성은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되었다.
- (4) 이러한 웃시야의 승리와 형통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룩한 일들이다 (5, 7절).
- (5) 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장막터를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참조, 사 54:1-3).

9. ㉠ 웃시야의 농업 정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웃시야는 유다 남방의 거친 땅에 망대(望臺)를 세우고 웅덩이를 많이 파서 용수(用水)를 공급하여 육축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도 개발하는 데에 힘썼다.
- (2) 이처럼 웃시야는 군사 정책에만 힘쓰지 않고 민생(民生)의 안정을 위해 산업 정책에도 힘써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하였다.
- (3) 이것은 현명한 통치자로서 국방력과 경제력의 조화를 통해서 진정한 국가의 발전과 부강(富強)을 추구했던 좋은 예이다.
- (4) 또한 웃시야는 그 자신이 ‘농사를 좋아했다’. 다윗 집안의 가장 유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농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했다는 것은 농부들의 천직을 영예롭게 하여 준다.

10. ㉠ 웃시야의 군사 정책은 어떠하였는가? (11-15절)

- ㉠ (1) 웃시야의 군대는 하나나를 지휘관으로 여이엘과 마아세야를 부관으로 하고 장교가 2,600명, 총 병력이 307,500명이 되었다 (25:5).
- (2) 웃시야는 그 온 군대에게 방패, 창, 투구, 활, 물뿔들을 주어 단단히 무장하게 했다(14절). 그리고 성곽 위에서 살과 큰 돌을 쏘는 대포를 개발하여 국방에 사용했다(15절).
- (3) 이렇게 웃시야는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을 무장시킴으로 국방을 강화했다. 이러한 군사 정책은 크게 성공하여 그의 명성을 먼 지방까지 떨치게 하였다.
- (4) 현대 교회도 영적 조직과 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어야 한다. 확실한 지휘관인 그리스도 아래 영적 유기체로 조직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엡 6:10-17).

11. ㉠ 웃시야의 국방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웃시야의 정책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경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참조, 출 14:13-28; 수 6:1-21; 삼상 7:7-11).
- (3)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참된 부흥이 있다(참조, 숙 4:6; 4:13).

12. ㉠ 웃시야가 강성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가? (16-19절)

- ㉠ (1) 웃시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해졌기에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해야 할 때에 도리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 (2) 웃시야의 선조들이 범한 죄는 여호와와의 성전을 버린 것 (25:14)이었다. 그러나 웃시야의 죄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분향하려 했다는 점이다.

- (3)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뛰어난 열심과 봉사를 가장하려고 하다가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이다.
- (4) 이처럼 경건했던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질 때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된다.
- (5)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의식을 엄히 책망하셨다(마 23:25-28; 눅 20:45-47).

13. **㉠** **웃시야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이 왜 죄가 되는가? (18절)**

- ㉠** (1)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맡은 고유의 임무였다(민 18:1-7).
- (2)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에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웃시야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나머지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이다.
- (3) 결국 웃시야의 이런 행위는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빼앗은 행위와 같았으며(삼상 13:8-15) 또한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의 결과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는 것을 어떤 크고 아름다운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삼상 15:22).
- (5) 우리도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

14. **㉠** **분향하는 죄를 범한 웃시야는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19-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빼앗으려는 웃시야를 친히 그 손으로 치셔서 문둥병이 들게 하심으로 징벌하셨다(참조, 출 30:1-10).
- (2) 이것은 웃시야의 처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고하셨음을 나타내어 준다. 그리하여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역사(役事)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대하여 패역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당신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는 엄한 벌을 내리신다(20절).

15. **㉠** **하나님께서 웃시야를 문둥병으로 징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하나님의 징벌은 웃시야의 죄에 대하여 적합하게 주어졌다. 웃시야의 범죄한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치를 주어 그의 교만을 꺾으려 하셨다.
- (2) 또 그가 제사장을 경멸하여 그들의 직분을 침범하였으므로 문둥병을 통하여 제사장의 감찰과 처사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셨다. 문둥병을 판별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었다(신 24:8).
- (3) 웃시야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문둥병에 걸리므로 '성전의 뜰'에서조차 쫓겨 났다.

16. **㉠** **웃시야의 범죄와 징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21절)**

- ㉠** (1) 웃시야는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제사장직의 권위를 침해했다. 때문에 그는 그의 권리에 속한 왕권마저 박탈당했다(21절).
- (2) 금지된 영역을 탐내는 자는 허용된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 아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침범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 6:6).

제 27 장 요담이 정도(正道)를 행하다

단락구분 1-2 요담의 치세 / 3-4 요담의 건축 / 5 암몬 자손의 조공 / 6 요담의 정도(正道) / 7-9 요담의 죽음

1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른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2 요담이 그 부친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3 저가 여호와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증축하고

4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하고

5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

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일백 달란트와 밀 일만 석과 보리 일만 석을 드렸고 제 이 년과 제 삼 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6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7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8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십 른 년이라

9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요담의 치적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서는 유다의 11대 왕 요담의 통치가 9절에 걸쳐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2) 요담은 부친 웃시야의 옳은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건축 사업에 힘쓰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공(朝貢)을 받게 되었다(1-5절).
 (3) 요담이 점점 강하여진 이유는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正道)를 행했기 때문이다(6절). 이러한 요담의 사적(史蹟)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후대 왕들에게 교훈이 되었다(7-9절).
 (4) 우리는 본장에서 다음의 교훈을 받는다. 즉 피지도자들이 사악(邪惡)을 행할지라도(2절) 지도자가 경건하여 정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단체는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다(6절).

2. ㉠ 요담의 재위 연대는 어떠한가? (1 절)

- ㉠ (1) 요담은 25세에 유다 11대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B. C. 751-736). 그의 모친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사독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대상 6:12).
 (2) 요담은 부왕 웃시야가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거할 때부터 섭정 왕으로 즉위하여 12년 간을 통치한 후 (26:21) 웃시야가 죽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단 3년 만 통치했다.
 (3) 요담의 선왕들(웃시야-아마샤-요아스)은 초기에 선정을 하다가 말기에 타락하여 오점을 남기기를 되풀이 하였다.
 (4) 그러한 가운데 즉위한 요담이 비록 짧은 생애(41세)를 살았지만 선조들의 후기 실정을 반복하지 않았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5) 요담의 선정은 그의 손자인 히스기야에 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3. ㉠ 요담의 치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 (2 절)

- ㉠ (1) 요담은 그 부친 웃시야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 (2) 그러한 요담은 부친의 잘못된 것까지 그대로 따르려 하지는 않았다. 즉 그의 부친처럼 분향하러 여호와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3) 그러므로 요담은 옷시야가 성전에서 범죄하기 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던 것을 본받았다는 것이다(26:4).
- (4)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자요 존경하는 자라도 그들의 장점 이외에는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일을 거울삼아 더욱 신중히 행하여 그들의 걸림들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전 10:11).

4. **㉠** ‘여호와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란 무슨 뜻인가? (2절)

- ㉠** (1) 요담은 그의 부친 옷시야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며 분향하다가 범죄한 일(26:16)을 경고삼아 성전에 들어가는 무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2) 이처럼 요담은 자기 부친의 좋은 점을 본받아 행했으나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여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5. **㉠** ‘백성은 오히려 사악(邪惡)을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사악을 행하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세히툼)은 ‘부패하게 행하였다’(KJV, did corruptly) 혹은 ‘타락한 행위를 계속했다’(NIV, continued their corrupt practices)로도 번역될 수 있다.
- (2) 열왕기는 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했다(왕하 15:35).
- (3) 이런 사실은 비록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백성들은 그 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므로 도덕적 타락이 심했음(참조, 사5:7; 미1:5)을 가리킨다.
- (4) 백성의 부패와 타락이 산당이란 장소를 통해서 발생하였음을 볼 때 요담은 성전을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제해 버렸어야 했다.
- (5) 오늘날의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는 선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는 일에는 충분한 용기와 열의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 (6) 본문 말씀은 지도자가 한계성을 가진 가운데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 지도자로 인하여 그 단체가 발전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6절).

6. **㉠** 요담은 어떠한 것들을 건축하였는가? (3, 4절)

- ㉠** (1) 요담은 제일 먼저 그가 수리하고 꾸미던 ‘여호와와의 전 윗문’(성전의 북문)을 건축했다. 이것은 부친 옷시야의 일로 경고를 받아 요담이 성전을 존중하게 대했음을 나타낸다.
- (2) 그 후에 그는 오벨 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도 성읍을 건축했으며, 견고한 영채(營寨)와 망대를 건축하여 그 부친 옷시야의 요새 쌓는 일을 계승했다(26:9, 10).
- (3)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부흥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완전한 것을 회복하고 다음에 성도들간의 관계가 건축물처럼 견고해지도록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2:22)로 인정되어진다.

7. **㉠** ‘오벨 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 (1) ‘오벨’이란 성전 언덕의 남동쪽 비탈에 위치한 요새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33:14; 느3:26, 27).
- (2) 따라서 ‘오벨 성’은 그 장소에 있었던 다윗의 옛 도성의 일부를 말한다.

8. **㉠** 요담이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고 또 영채와 망대를 건축한 목적은 무엇인가? (4절)

- ㉠** (1) 요담이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한 목적은 유다의 국방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 (2) 영채는 병영(兵營)과 같은 말이지만 특히 더 견고한 요새를 가리키고 망대는 적의 상황이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탑을 가리킨다(26:9).

- (3)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자신들이 세운 방벽들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였다(참조, 호 8:14; 암 5:11).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방어벽을 쌓아야 하지만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 18:1, 2; 121:1-8; 127:1).

9. **㉠** 요담이 암몬 자손을 이기고 조공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5 절)

- ㉠** (1) 건축 사업과 같이 이 전쟁은 웃시야 사업의 계속이었다.
 (2) 암몬은 웃시야 때에도 조공을 바쳤었다(26:8). 그러나 웃시야의 범죄 후 유다가 악화된 틈을 타서 반역을 시도했던 것 같다. 그들은 당시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략하는 틈을 타서 독립을 찾으려 했다(왕하 15:37).
 (3) 그러나 요담은 다시 그들을 정벌하고 더 무거운 조공을 최소한 3년간 부여했다. 은 100 달란트와 1만석과 보리 1만석은 인구가 적은 암몬국에게는 대단한 부담이었다.
 (4) 이러한 요담의 승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도(正道)를 행했기 때문이다(6절).
 (5) 성도들이 강해지는 비결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하였다(참조, 느 8:10; 시 37:4).

10. **㉠** 요담에 이어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던 것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9 절)

- ㉠** (1) 요담은 '전쟁과 행위'에서, 즉 국외적인 일과 국내적인 일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되어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그 업적이 열왕기에 기록되었다(7 절).
 (2) 그러한 요담에 이어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다(9 절). 아하스는 모든 면에서 요담과 대조적이라 할 정도로 시종 일관(始終一貫)하나님을 떠나는 통치를 하여(28:6) 많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
 (3)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선용하던 재산과 권력이 어리석은 자에게 물려지게 되면 그 재산과 권력은 오히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해가 되어 비극이 생기게 된다.

본장의 요절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正道)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6절).

제 28 장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하다

단락구분 1-4 아하스의 즉위와 우상 숭배 / 5-7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 8-15 이스라엘이 오렛의 예언을 듣고 유다 포로를 돌려보내다 / 16-21 아하스가 앗수르 왕을 헛되이 의지하다 / 22-25 곤고할 때 아람의 신을 섬기다 / 26-27 아하스의 종말

1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육 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2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4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5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 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가 쳐서 크게 살륙 하였으니

6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십 이만 명을 죽였으며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내대신 아스리감과 총리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이십 만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9 그 곳에 여호와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렛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12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

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13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14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들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6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17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18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벵세메스와 아얄론과 그테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담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19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행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0 앗수르 왕 디글랄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21 아하스가 여호와와 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22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

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궤 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25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

발케 하였더라

26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27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아하스의 악정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은 요담의 아들 유다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에 관한 기록이다.
 (2) 아하스의 통치는 매우 사악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3) 즉 그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에 광적(狂的)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입을 통해 범죄한 아하스와 유다 왕국을 징계하셨다.
 (4) 그러나 아하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보다는 앗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람 신을 섬기는 등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다 죽고 말았다.
 (5) 본장에서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더욱 멀리 도주하다 망해 버리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참조, 사1:4, 5).

2. ㉠ 아하스 통치에 있어 나타난 특징적인 죄악들은 무엇이 있는가? (1-4절)

- ㉠ (1) 아하스는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본문에는 그러한 아하스의 주요한 죄악들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2) 아하스는 다윗의 길에서 떠나(1절)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했고(3절) 산당과 숲속의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4절).

3. ㉠ 아하스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는가? (1절)

- ㉠ (1) 본서 20장에서 4대 왕 여호사밧이 죽은 후 26장의 10대 왕 웃시야 때까지 약 100년간 유다 왕가는 연속적으로 수난을 당해 왔다.
 (2) 그러나 11대 요담 왕에 이르러 경건성을 회복하여 유다 왕국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을 받았다(27:6).
 (3) 그러므로 아하스는 부친이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훌륭한 일을 할 배경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4) 그러나 아하스는 전혀 기대에 어긋난 통치를 했다.

4. ㉠ 아하스의 재위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 (1) 본절에 아하스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을 치리하고 36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아하스의 재위 연대는 왕하 16:2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 그런데 아하스에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가 25세에 즉위했다(29:1). 그렇다면 아하스는 11세에 히스기야를 낳은 셈이 된다.
 (3) 어떤 학자는 70인역과 시리아 역을 따라 아하스의 즉위 때 나이는 25세라고 주장하기도 하고(Lange) 30세라고도 주장한다(Hitzig).
 (4) 그러나 본문의 재위 연대가 왕하 16:2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때 아하스가 아비아와 조혼(早婚)하여 히스기야를 낳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대하여 뜻하신 바가 있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

5. ㉠ '헌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3절)

- ㉠ (1) 이 말은 성경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으로 처음 언급되었다(수 15:8; 18:16).
 (2) 이 골짜기에는 도벳 유적지가 있는데, 이곳은 전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몰래 우상에게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어린아이를 제사하던 곳이기

도 하다(33:6).

- (3) 예레미야는 이곳을 ‘살륙의 골짜기’ (렘 7:29-34) 라고 불렀다. 화염이 이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피어 올랐고 그래서 이곳은 멸망의 장소를 상징하게 되었다.
- (4) 나중에 요시아 왕은 힌놈의 골짜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내어 버리는 오물 처리 장소로 만들어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 하였다(왕하 23:10).
- (5) 신약에서 지옥이란 단어 <게헨나>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죄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마 5:29), 이 단어는 히브리어 <게헨놈>(힌놈의 아들 골짜기)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다.

6. **㉠**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죄악에 대해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5-7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죄악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자 아람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격동시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셨다.
- (2) 먼저 아람 왕에 의해 심히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포로되어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 하루에 12만 명이 살륙당했으며 왕자를 포함한 궁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 (3) 이렇게 심히 많은 무리가 희생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아하스와 유다의 죄악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7. **㉠** 아하스 때에 벌어진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입으로 나타난 참극은 요담 시대 때와 비교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6절)

- ㉠** (1) 유다 왕 요담 시대에 비록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27:2) 그 왕의 선함 때문에 그 나라는 강하여졌고(27:6) 평안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유다 백성이 선한 왕을 잃고 악한 왕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을 지켜 주던 것은 모두 사라지고 심판의 물결이 그들에게 몰아쳐 왔다.
- (3) 지난 시대의 행복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당하는 비극을 통해 그때의 행복의 귀중함을 배울 수 있게 된다.

8. **㉠**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나 살륙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6, 7절)

- ㉠** (1)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하스 12년에 즉위한 호세아 왕 때에 앗수르에게 패망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왕하 17:1-6) 국력이 매우 쇠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 (2) 만일 유다 사람이 죄악으로 인한 가책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낙담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존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단 하루 동안에 살해될 수 없었을 것이다.
- (3) 그 용맹하던 자들도 12만 명이라는 단지 ‘살해당한 수량(數量)’으로 계수되었고 힘없이 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 (4)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6절).
- (5)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보다 더 약해질 때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15:5).

9. **㉠**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거민 20만 명을 사로잡아 간 것은 어떤 행위인가? (8절)

- ㉠** (1) 이스라엘 자손은 형제 관계인 유다 민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시켰고 또 재물까지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 갔다.
- (2) 그들은 이미 유다 백성을 12만이나 살륙한 바 있는데 이러한 포로와 재물 약탈 행위는 지나친 행위였다.

(3)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와 선지자 오벳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되었다(9절).

10. **㉠** 선지자 오벳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떻게 책망했는가? (9-11절)

- ㉠** (1) 이 기록은 왕하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벳이란 선지자도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다. 오벳은 호세아처럼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활동한 참 선지자였다.
- (2) 오벳은 노략물을 잔뜩 싣고 의기 양양하여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칭찬과 축하 대신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 주고 징벌을 경고했다.
- (3) 오벳은 북왕국이 남왕국의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10절). 그리고 그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을 명령했다(11절). 그러면서 유다를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진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11절).

11. **㉠** 우리는 오벳의 예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9절)

- ㉠** (1) 오벳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승리는 그들에게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 주었다.
- (2) 오직 여호와께서 '유다에 진노하신고로' 이스라엘을 진노의 채찍으로 삼으셨을 뿐이다.
- (3) 마치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었던 것과 같다(신 9:5).
- (4) 그러므로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했다(롬 11:20, 21).

12. **㉠** 오벳이 예언한 후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4명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떻게 권면했는가? (12, 13절)

- ㉠** (1) 그 4명의 이름은 아사라, 베레가, 여히스기야, 아마사이다(12절).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그들이 경건한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후세에 기억될 만한 자들임을 보여 준다.
- (2) 그 두목들은 오벳의 예언에 동조하여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와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이미 징벌받을 만한 죄 범한 것을 인정하며 범죄를 더하지 말자고 권면했다(13절).
- (3) 여기에서 그들은 선지자가 들려 준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을 가지고 복종하는 신앙과 형제들에게 대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4) 그리스도께서는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송사하는 자와 사화(私和)하라고 하셨다(마 5:25, 26). 그리고 결산을 앞둔 악한 청지기가 행한 탕감의 행위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다(눅 16:1-8).
- (5) 우리는 심판받을 세대에서 행할 일을 발견해야 하겠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13. **㉠** 오벳과 네 방백의 말을 들은 군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4절)

- ㉠** (1) 군사들은 병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칼로 얻은 권리를 강제로라도 보존할 수 있었으나 선지자와 방백들의 뜻에 순응하여 포로와 노략물을 내어 놓았다(14절).
- (2) 이로써 그들은 포로들을 사로잡을 때와는 달리 참된 용감성을 보여 주었다.
- (3) 누구에게나 자기의 이익을 무시하고 이성(理性)과 믿음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지극히 영예로운 일이다.

14. **㉠** 아하스가 앗수르 왕을 의지한 결과 어떠했는가? (16-21절)

- ㉠** (1) 아람과 북왕국의 침입에 이어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노하였다(17, 18절).
- (2) 이에 아하스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했다(16절). 그는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재물을 취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앗수르 왕은 돕기는

커녕 도리어 곤박(窘迫, afflict, '압제하다'란 뜻)하였다.

- (3) 유다가 처한 환난의 원인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써 여호와께서 환난을 주신 것인데 여호와께 회개하여 돌아오지는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은 심히 어리석은 처사이다.
- (4) 아하스는 선조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다(20:5-13; 6:28-30).

15. **㉠**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22-25절)

- ㉠** (1)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칠수록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꿇기는 커녕 더욱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했다.
- (2) 아하스는 이방 왕에게 의지하더니 이제는 이방 신(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청했으나 오히려 그 신은 그를 망하게 하였다(23절).
- (3)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하스처럼 망할 뿐이다.
- (4)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 이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영혼도 심히 떨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욱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보라(시 6:3-7).
- (5)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님은 환난받은 자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사 31:6; 렘 3:12; 욥 2:12; 습 1:3).

16. **㉠** 아하스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26, 27절)

- ㉠** (1)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하던 아람 열왕의 신에게 망함을 당하고 말았다(23절). 아하스의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은 결국 그를 유다 왕좌에서만 아니라 열왕의 묘실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 (2) 아하스가 열왕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불명예스런 죽음을 의미한다.
- (3) 아하스처럼 자기의 왕권을 파괴에 사용한 왕이 다른 유다 왕들과 같이 매장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장의 요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그 악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5절).



제 29 장 히스기야가 시행한 성전 정화 운동 (聖殿淨化運動)

단락구분 1-2 히스기야의 즉위 / 3-11 즉위 원년에 레위인들에게 성전 정화를 명하다 / 12-19 성전 정화를 시행하다 / 20-24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다 / 25-28 찬송을 드리다 / 29-30 엎드려 경배하다 / 31-36 감사제를 드리다

1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구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2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3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5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6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8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9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10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 내 아들들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시라 그 앞에 서서 수종들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2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렘렘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13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라와 맛다냐와

14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

의 자손 중 스마야와 웃시엘이라

15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명한 것을 좃차 여호와와 전을 깨끗케 할새

16 제사장들도 여호와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와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도른 시내로 가져갔더라

17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와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안 여호와와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십륙일에 이르러 마치고

18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케 하였고

19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와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20 히스기야 왕이 일찌기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21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과 어린 양 일곱과 수염소 일곱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와 단에 드리게 하니

22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으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23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24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라

25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

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26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27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와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물 마치고까지 이르니라
29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30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31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케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와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

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32 회중의 가져 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칠십이요 수양이 일백이요 어린 양이 이백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33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육백이요 양이 삼천이라
34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35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와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36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여 예비 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1. **㉠** 히스기야가 시행한 성전 정화의 과정을 설명하라.

- ㉠** (1) 본장은 유다 3대 성군(聖君-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중의 한 사람인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29-32장) 중 첫째 부분이다.
 (2)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들을 열고 레위인들을 동편 광장에 소집하여 성전을 성결케 하도록 간곡히 권했다(1-11절).
 (3) 이에 레위인들 중 14명이 주동(主動)이 되어 형제들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16일 만에 성전 정화를 마쳤다(12-19절).
 (4) 그렇게 성전이 깨끗하여졌을 때 히스기야는 귀인들을 모아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제를 드려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다.
 (5) 이렇게 히스기야의 선정(善政)은 성전을 깨끗케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개혁의 바른 방향을 보여 준다.

2. **㉠** 히스기야가 요아스나 요시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절)

- ㉠** (1)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다(B. C. 725-697).
 (2) 두 왕의 나쁜 통치가 지난 후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는 즉위 당시 겨우 일곱 살에 불과했다(24:1). 요시아도 역시 2대에 거쳐 나쁜 왕이 지난 후에 즉위했고, 그때의 나이는 겨우 8세였다(34:1). 따라서 개혁하는 일은 늦어지게 되었다.
 (3)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이가 들었으므로 곧 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동안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불경건에 대해 그리고 유다가 당하는 재난에 대해 심히 가슴 아파했다(6-10절).
 (4)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면 그 비탄스러운 일을 바로 잡으리라고 생각했고 그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5) 그리하여 히스기야 재위 29년 동안에는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 유다 왕국을 빛나게 했다.

3. **㉠** 히스기야의 일반적 성품은 어떠했는가? (2절)

- ㉠** (1)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2) 그의 조상들 가운데 정직히 행하였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으나 '다윗처럼'

행하였다고 기록된 왕은 4대 왕 여호사밧(17:3)과 16대 왕 요시아(34:2), 그리고 본문
의 히스기야 등 세 명뿐이다.

- (3) 이 세 명을 유다의 3대 성군(三大聖君)이라 부른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
님의 율법과 법례와 성전에 대해 참된 사랑을 지녔던 왕이었다.

4. ㉠ ‘여호와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시종 일관 악정(惡政)을 계속하는 가운데 금기야는 성전
문을 닫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일마저 금지시켜 버린 적이 있었다(28:24).
(2)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 제일 먼저 그 성전 문을 열어 놓았다.
(3) 이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에
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려는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4) 이처럼 잘못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5)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엡6:1). 비록 부
모의 완고함으로 가정에 신앙의 문이 닫혀졌더라도 지혜로운 자녀는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5. ㉠ 히스기야는 성전 동편 광장에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
가?(5-11절)

- ㉠ (1) 히스기야는 성전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성전 동쪽 문 앞, 즉 성전
기지 밖에 있는 광장(참조, 스10:9)으로 소집했다.
(2) 그리고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한 후 성전을 성결케 할 것을 명했다(5절).
(3) 또한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
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권고했다(6-11절).
(4) 이렇게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가 쇠하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8,9절), 국가의 정무
를 회복하는 것보다 성전을 중심한 국가의 신앙 회복을 급선무로 삼았다.
(5)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시작하는 자는 올바른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따
라서 그 사업은 분명히 번영하게 될 것이다.

6. ㉠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 청결과 참된 제사의 복구를 명령할 때에 그
는 먼저 레위인 자신들부터 청결케 하라고 명했다.
(2) 즉 그들이 의무에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고, 그들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바로 잡고, 앞으
로는 그들의 의무를 좀더 잘 행할 것을 다짐하라는 의미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일을 하려는 사람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죄
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7. ㉠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의 이유를 어떻게 말하였는가? (6-9절)

- ㉠ (1) 히브리 원문을 보면 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가 나오므로써
6절 이하가 이유를 설명하는 귀절임을 밝혀 준다.
(2) 즉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써 이방 군대의 침입이 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그러므로 유다에 닥친 재앙은 국력이 약해서 혹은 정치를 잘못해서 임했던 것이 아니
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긴 때문에 임했다는 뜻이다.
(4) 이것은 오늘날 택함받은 교회와 신자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다. 교회나 어
떤 기독 단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다.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
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8. **㉠**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다 함은 무슨 뜻인가? (10절)
㉠ (1)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합의한 것이다.
 (2)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분만을 섬길 것을 확고히 결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3) 이로써 히스기야는 자신이 몸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에 앞장서서 믿음을 회복하여 발전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알렸다.
 (4) 이러한 지도자를 순종할 때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9. **㉠**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했는가? (11절)
㉠ (1) 히스기야는 자신이 레위인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2) 그렇기 위해 그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즉 레위인은 게으리 행하거나 권세를 즐기거나 의무를 회피하라고 태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어 섬기게 하기 위해 태함받은 자들이었다.
 (3)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아 반성하고 성전 문이 다시 열리게 된 이때부터는 더욱 근면하게 임무에 충실해야 했다.
10. **㉠**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2-14절)
㉠ (1) 히스기야의 성전 청결 명령을 듣고 레위인들이 일어났는데 본문에 그들 14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2) 그들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그핫, 므라리, 게르손)에서 각 2명씩 6명, 엘리사반의 가문에서 2명, 음악을 맡은 세 가문(아삽, 헤만, 여두둔)에서 각 2명씩 6명으로 구성되었다.
 (3) 엘리사반 혹은 엘사반은 웃시엘의 자손으로(출6:22) 모세 시대 그핫 가족의 족장이었다(민3:30). 엘리사반의 자손은 일반 그핫 자손과 별도로 취급되었다.
 (4) 그 1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종 족		이 름
레위 3가(家)	그 핫	마핫(아마새 아들), 요엘(아사랴 아들)
	므 라 리	기스(압디 아들), 아사랴(여할렐렐)
	게 르 손	요아(심마 아들), 예텐(요아 아들)
엘리사반		시므리, 여우엘
음악가(家)	아 삽	스가랴, 맛다냐
	헤 만	여우엘, 시므이
	여 두 둔	스마야, 웃시엘

- (5) 우리는 이들이 단지 그 직책상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오직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성적이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6)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친히 그 일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신다. 직책이나 지위가 높은 자라고 해서 어떤 일이나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1. **㉠** 그들은 어떻게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하였는가? (15절)

- ㉠** (1) 그 레위인들은 자신들도 분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모았고 함께 자신들을 성결케 한 후 성전에 들어 갔다.
- (2) 그리고 그들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좇아 성전 청결 운동을 시작했다. 즉 그들은 왕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에 입각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 (3)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의무가 된 것만을 명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왕의 명령을 자극제로 삼아 분발하였던 것이다.
- (4)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온 명령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동역자들을 모으게 하고 함께 분발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12. **㉠** 레위인들이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5-19절)

- ㉠** (1)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합세하여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일이 1월 1일에 시작하여 1월 16일에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과 기구들을 성결케 하였다고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18, 19절).
- (2) 이런 성전의 정화 작업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성전까지(고전 3:16) 포함하는 진정한 개혁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성전 청결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 전체의 역사적인 회개와 신앙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이같이 새 것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질서대로 복구하는 이 성전 청결 운동이야말로 당시 유다 국가에 요구되는 종교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오늘날의 혼탁한 사회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변혁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회와 교회의 개혁은 있을 수 없다.

13. **㉠** 히스기야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는가? (20-24절)

- ㉠** (1) 히스기야는 일찌기 일어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수염소를 준비하여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
- (2) 이 속죄 제물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모세 율법을 따라 방백들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레 4:13, 14; 민 15:24, 25).
- (3) 이러한 속죄제는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해 민족 전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 (4) 우리 신자들도 각자의 죄를 사하며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늘 돌려야 한다(히 12:2).

14. **㉠** 제물들을 각 종류 별로 7마리씩 바친 것은 무슨 의미인가? (21절)

- ㉠** (1) 율법은 속죄일이나 특별한 날에 드리는 속죄제는 단 한 마리의 수염소를 바치도록 명하였다(레 16:15; 민 15:24).
- (2) 그러나 여기서는 7마리나 제물로 바쳐졌다. 그것은 회중의 죄가 매우 오랫동안 크게 범해진 때문이었다.
- (3) '일곱'은 완전한 수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제가 될 것을 가리켜 준다.

15. **㉠**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릴 때 찬송과 경배를 드렸던 것은 무슨 뜻인가? (25-30절)

- ㉠** (1) 히스기야는 다윗 시대에 선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임한 계시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 악기와 시로 찬송케 하고(25-28절) 제사를 마친 후에 왕과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했다(29, 30절).

- (2)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행한 예배 제도의 개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경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 (3) 예배 제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固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대 교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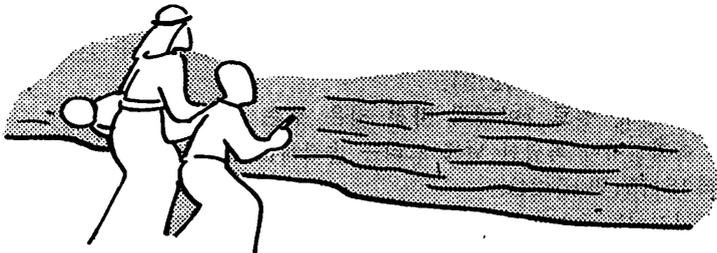
16. **㉠** 속죄제를 드린 이후 온 회중들이 바친 감사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1-35절)

- ㉠** (1)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찬송과 악기 소리와 함께 속죄제를 드린 후(20-30절) 히스기야는 회중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사제 바칠 것을 명했다.
- (2) 이렇게 하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 수소 70, 수양 200, 어린 양 200을 가져왔고 그 외에 구별된 제물이 소 600, 양 3,000이었다(32, 33절).
- (3) 감사제(혹은 화목제, 레 3:1)는 속죄제에 연속된 의미를 갖는다. 즉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으로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화목되기 위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다.
- (4)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와의 교제를 통해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린 다음,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의 예물을 그의 전(殿)에 드려야 한다(참조, 고후 8:1-5).

17. **㉠**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誠心)이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이 귀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보다 일반 레위인들이 더 열심이였다는 말이다.
- (2) 이는 일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더 열심이고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도자, 특히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돌아오지 못한다.
-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직무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양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레 1:5, 6).

본장의 요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16절).

제 30 장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절기

단락구분 1-5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하다 / 6-9 보발군이 왕의 명령을 전국에 전하다 / 10-12 비롯한 사람들과 감동된 사람들 / 13-16 무교절을 지키다 / 17-20 성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 21-24 7일을 지킨 후 또 7일을 지키다 / 25-27 온 회중이 즐거워하다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 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4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5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래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6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7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8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끈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케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 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10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11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13 이 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14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15 이 월 십 사 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와 전에 이르러

16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17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니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칠 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3 온 회가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 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24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일천과 양 칠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일천과 양 일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25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 하였으므로

26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와 거룩한 천사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히스기야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준수의 명령을 반포하고 14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지키기로 되어 있으나(출 12:18) 성전 정화가 1월 16일에 마쳐졌으므로 한 달 늦은 2월 14일부터 지켜졌다.
- (3) 이렇게 지키진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실에 깊이 감동된 백성들은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여 이례적(異例的)으로 도합 14일간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 (4)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이래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활은 더욱 풍성해지며 기쁨이 넘치게 된다.

2. ㉠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편지를 어느 곳에 보냈는가?(1절)

- ㉠ (1)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 (2)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란 북왕국을 가리키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에서 가장 세력이 큰 두 지파를 구별하여 가리킨 말이다.
- (3) 이렇게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 준수하는 일에 초대할 했던 것이다.
- (4) 비록 그들의 반응이 대체로 냉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은 겸비하게 그 초대에 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다(10, 11절).
- (5) 오늘날 복음을 듣는 회중들이 냉담한 자세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에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단 몇 사람의 찬동에 대하여도 감사해야 한다.

3. ㉠ 히스기야가 유월절 시기에 대하여 방백들과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2, 3절)

- ㉠ (1)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례적 절기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도록 규정했다(출 12:18).
- (2)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회복한 것은 이미 1월 14일이 지난 1월 16이었던 것이다(29:17).
- (3) 그리고 그때에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므로 유월절을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 ㉠ 유월절의 시기를 2월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4절)

- ㉠ (1) 만일 유월절을 다음 해로 연기하면 열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선한 열심도 그만큼 식어지고 성전 청결의 개혁에 대한 아쉬움도 남을 것이다.
- (2) 히스기야는 율법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냈다. 즉 제 1월에 부정한 자는 2월 14일에 지켜

도 된다는 단서였다(민 9:6-11).

- (3) 그 율법은 당시 히스기야와 회중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2월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 (4) 쇠는 달아 있을 때 쳐야 하고 백성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일하도록 해야 한다. 태만한 마음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5. ㉠ 히스기야는 어찌하여 자기의 통치 영역이 아닌 북왕국까지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하게 되었는가? (5절)

- ㉠ (1)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 까지 반포했다.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남단(南端)으로 유다 영역에 속했고 ‘단’은 북단(北端)으로 이스라엘 영역이었다.
- (2)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 통치 영역이 아닌 북왕국에도 그의 명령을 시달하였다.
- (3) 이때 이스라엘은 호세아(B. C. 732-722)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미 베가(B. C. 752-740-732) 때에 앗수르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국력이 쇠약해 있었다(왕하 15:29).
- (4)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정복보다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월절 행사에 북이스라엘을 초대한 것이다(7-9절).
-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히스기야의 신앙적 결단을 본받아 비록 우리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나쁘게 이용하지 말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 ‘보발군’ (步撥軍)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6절)

- ㉠ (1) ‘보발군’이란 히브리어로 <루쯔>로서 ‘뛰는 자’(runner)란 의미인데 왕궁의 급사(急使, courier)를 가리킨다(참조, 예 3:13, 15:8:14).
- (2)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했던 발이 빠른 자들을 말한다.

7. ㉠ 보발군들이 전한 왕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 (6-9절)

- ㉠ (1) 보발군들이 전한 편지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왕의 반포령(頒布令, 1, 5절)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밝혀 주고 있다.
- (2)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의 취지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말했다(6, 9절).
- (3)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다(8절)고 말하였다.
- (4) 아울러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멸망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목을 곧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죄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5)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 말했다(6절). 즉,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8절) 포로가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9절).

8. ㉠ 우리는 보발군들이 전한 편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6-9절)

- ㉠ (1) 보발군의 편지는 앗수르 왕에게 침입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9절) 간 후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것이다(6절).
- (2) 이것은 죄의 지배하에서 진노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잠에 빠져 있는 명목적인 신자들에게 보내어지는 편지이기도 하다.
- (3) 그리스도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셨다(마 11:28).
- (4)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신만 아니라 형제와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행 16:31).

9. ㉠ 보발군들이 그 편지를 전할 때 어떤 반응을 얻었는가? (10절)

- Ⓐ (1) 보발군들은 사마리아에 위치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니며 편지를 전하고 갈릴리 서편의 스불론까지 이르러 전했다.
- (2) 그러나 사람들은 유월절 초청의 소식에 응하기는 커녕,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 (3) 왕의 사자들은 백성들에게 경멸을 받았는데 이것은 북왕국의 패역을 나타낸다.
- (4) 그러므로 그들의 멸망은 이제 눈 앞에 임박했다.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열지파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이로부터 불과 2,3년 후에 발생했던 것이다(B. C. 722).
- (5) 만일 그들이 모두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멸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0. ⓐ 보발군의 편지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11절)
- Ⓐ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월절 초대를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 (2) 그들은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의 몇 사람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왕의 반포령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
- (3) 가장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 복음이 비록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후 2:15, 16).
- (4) 겸비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11. ⓐ 유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
- Ⓐ (1) 유월절 준수의 명령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전히 '일심'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했다.
- (2) 여기에서 '일심'으로 란 표현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힘썼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대화에 앞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한마음 한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빌 2:1-4; 참조, 행 4:24, 31, 32).
12. ⓐ '무교절'은 '유월절'과 어떻게 다른가? (13절)
- Ⓐ (1) 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게 구분하여 유월절(1월 14일) 이후 일주간을 지킨 기간이 무교절이었다(출 12:1-20).
- (2) 그러나 나중에는 이 둘을 합하여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 통칭(通稱)했다.
- (3)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감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므로 결국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3. ⓐ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14절)
- Ⓐ (1)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자 무리가 '일어나'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결케 했듯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제하여 버렸다.
- (2)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그들이 능동적으로 그 일에 착수한 것과 그들의 성결 운동이 매우 열성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 (3) 우리가 '복음의 유월절'을 예비하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우리의 죄악, 우리 영혼의 우상을 기꺼이 단호하게 내어 버리는 것이다.
14. ⓐ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2월 14일이 되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백성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제물을

준비했다.

- (2)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능가하여 더욱 준비성 있게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다.
- (3) 이리하여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였고(15절), 따라서 일을 행할 일손은 모자라지 않게 되었다.
- (4)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열심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냉담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깨달아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15. ㉠ 17-20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히스기야가 전국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유월절을 지킬 때 많은 무리가 자기를 깨끗케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말았다.
- (2) 따라서 히스기야는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했다(18, 19절).
- (3)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 여기서 고쳐 주셨다함은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다(참조, 시44:4; 호 14:4).
- (4)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식적 제도보다 마음 중심의 신앙을 보시고 의식에 있어서의 결함을 용서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다.

16. ㉠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18, 19절)

- ㉠ (1) 히스기야는 '선하신 여호와'께 기도했다. '선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선포하셨을 때 '불법과 범죄와 죄악'을 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 (2) 이어서 히스기야는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찾는 간절한 신앙이 있음을 고백했다.
- (3) 본문에 '결심하고'란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모든 경우에 진심으로 행한다는 뜻이다. 즉 철저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외적인 실수를 범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 (5) 우리가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못하고 거룩한 일에 등한히 하여 잘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간구이어야 한다.

17. ㉠ 21-27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여러 가지 인간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이 있어 무교절은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로 7일 동안 거행되었다.
- (2) 이에 온 회중은 하나님의 7일간 절기를 지키고 은혜에 감격하였고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하였다(23절).
- (3)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부흥 운동이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의가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일을 잊게 하여 그들은 '즐거이', 또한 '풍성한' 성회를 열었다(24, 25절).
- (4) 의식에 치우친 행사는 그 기간마저도 짐이 되었지만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두 배의 기간마저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된다.

18. ㉠ 성회는 어떠한 순서로 마쳐지게 되었는가? (27절)

- ㉠ (1)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엄숙한 축도로써 무교절이 마쳐지게 되었다.
- (2) 하나님께서는 이 축도(祝禱)에 응답하셨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을 때 그 제

사장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되고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다.

- (3)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분향의 구름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화보자료

무교병을 만드는 사람. 아래의 사진은 유월절을 위한 무교병을 만들고 있는 어느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떡을 먹는데 이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고전 5:6-8).

제 31 장 제사 제도의 개혁

단락구분 1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우상을 타파하다 / 2-3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다 / 4-10 레위인들의 음식을 위해 드린 성물(聖物) / 11-19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나눠 주다 / 20-21 히스기야의 형통

1 이 모든 일이 마치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점으로 돌아갔더라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와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3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4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 왔으며

6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 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7 삼 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칠 월에 마친지라

8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9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10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와 전에 드리게 시작함으로부터 우리 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1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와 전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12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13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합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합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14 동 문지기 레위 사람 입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며

15 그 수하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무론 대소하고 나눠 주되

16 삼 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 주며

17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며 이십 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18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장분을 다하는 자며 직

19 각 성읍에서 녹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20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제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을 설명하라.
 ㉡ (1) 성전을 깨끗이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다의 경건성 회복에 힘썼던 히스기야

는 본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혁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2) 그는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키고 보수 규정을 마련하여 그 직책을 안정되게 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일련(一聯)의 개혁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형통의 축복을 받고 외적(外敵)의 침입에도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 (4)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국가와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영적인 개혁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와 국가는 동일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시 1:1-3; 롬 12:1, 2).

2. **㉠ 유월절 절기를 마친 이스라엘 무리는 본성(本城)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1 절)**

- ㉠** (1) 그들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타파했고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걸쳐 있는 산당과 제단들을 제하여 멸하였으며 그 후에야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 (2) 즉 그들은 우상 숭배의 모든 유물을 파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 (3) 한편 히스기야는 이전에 이러한 우상 타파를 시행했었다(왕하 18:4).
- (4)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겨졌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상들의 잔재를 박멸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의 잔재와 산당들을 남겨 두지 않고 모두 멸하였다.
- (5) 비록 그것들이 오래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잘 수호되어 왔더라도 우상들은 모두 파괴되어야 했다.
- (6) 이처럼 진정으로 죄악과 대결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죄악과 대결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정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2 절)**

- ㉠** (1)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회복시켜 그 직임대로 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영문(성전 뜰)에서 섬기며 찬송하게 했다.
- (2) 이러한 반차는 다윗이 정해 놓았으나 그 동안 행해지지 않았었다(참조, 대상 23:6; 24:1).
- (3) 이제 히스기야에 의해 성전 의식이 전에 행하여졌던 방법대로 다시 행해지게 된 것이다.
- (4) 히스기야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일과 직책, 차례, 그리고 각자의 요망 사항 등을 알도록 했던 것이다.
- (5) 여기에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었서는 반드시 훌륭한 질서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4. **㉠ 히스기야는 번제의 재물을 어떻게 충당하기로 했는가? (3 절)**

- ㉠** (1) 히스기야는 율법에 기록된 번제를 드리는 데에 쓰기 위해 자기 재산 중 얼마를 하나님께 헌납했다.
- (2) 즉 매일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월삭,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이 짐을 지우려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담당했다.
- (3)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이요 백성들에게는 온화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
- (4) 이처럼 방백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격려하기 위하여 내어 주는 재물은 자기들에 있어서도 최상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는가? (4 절)**

- ㉠** (1) 히스기야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應食,

the portion) 을 주어 저희도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 (2) 여기에서 '웅식'이란 백성들의 소산 중 처음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것인데 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 요제물, 첫 소산, 십일조 등이다(민 18:8, 9; 신 18:3-5).
- (3)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본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다(민 18:21, 26-29).
- (4) 그런데 그들이 물질 생활에 궁핍함을 느낀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베풀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육신의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성도들을 목양(牧養)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교역자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6. **㉠**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웅식을 주도록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4절)
- ㉠** (1) 히스기야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웅식을 주도록 명하였다. 신약 교회는 그들의 담임 목사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종사하는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해야 한다.
- (2) 또한 '웅식'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생각하면(민 18:8) 교회 사역자들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7. **㉠**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는 명령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먼저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민 18:8)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었고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되어 왔었다.
- (2)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도록 했다.
- (3) 이 일은 후에 '유다 여러 성읍'으로 확산되었고(6절) 그곳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의 호응을 받아 그들이 드린 성물이 많이 남게 되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10절).
- (4)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도 그것이 곧 확산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고에 앞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친히 명령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성물(聖物)을 가져온 사실이 나타내는 의미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5-10절)
- ㉠** (1)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 순종하여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모든 것의 십일조'를 풍성히 가져왔다.
- (2) 그들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가져온 성물들을 쌓았는데 더미를 이루었다.
- (3) 이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헌신적으로 힘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매우 컸던 것을 보여 준다.
9. **㉠** 6절에서 십일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가져오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웅식이 될 십일조는 민 18:21-32에 근거한 명령이었다.
- (2)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십일조 중의 십일조를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후 그 거제물이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분깃으로 돌아갔던 것이다(민 18:28).
- (3) 그러므로 우리는 십일조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 히스기야가 성물을 쌓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7절)

- ㉠** (1)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의 곡식들을 한데 모아 더미를 쌓았는데 그 일은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
 (2) 3월은 시완 월(태양력으로 5, 6월)으로 오순절이 끼어 있으며 곡식의 추수가 끝나는 달이고 7월은 디스리 월(태양력으로 9, 10월)로 장막절과 함께 과일과 포도의 추수가 끝나는 달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은 추수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이것은 백성들이 헌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힘썼음으로 보여 준다(참조, 고후 8:3-5).

11. **㉠** 아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10절)

- ㉠** (1) 아사라는 히스기야 당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을 총괄하는 가운데 성전 직원들을 임명했다(13절). 그는 왕과 함께 종교적인 일을 대표했다.
 (2) 아사라는 사독 가문인 요하난의 아들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였다(참조, 대상 6:10).
 (3) 그는 또한 40년전 웃시아 시대에 왕이 불법으로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 왕을 책망했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여진다(26:17).

12. **㉠**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가져온 성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1-19절)

- ㉠** (1)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방을 예비하여 예물과 십일조를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할 책임자로 고나냐와 시므이를 임명하고 그들을 도울 10명을 지명하였다(11-13절).
 (2) 또 그 저장된 예물을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도록 했다. 그것을 위해 고렐을 책임자로 하여 6명의 일군을 세워서 착오없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배하게 하였다(14-19절).
 (3) 이러한 '용식 제도'의 정비(整備)에 의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4) 신약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본받아 복음 전도자가 물질적인 생활에 얽매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마 10:10, 11; 롬 15:27; 딤후 5:18).

13. **㉠**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예물을 보관케 한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1-13절)

- ㉠** (1) 십일조와 예물들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무더기로 방치해 두어 낭비하거나 횡령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성전 안에 방을 예비하여 잘 보관하도록 했다.
 (2) 그는 또한 그 물건들을 보살필 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좁벨레와 녹'이 그것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도둑'이 침입하여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다.
 (3) 이렇게 히스기야가 들어온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여 보호하는 행위는 백성들이 헌물하는 것을 격려해 주었다.
 (4) 이처럼 백성들은 그들이 바친 물건들이 잘 절약되고 잘 사용될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14. **㉠** 고렐과 그를 돕는 6명의 직임자들은 성전 창고에 있는 성물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11-19절)

- ㉠** (1)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반차대로 무론 대소하여 지정된 성물을 나눠 주었다.
 (2) 특히 일을 착오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 족보(族譜)에 기록된 대로 나눠 주었다.
 (3) 분배의 대상은 제사장은 3세 이상 레위인은 20세 이상이었으나 아내와 자녀에게도 나

누어 주어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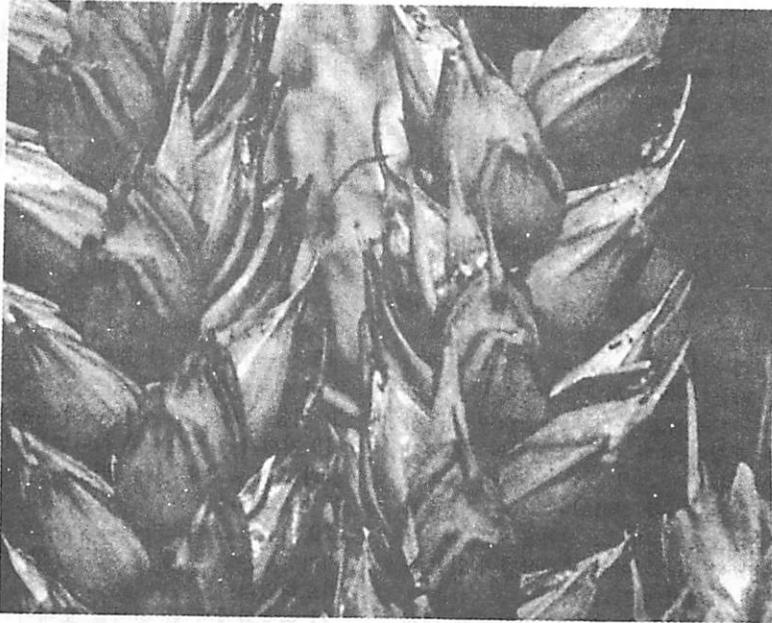
- (4) 이렇게 성직자들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가족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그들의 가족에게도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15. **Q**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칭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0절)

- A** (1) 선은 악의 반대이고 정의는 불의의 반대이고 진실은 거짓의 반대이다.
 (2)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착하고 옳고 진실하게 정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
 (3)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란 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나타낸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다.

화보자료

밀 이삭. 아래의 사진은 팔레스틴의 가장 중요한 곡물인 밀이 잘 자라서 이삭이 패인 모습이다.



팔레스틴의 주산물로서는 포도, 올리브, 곡식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는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시 104:15, 욕 2:19). 또한 성경의 많은 은유적 표현들도 농업과 관련된 것이 많다(속 8:12; 요 15:1). 팔레스틴에는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하여 물을 저장하여야 했으며(대하 26:10), 동쪽의 사막으로부터 열풍이 불어 왔고(사 27:8; 호 13:15) 메뚜기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신 28:42; 욕 1:4). 이러한 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고 은혜스러운 것이었다(5, 10절).

제 32 장 히스기야의 승리와 영광

단락구분 1 앓수르 왕 산헤림의 침입 / 2-8 히스기야의 방비(防備) / 9-19 산헤림이 하나님을 훼방(毀謗)하다 / 20-23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 24-26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다 / 27-31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 / 32-33 히스기야의 죽음

1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2 히스기야가 산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4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앓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땅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말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앓수르 왕과 그 좃는은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9 그 후에 앓수르 왕 산헤림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10 앓수르 왕 산헤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의하느냐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피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앓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립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

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느냐

14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너희 하나님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15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피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겠느냐 하였더라

16 산헤림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17 산헤림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8 산헤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19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훼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훼방하듯 하였더라

20 이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앓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앓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22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앓수르 왕 산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

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24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26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 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27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은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은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30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좇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31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32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3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그 영적 교훈을 설명해 보라.

- ㉠ (1) 본장은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에 대한 히스기야의 승리와(1-23절) 그 후 히스기야가 누린 부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24-33절).
- (2)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예로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해 주어졌다(20,21절). 그리고 그의 막대한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29절).
- (3) 즉 히스기야가 국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정치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다의 방패가 되어 히스기야의 국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참조, 마6:33).

2. ㉠ 앗수르왕 산헤립은 어떤 사람인가? (1절)

- ㉠ (1) 산헤립(Sennacherib)은 신앗시리아 제국이 근동 지방에서 권세와 지배를 누릴 당시의 왕(B. C. 704 - 681)이었다.
- (2) 그는 살만에셀 5세(B. C. 726 - 722)에 이어 사마리아 함락을 완료시켰던 사르곤 2세(B. C. 722 - 705)의 아들이었다.
- (3) 한편 산헤립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능이 있어서 많은 원정을 했다. 현존하는 당시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그는 메대(Media), 우라르투, 길리기아 등으로 원정을 나냈다.
- (4) B. C. 701년경 산헤립은 서쪽으로 진출하여 베니게와 블레셋의 동맹군을 치고 애굽의 구원병까지 엘테케(Eltekeh)에서 격파하였으며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온 땅을 점령했다.
- (5) 본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을 공략하던 산헤립의 군대가 어떻게 파멸되었는가의 경위를 밝혀 주고 있다.

3. ㉠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는 서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문구는 31:20,21에 연결되는 것으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성전 정화, 유월절 시행, 제사장 음식 제도 설치)을 통해 여호와께 충성스럽게('진실'이라는 뜻) 행한 후에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았다는 말이다.
- (2) 즉 이 말은 '이 일들이 견고히 이루어진 후에' 라는 의미로 앗시리아의 침입이 실패할 것이라는 저자의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3) 동시에 이 귀절은 30,31장에 진술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완성된 것을 가리킨다. 저자는 그것을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 (4)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확립되면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 (5)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는 사단을 당해낼 수 없으나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창 3:15).

4. ㉠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침입을 맞이하여 어떻게 대응(對應)하였는가? (2-8절)

- ㉠ (1) 히스기야는 먼저 자기의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했다(3절). 그리하여 성 밖에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서 산헤립의 군대로 식수난(食水難)에 부딪히게 하였다(4절).
- (2) 그리고 성을 다시 보수하고 무기를 보충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방비를 튼튼히 했다(5절).
- (3) 그러나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군대들을 세우고 온 무리를 성문 광장으로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했다(6-8절).
- (4) 이러한 히스기야의 대응책은 그의 부친 아하스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아하스는 외침(外侵)을 받을 때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였으나(28:16, 23)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대책을 세우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대응책도 헛된 것이 되어 버린다(시 127:1).

5. ㉡ 물 근원을 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 4절)

- ㉡ (1) 팔레스틴 지방은 연평균 강우량이 500mm내외로 비교적 건조한 지방이다.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부대에 물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식수로 사용했다(참조, 창 21:14).
- (2) 그러므로 군인들에게 있어서 식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그의 참모들은 앗수르 군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식수 단절을 시도했던 것이다.
- (3) 이때 유다 군사들은 많은 백성들의 협조로 성 밖으로 흐르는 모든 수로(水路)를 막고 대신 땅 속으로 흐르도록 하여 새로운 지하수로를 거쳐 성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
- (4) 이러한 히스기야의 유적들이 현재에도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준다.

6. ㉢ ‘다윗 성의 밀로’란 무엇인가? (5절)

- ㉢ (1) ‘밀로’는 예루살렘 근처의 요새 혹은 성채(城砦)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기존 밀로를 증축한 것이었다(왕상 9:15, 24; 11:27).
- (2) 이것은 전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둘러 쌓아 ‘다윗 성’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삼하 5:9; 대상 11:8).
- (3) 한편 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밀로궁’(왕하 12:20)도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다.
- (4)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역사를 지닌 밀로 성을 견고하게 중수(重修)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채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7. ㉣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한 말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7, 8절)

- ㉣ (1) 당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들어오는 산헤립의 군대는 근동의 열국을 정복한 여세를 몰아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점령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했다.
- (2)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며 권고하였다. 여기서 같은 의미의 밀이 네 번이나 반복된 것은 히스기야의 강한 확신과 더불어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 준다.
- (3)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로서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4) 즉 앓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단지 썩어질 '육신의 팔' 일 뿐이요 유다와 함께 하는 자는 '열방을 통의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만군의 하나님' (사 40:15) 이심을 확신시켰던 것이다.

(5) 백성들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권능을 배부실 것을 확신하게 믿음으로써 안심하게 되었다.

(6)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그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거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롬 8:31).

8. **㉠**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는가? (9절)

㉠ (1) 산헤립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를 포위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2)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은 산헤립은 라기스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술책을 썼다.

(3) 즉 신복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외치게 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교활한 술책으로써 도전해 온다. 그럴 때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몰리쳐야 한다 (벧전 5:8, 9).

9. **㉠** 산헤립이 신복들을 통해 예루살렘 거민에게 외치게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10-15절)

㉠ (1) 산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악의를 품고서 그의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충성을 버리도록 종용했다 (10-12절).

(2) 또한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즉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과 같이 취급하여 유다 백성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호언 장담했다 (13-15절).

(3) 이러한 산헤립의 말들은 결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인 협약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4) 오히려 유다에 대하여 단순한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한 셈이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自招)하는 자이다 (참조, 마 21:44).

10. **㉠** '여호와와 산당들과 단들을 제해 버렸다'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1) 본문에서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었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2) 그리고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말한 것은 백성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산헤립이 이렇게 유다 민중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종교적인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이 나지 않았다.

(4)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는 불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성도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11. **㉠** 산헤립의 신복들은 어떻게 비방하였는가? (16절)

㉠ (1)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방의 신들처럼 무력하고 공허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방하였었다 (14, 15절).

(2) 그러나 산헤립의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로부터 무례함을 배운 그의 신복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더욱 심하게 비방하였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종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서는 매우 진노하신다(참조, 왕하 2:23, 24).

12. **㉠** 산헤립이 편지로써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한 내용은 무엇인가? (17절)

- ㉠ (1) 산헤립은 즉흥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훼방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어 훼방하였다.
- (2) 즉 그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열방의 신들과 같은 우상 신으로 취급하고 자기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육신의 팔’ (8절)보다도 못하다고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지극히 교만한 소치였다.
- (4) 더구나 이것이 편지로 쓰여졌다는 것은 산헤립이 심사 숙고한 끝에 말한 것을 뜻한다. 산헤립은 무례하게도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여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 (5) 오늘날도 심사 숙고한 글이나 신학으로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은 즉흥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 (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종말에 대해 ‘무릇 이 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 어지겠고 이 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흙으리라’(눅20:18)고 하셨습니다.

13. **㉠** 산헤립과 그 신복들이 독신적(瀆神的)인 말로 비방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20절)

- ㉠ (1)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침입에 대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대응책으로 삼았었다 (2-8절).
- (2) 이제 앗수르의 침입군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육박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극악한 말로 비방해 올 때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 논쟁하여 대꾸하지 않았다(왕하 18:36).
- (3) 대신 히스기야는 이 경우에도 신본주의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즉 산헤립에게 대답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4)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고소하는 말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다(마 27:12-14).
- (5)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 특히 그 비방이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일 때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논쟁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 해야 한다.

14. **㉠**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20절)

- ㉠ (1)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를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했다(왕하 19:15). 그리고 앗수르 왕의 훼방하는 말을 친히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왕하 19:16-19).
- (2)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한 목적은 자기나 자기 백성의 이익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만 홀로 참 하나님이신 사실이 만국에 증거되기를 원함이었다.
- (3) 따라서 히스기야의 간구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히스기야에 있어서 국난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였다.
- (4) 우리들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앞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요일 5:14, 15).

15. **㉠**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21절)

- ㉠ (1)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응답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하룻밤에 다 멸하셨다(왕하 19:35).
- (3) 산헤립은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자 ‘얼굴이 뜨뜻하여’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또 당하고 말았다.
- (4) 특별히 산헤립이 자기의 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실은 그의 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함을 입증한 것이고 또 모독하던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 (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16. **㉠**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24절)

- ㉠** (1)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에 질병을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또한 낮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왕하 20:2, 3).
 (2)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며 15년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왕하 20:4-6).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 주셨다.
 (4)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침입과 같은 외적인 환난 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는 내적인 고난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한 것이다.
 (5) 이처럼 우리도 고난에 처하였을 때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 5:13)라고 권면하였다.

17. **㉠** 히스기야의 실수는 무엇인가? (25-31절)

- ㉠** (1)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적을 물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2)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겸손히 여호와를 증거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유다의 보물을 보여 주며 자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왕하 20:10, 13).
 (3) 이러한 실수의 원인은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다(25절). 비록 히스기야가 그 교만을 누우치기는 했으나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말았다(26절).
 (4) 히스기야는 지극한 부와 영광으로 인해 그의 선조 여호사밧처럼(18:1) 오히려 실수하게 되었다(27-31절).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하고 부와 영광이 많을수록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일을 거울 삼아 ‘교만’이라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해야겠다(참조, 벧전 5:5-9).

18. **㉠** 본장의 사건들이 나타내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33절)

- ㉠** (1)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교만을 수치와 죽음으로 갚으셨다.
 (2) 한편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산헤립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적(敵)은 바벨론의 친선 사절단이었다. 즉 히스기야는 전자에 승리하였으나(21절) 후자에게는 실패하고 말았는데(31절), 그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
 (3)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성도의 가장 큰 적(敵)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 찾아오는 내적인 교만인 것을 배우게 된다.
 (4) 이것은 ‘길 가는 행인에게 모자를 벗기는 것은 강풍(強風)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 될 수 있다’라는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제 33 장 므낫세와 아몬

단락구분 1-9 우상을 섬기는 므낫세의 실정 / 10-11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 / 12-13 므낫세의 회개와 복위(復位) / 14-17 므낫세의 종교 개혁 / 18-20 므낫세에 대한 기록 / 21-23 아몬의 즉위와 실정 / 24-25 아몬의 비참한 종말

1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 오 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 그 부친 히스기야의 혈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5 또 여호와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 또 헌념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 하였으며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들지라

8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1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과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 간지라

12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4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이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밖에 던지고

16 여호와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17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18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전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새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20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이십 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을 치리하며

22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23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법하고

24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5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1. ㉞ 므낫세와 아몬의 치적을 비교 설명하라.

- A** (1) 본장에는 유다 14대 왕 므낫세와 아들 15대 왕 아몬의 치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2) 므낫세는 비참하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모든 악에 몰들었다(1-9절).
 (3)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을 당할 때 겸비하여 회개하였다(10-13절). 또한 그는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다(14-20절).
 (4) 이러한 므낫세를 이어 왕이 된 아몬은 므낫세의 초기처럼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다.
 (5) 므낫세와 아몬은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들은 똑같이 악을 행했으나 오래 산 므낫세(67세)는 회개하였고 아몬(24세)은 그렇지 못했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이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롬 2:4; 벰후 3:9).
- 2. C 므낫세의 재위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A** (1) 므낫세는 1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B. C. 697-642).
 (2)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왕 20명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다.
 (3) 므낫세는 통치 이후 50년간 우상 숭배를 하며 많은 악을 행하다가 B. C. 648년에 앗수르의 침입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 갔다.
 (4) 그 환난 가운데 므낫세는 회개하여 다시 왕위를 회복했고 그 후 5년간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여 비로소 선한 정치를 했다.
 (5)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 가장 긴 재위 기간을 누렸으나 그는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 우리는 오래 신앙 생활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 3. C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무엇을 본받은 것인가? (2, 3절)**
- A** (1) 그는 부친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2)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곧 그의 우상 숭배이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부친 히스기야는 헐어 버렸는데(31:1) 므낫세는 다시 세웠다.
 (3)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한다(롬 12:2). 세상적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 4. C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우상 숭배가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2) 오늘날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많이 섬기고 있다.
 (3) 즉 황금 만능주의에 따라 돈, 명예, 쾌락 등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다(마 6:24). 초대 교회 당시에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러 타락하였다(딤후 6:10).
- 5. C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6절)**
- A** (1) '점치다'란 악한 눈으로 미혹하였다는 뜻이다.
 (2) '사술' (邪術)이란 <히에쉬>의 번역으로 '뱀들을 지켜보았다'란 뜻을 지니며 보통 신들린 상태를 말한다.
 (3) '요술' (妖術)을 행하다'라고 한 것은 <키세프>의 번역으로 '염(念)을 증일증일거리다'란 의미이다(신 18:10). 이 말은 왕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참조, 왕하 21:6).
 (4)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전에 가나안에서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신 18:9-14).

- (5) 결국 므낫세도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11절).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롬 11:21) 고 경고하였다.

6. **㉠**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어떻게 약속하였는가? (7절)

- ㉠** (1)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殿)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들지라' 고 하셨다.
 (2)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택한'이란 말이 '예루살렘'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함 받은 도성임을 보여 준다.
 (3) 이처럼 예루살렘이 선택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였으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극히 구별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4) 그런데 므낫세는 그 성전에 '아로새긴 목상'을 세웠다. 이것은 이방 열방보다도 더욱 심한 악이었다(9절).
 (5) 신자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처럼 산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이다.

7. **㉠**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이방 열방보다 더욱 심히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2) 그러나 므낫세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야 하는 다윗의 왕가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다른 신들을 섬겼다.
 (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을 더럽혔고 그 선택하신 백성을 타락시켰다. 또한 므낫세는 백성들을 피어 열방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하게 하였다(9절).

8. **㉠** 므낫세가 우상 숭배보다도 더욱 큰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므낫세가 지은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악할지라도 마음을 들리고 회개하도록 하심이였다.
 (3)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은 귀를 막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앗수르 왕의 침입을 받아 큰 환난을 당해야만 했다.
 (4)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삼상 15:23)고 말씀하고 있다.

9. **㉠** 므낫세는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11절)

- ㉠** (1) 우상 숭배에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청종치 않았던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치셨다.
 (2) 그 징계는 앗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유다 왕 므낫세가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이었다.
 (3) 원문에는 '갈구리로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로 되어 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앗수르에 끌려가는 포로들은 종종 갈구리를 입술에 꿰고 두 줄의 쇠사슬로 발이 묶이우고 끌려 갔다.
 (4) 이사야는 이러한 징계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사 1:5)고 하였다.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므낫세의 일을 거울 삼아 징계의 채찍을 맞기 전에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

(6) 비록 자신의 잘못을 쉽게 뉘우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10. **㉠** 느닷세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12, 13절)

- ㉠** (1) 느닷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의 조부 아하스와는 달리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2) 느닷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행위와 환난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3)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을 깨달았고 그가 섬기던 우상들은 그를 도울 능력이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4) 그러므로 느닷세는 이제 회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배반했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5)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닷세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6)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15:4)는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11. **㉠** 느닷세의 종교 개혁은 어떠했는가? (14-17절)

- ㉠** (1) 느닷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
 (2) 느닷세는 죄를 지으면서 왕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했음을 깨닫고 성을 쌓고 군대 장관을 둠으로 자기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려 하였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였던 우상 파괴와 신앙 운동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개혁에도 힘을 썼다.
 (4) 그러나 느닷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신들'로부터 떠나게 했지만 '산당'으로부터는 떠나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백성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17절).
 (5) 이처럼 인간을 타락시키는 쉬우나, 그것을 바로잡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2. **㉠** 느닷세는 어떤 성을 쌓아 국방 사업을 시행했는가? (14절)

- ㉠** (1) 느닷세는 다윗 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外城)을 쌓았다. 그 외성은 동쪽으로 생선문(Gate of Fish) 어귀까지 이어지고 거기에 심히 높이 쌓은 오벨이 돌리어졌다.
 (2) 이 외성은 부친 히스기야가 쌓은 성을(32:5) 더 견고하게 보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윗 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는 다윗 성과 그 아랫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그곳은 다윗 성의 서쪽 방향을 지적한다.
 (4) '생선문 어귀'는 성의 동쪽 방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생선문은 아랫성 동북쪽과 하나넬 망대에 가까운 곳이다(느3:3).
 (5) '오벨'은 '솟아 오른'이라는 뜻으로 주로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불쑥 튀어 나온 언덕을 지칭한다.
 (6) 이렇게 느닷세는 앗수르의 침입을 받은 후 다윗 성의 동·서쪽으로 견고히 방어벽을 쌓은 것이다. 이는 느닷세의 회복된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3. **㉠** 느닷세의 남은 사적을 기록한 문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8, 19절)

- ㉠** (1)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行狀)'과 '호세의 사기(史記)' 등이 있다.
 (2)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이란 정경의 열왕기는 아니다. 열왕기에는 느닷세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왕하21:1-18). 따라서 그것은 열왕기와 비슷한 제목이 붙은 어떤 기록으로(대상29:29), 역대기 저자가 사용한 자료일 것이다.
 (3) '호세의 사기'는 70인역(LXX)에 '선견자들의 말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고유 명사인 '호세' 혹은 보통 명사인 '선견자들' 중 어느 것으로 번역해

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히브리어 <호제>는 선지자, 선견자의 뜻이 있다.

(4) 이러한 문서들에는 므낫세의 기도와 죄와 건과(愆過, unfaithfulness) 등이 다 기록되어 있다.

14. **㉠** 아몬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21-23절)

- ㉠** (1) 므낫세의 뒤를 이은 유다 15대 왕 아몬은 2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간 통치했다(B. C. 642-640).
- (2) 아몬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다(22절). 그러나 그는 그의 부친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함같이 어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23절).
- (3) 즉 아몬은 그의 부친처럼 죄악에 빠졌으나, 부친과 같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 (4)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니며, 무례함을 범하는 것도 그 무례함의 원인인 교만을 꺾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되지 않는다.
- (5)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치료를 무시하는 데에 있다.

15. **㉠** 아몬의 종말은 어떠했는가? (24, 25절)

- ㉠** (1) 아몬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한 신복들에 의해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다(24절).
- (2) 앞에서 므낫세는 악한 정치를 하다가 55년이나 오래 통치하는 중 말기에 회개하였으나(12절) 그 아들 아몬은 똑같이 악정을 하다가 회개할 틈도 없이 통치 2년 만에 죽고 말았다.
- (3) 만일 우리가 늙어서 신앙 생활을 잘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다가 젊어서 예기치 않는 죽음을 당한다면 아몬의 경우와 같은 생애가 되고 말 것이다.
- (4)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몬처럼 허탄한 생각 가운데 멸망치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약4:13-16).

본장의 요절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3절).

제 34 장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율법책

단락구분 1-2 요시야의 즉위 / 3-7 우상을 제하다 / 8-13 성전 수리를 시작하다 / 14-21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다 / 22-28 여선지 풀다의 권고 / 29-33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다

1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을 치리하며
 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는지 팔 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서 구하고 그 십이 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서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4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훼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뿔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6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 단들을 훼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뿔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들아왔더라
 8 요시야가 위에 있는 지 십 팔 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부운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9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불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0 그 돈을 여호와와 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불이니 저희가 여호와와 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
 11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불어 다듬은 돌과 연결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 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틀 만들게 하며
 12 그 사람들이 진실히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 중 스가라와 무솔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13 저희가 또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14 무리가 여호와와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와 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와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중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7 또 여호와와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9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몬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21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와 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22 이에 힐기야와 왕의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뎀의 아내라 예루살렘 들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며
 23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24 여호와와 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6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27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음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29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 이에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1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제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좇으니라

33 이와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유다의 3대 성군 중 마지막 왕인 요시야의 통치를 기록한 두 장(34, 35장) 중 에 첫번째 부분이다.
- (2) 요시야는 유다 16대 왕으로 즉위하여 선왕인 아몬 때에 다시 숭배되었던 우상들을 박멸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개혁 운동에 착수했다.
- (3)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야가 개혁 운동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 (4)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 운동의 지표요 추진력이 된다(참조, 히 4:12).
- (5)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119:105; 엡 6:17).

2. ㉠ 요시야의 통치 연대는 어떠한가? (1절)

- ㉠ (1)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다(B. C. 640-609).
- (2) 요시야는 즉위한 지 8년(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는 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 (3) 재위 12년(20세)에 개혁에 착수하여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였다(3절).
- (4) 재위 18년(26세)에 성전 수리를 하던 중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8-32절).
- (5) 같은 해에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사무엘 시대 이후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35:1-19).
- (6) 요시야는 재위 31년(39세) 되는 해에 애굽 왕 느고와의 싸움에 전사함으로 일생을 마쳤다(35:20-27).
- (7) 이러한 요시야의 생애 중에 본장의 율법책 발견과 35장의 유월절 준수가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다.

3. ㉠ 요시야의 신앙은 어떠한가? (2절)

- ㉠ (1)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2절).
- (2) 역대하에 나타난 유다 20왕 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8명이다(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웃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 (3) 그 8명 중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한 왕은 단 3명뿐이었다(유다 3대 성

군-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4) 역대기 저자가 유다 열왕 중에서도 오직 요시아에게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극찬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우리도 요시아처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히 12:2).

4. ㉠ 요시아가 재위 8년에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1) 요시아는 재위 8년, 즉 그가 16세되는 해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였다.

(2) 요시아는 매우 어린 나이(8세)에 왕이 된고로 나라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했고, 나라의 상황도 아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혼란했을 것이다.

(3)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경건한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다.

(4)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큰 축복이기도 하다.

(5) 요셉, 사무엘, 다윗, 그리고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Beza)는 16세 때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을 일찍 구하는 자들은 일찍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참조, 딤후 3:15).

5. ㉠ 요시아의 우상 파괴 운동은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3, 4절)

㉠ (1) 요시아는 즉위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 즉 그의 나라를 비로소 정결케 하고 남은 우상들을 제하였다(3절).

(2) 이때는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한 지 4년째 되는 해로 그의 나이 20세였다. 요시아는 4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을 구하며 자기 마음 안의 우상부터 제하며 종교 개혁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3) 그러므로 요시아는 산당과 목상들과 우상, 제단 그리고 우상의 모든 기구들을 훼파(毀破, 헐어서 깨뜨림)했다.

(4) 우리는 요시아가 므낫세처럼 그것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33:15) 그것들을 부수고 빵아 가루로 만들어 버린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5) 우리는 요시아처럼 죄악을 철저히 박멸해야 한다(참조, 롬 8:3, 4).

6. ㉠ 요시아는 우상 파괴 운동을 몇 년 동안 시행했는가? (3, 8절)

㉠ (1) 본문은 요시아가 우상을 훼파하기 시작한 때를 재위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왕하 23:23에는 1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아마도 요시아는 12년째 되는 해부터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으나 6년 후 율법책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 완전히 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3) 본문에는 '열왕기'에 특별히 폭넓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4)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요시아의 우상 파괴 운동은 재위 12년에 시작하여 재위 18년에 완성되어 6년 동안 계속되었던 셈이다.

7. ㉠ 요시아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던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5절)

㉠ (1) 이 사건은 약 300년 전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왕상 13:1, 2)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2) 그 예언의 말씀에는 '요시아'라는 이름이 분명히 밝혀져 있고 그가 사람의 뼈를 사를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다.

(3) 이처럼 요시아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마 5:18).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

대 소망을 두도록 해야 한다(시 119:49, 50, 116).

8. **㉠**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8절)

- ㉠** (1) 요시야는 즉위한 지 18년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다.
 (2) 그는 깨끗하게 된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일들(성전 의식)을 위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구들을 온전하게 구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이처럼 우리도 성전인 몸이 그리스도에 의해 깨끗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행해야 한다(참조, 고전 3:16, 17; 6:19, 20).
 (4)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가 있다(눅 11:24-26).

9. **㉠** 성전 수리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12절)

- ㉠** (1) 그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일을 하였다.'
 (2) 이렇게 성전 일군들이 근면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진실'이다. 진실한 자는 자연히 근면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일한다.

10. **㉠** 감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2절)

- ㉠** (1) 감독자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음악에 익숙한 자들였다.
 (2) 그들이 '음악에 익숙했다'는 것은 음악이 건축하는 데 유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재치있고 독창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이렇게 재치있는 자들은 선한 일, 특히 진실한 일군들을 감독하며 돕는 일에 재치와 독창력을 사용했다.
 (4)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각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것임을 깨달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11. **㉠** 담부(擔負) 하는 자와 감독자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13절)

- ㉠** (1) '담부하는 자' 들(the burden bearers)과 '공장'들(workmen)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 적합한 자들이었다.
 (2) 감독자들은 저희들을 관찰하고 감독하였고 더러는 서기와 관리의 문지기가 되었다.
 (3) 우리는 이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하게 그의 은사들을 분배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다.
 (4) 전자의 사람들이 손이었다면 후자의 사람들은 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으며 성전 일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필요했다.
 (5) 감독자들은 담부하는 자들을 업신여길 수 없었다. 또 직접 노동하는 자들은 그들을 지시하는 직책이 있는 자들을 시기해서도 안 되었다.
 (6)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은 서로 사랑으로써 존중해 주며 섬기도록 해야 한다(롬 12:10; 빌 2:3).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은사와 기질의 장점을 하나님 교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12. **㉠** 제사장 힐기야는 어느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는가? (14절)

- ㉠** (1) 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수리에 쓸 돈을 연보궤에서 꺼낼 때에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14절).
 (2) 이 율법책은 전에 므낫세가 모든 율법책의 사본들을 파괴시킬 때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성전의 모퉁이 돌 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3) 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하여 혹자는 신명기라고 하고 또는 모세의 율법 선집이라고 한다.
 (4) 비록 이 율법책이 완전한 모세 오경은 아니었더라도 요시야 왕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율법(Torah)의 일부다.
 (5) 그 책의 내용은 당시 유다 사람들의 타락을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명백히 보여 주

었다(19, 21, 24, 25절).

(6) 따라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개혁의 근거와 또한 참된 개혁의 방향 설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그 개혁의 참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7)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길을 비추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13. **㉠**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 19절)

㉠ (1) 이것은 매우 애통해 하는 자신의 심령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왕하19:1).

(2) 요시야가 이렇게 애통해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21절).

(3)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많다(마15:8).

(4)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요시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마3:7)을 느끼고 애통하여(마5:4)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할 것이다(율2:13).

14. **㉠**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후 무엇을 명했는가? (20, 21절)

㉠ (1)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의미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호와께 묻도록 명했다(20, 21절).

(2)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3) 이때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2:37)하고 묻게 되고 바울 앞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행16:30)하고 묻게 될 것이다.

15. **㉠** 여선지자 홀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2절)

㉠ (1) 홀다는 살룸이란 사람의 아내였다. 살룸은 제사장의 예복이나 왕궁의 왕복을 관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독학의 아들, 하스라의 손자였다. 이러한 족보의 기록은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2) 홀다는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살았던 여선지자였다. 그녀는 분명히 예언적 은사를 소유한 자로서 상당한 명성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홀다가 가까이 살고 있었고 명성도 있었기에 요시야의 신하들은 그녀를 찾아갔다. 홀다의 거주지인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 북쪽의 낮은 지대를 말한다.

(4) 이처럼 홀다는 드보라처럼(삿4:4)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성경의 여성도들은 신령했으나 평범했고 겸손했으며 조용했다.

16. **㉠** 홀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23-28절)

㉠ (1)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다(24, 25절).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겸비함과 애통함을 보시고 그를 열조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시며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3) 이러한 말씀들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격려를 준다.

(4) 우리의 겸비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땅에서 돌리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는 있게 한다.

17. **㉠** 요시야는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29, 30절)

㉠ (1) 요시야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29절).

- (2) 그런 후에 성전에 올라갔고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30절).
- (3)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알려 주고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 (4)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모으되 큰 자나 작은 자, 젊은이나 늙은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 등을 불문했다.
- (5) 그는 들을 귀있는 모든 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듣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6)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18. **㉠** 요시야는 어떻게 언약을 세웠는가? (31, 32절)

- ㉠** (1) 요시야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 준 후에 ‘자기 처소에 서서’ 자신이 먼저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다(31절).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했다(32절).
- (2) 이렇게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리라’는 것이었다.
 - (3) 이것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회중들에게 단지 들려 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함으로 신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도록 해야 한다.
 - (4)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고’ 먼저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함으로써 회중들도 뒤따라 오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19. **㉠** 언약을 세운 후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33절)

- ㉠** (1)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행했다(32절). 즉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선한 정치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 (2) 여기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라고 한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 (3) 즉 ‘요시야가 사는 날’이란 백성들의 신앙이 안정되어 있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백성들에게 ‘타락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암시해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 왕 때에 패역한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 읽어 보게 된다(렘 3:6-10; 25:3-7).
 - (5) 요시야는 성실하게 그의 일을 수행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여전히 우상에 집착했다.
 - (6) 이와 같이 개혁 사업이 지도자에 의해 훌륭히 계획되어 잘 수행되었어도 그 후대 백성들에게는 잘 계승되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 35 장 요시야가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다

단락구분 1-6 요시야가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명하다 / 7-9 유월절 제물 준비 / 10-15 유월절을 지키다 / 16-19 탁월했던 요시야의 유월절 / 20-25 애굽 왕 느고의 침입과 요시야의 전사 / 26-27 요시야에 대한 기록

1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십 사 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와 전에서 사무를 행하게 하고

3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제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4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5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6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좃아 행할지니라

7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삼만과 수소 삼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대

8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이천 육백과 수소 삼백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오천과 수소 오백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10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매 왕의 명을 좃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11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12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3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송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14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때까지 드리는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라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라

16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와 단에 드렸으며

17 그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칠 일 동안 지켰으니

18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19 요시야의 위에 있는 지 십 팔 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0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테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 활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25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26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27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요시아의 치적은 어떠한가?

- ㉠ (1) 전장에서 요시아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으로 개혁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 본장은 요시아가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서 유월절을 지킨 사실을 보여 준다. 말씀을 좇아 예비된 이 유월절은(6절)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기념될 만큼 탁월한 것이었다.
 (3) 그러한 선한 일을 하던 요시아는 애굽 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39세란 젊은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다.
 (4) 이와 같은 요시아의 후기 생애는 그의 종교 개혁에 무언가 아쉬운 여운(餘韻)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5) 비록 요시아가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거행하고 종교 개혁을 수행했는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참된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해진다(벧전1:18, 19).

2. ㉠ 본장의 유월절 기사를 왕하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 (1-19절)

- ㉠ (1) 요시아가 우상과 우상 숭배를 멸한 일에 대해 왕하에서는 크게 다루어져 있으나(왕하 23:4-20) 본서에서는 단 한 절로 간단히 언급되었다(34:33).
 (2) 그러나 왕하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유월절 준수의 기사가(왕하 23:21-23) 본서에서는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35:1-19).
 (3) 이러한 차이점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서로 강조점을 달리 했기 때문에 생겨 난 것이다.
 (4) 왕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우상 파괴를 강조했고 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유월절 제사를 강조했다.
 (5) 따라서 본장에 기록된 유월절 기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요 1:29).

3. ㉠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2-6절)

- ㉠ (1)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책을 엄숙히 행할 수 있도록 면려하고 지시하였다.
 (2) 아마도 요시아는 하나님의 전의 사무를 맡은 그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자기들의 태만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3) 성직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지 어느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들을 일깨워 그들의 직책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바울은 아키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부탁하였다(골 4:17).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 일을 먼저 감당하고 동시에 남의 일도 돌아보아 격려함으로써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빌 2:4).

4. ㉠ 요시아가 제사장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

- A** (1)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유월절을 위한 직분을 맡기고 성전에서 사무를 행하게 하였다.
 (2)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존 제도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3) 사실 제사장들의 반열은 이미 글로 기록되어 있었다(대상 24:1-31). 따라서 그 글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4)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직분도 인간에 의해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참조, 행 9:15).
 (5)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맡겨져야 한다(행 1:24;6:6;13:1-3).
5. **Q**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면려(勉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절)
- A** (1) 여기서 ‘면려하다’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이다.
 (2)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30:22)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로하였고 그들에게 후원을 약속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 사무를 행할 의욕을 더 뜨겁게 가질 수 있었다.
 (3) 지도자들은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질책보다는 사랑으로 위로 격려해야 한다. 이럴 때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협박보다는 격려함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6. **Q** 요시야는 레위인들에게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명했는가? (3절)
- A** (1) 법궤를 성전 안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지 말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명했다.
 (2) 아마 그 궤는 최초의 사악한 왕에 의해 지성소에서 우상을 위한 자리에서 치워졌거나(참조, 33:7) 아니면 히스기야의 명에 의해 성전 수리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 같다.
 (3) 아몽든 요시야는 법궤를 성전 안 제자리에 두고 그것을 이리저리로 옮기지 말 것을 명하였다.
 (4) 이제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다른 성전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봉사할 수 있었다.
 (5) 여기서 법궤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한 궤로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성도들의 복음 사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지 인간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7. **Q**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A** (1) 이것은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반차를 규정한 대상 23-26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2) 거기에는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무렵에 레위 자손을 모으고 그 중에 아론 자손 제사장을 24 반열로 나누는 장면이 나타난다(대상 23, 24장).
 (3) 결국 요시야는 성전 섬기는 일을 명할 때 왕의 권세로써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했던 것이다.
 (4)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설 때 반드시 자기 뜻보다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해야 한다.
8. **Q** 요시야는 유월절 양을 어떻게 예비하도록 당부했는가? (5, 6절)
- A** (1) 레위 족속의 차서(次序)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어린 양을 잡아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비할 것을 당부했다.
 (2)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는 ‘질서’와 ‘기록’과 ‘말씀’이다.
 (3)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질서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마음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는 원리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이다.

9. Q '스스로 성결케 하여' 라는 말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A (1) '스스로 성결케 하여'란 말은 유월절 제물을 예비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의 손발을 물로 씻고(출 30:18),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출 19:14, 15), 옷을 세탁해 입을 것을 가리킨다(출 19:10).
- (2) 이런 사실은 복음 사역자들의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제일 먼저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목적을 갖고 수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 (3) 이렇게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임할 수 있다.

10. Q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 중에 많은 가치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 놓은 동기는 무엇이었는가?(7절)

- A (1) 요시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 (2) 당시에 회중들은 일반적으로 유월절에 무관심했기에 유월절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만일 요시야가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 (4) 그래서 요시야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솔선 수범하여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다.
- (5) 이렇게 믿음이 깊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할 때 자신이 먼저 선한 일의 본을 보인다.

11. Q 요시야의 헌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8, 9절)

- A (1) 요시야가 솔선 수범하여 유월절 제물을 바쳤을 때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줄을 이어 요시야의 본을 따라 자신의 소유 중에 유월절 제물을 드렸다.
- (2) 그들은 각기 분량에 맞게 양과 수소를 가져와 '즐거이' 회생으로 드렸다(8절).
- (3) 이로써 어려워 보이던 유월절 제물 문제는 지도자들의 헌납으로 참으로 은혜스럽게 준비되었고 또 풍성하게 준비될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심으로 자기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들을 마련해 주시도록 섭리하신다.

12. Q 11절에 '피 뿌리는 순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A (1) 유월절 양을 잡은 후 고기를 먹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참조, 29:22).
- (2) 이 짐승의 피는 단 한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죄 사함에 대한 징표이다(히 9:12, 22).
- (3) 따라서 유월절 제사의 '피 뿌리는 순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걸음도 나아 갈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 (4)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13. Q 레위인들이 자기들과 제사장, 아삽 자손, 문지기들을 위해 성물을 예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 15절)

- A (1)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일로 바쁜 사람들도 만찬 때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준비했다.
- (2)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 주던 레위인들과 제사장, 아삽 자손, 문지기들도 그들 스스로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 (3) 성직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 (4) 또 대중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들 골방이나 집에서 예배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5) 교회 예배에서 설교자나 안내 위원이나 성가대나 청중이나 다 같은 죄인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성찬에 참여해야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14. **㉠**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16-18절)

- ㉠** (1) 요시야의 유월절 의식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왕하 23:21) 매우 정확하게 행해졌다(16절). 그리고 많은 백성이 참여한 가운데 지켜졌다(18절).
- (2)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기쁨 가운데 긴 기간(14일) 동안 지켜졌으나 규례에 어긋난 점들이 있었다(30:1-27).
- (3) 요시야는 다윗이나 솔로몬, 또는 여호사밧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못했으나; 그 어느 왕보다도 정성스럽게 스스로의 제물을 바쳐 회중들이 모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였다(7절).
- (4) 이런 점에서 요시야의 유월절은 사무엘 시대 이후 시행된 모든 유월절 제사보다 가장 탁월하였던 것이다.
- (5)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가는 그들의 경건의 열심을 보고 알 수 있다.

15. **㉠**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와 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22절)

- ㉠** (1) 여기서 '애굽 왕 느고'는 23:1에 언급한 느고 1세가 아니고 그의 손자인 느고 2세(재위, B. C. 610-595)이다.
- (2) 느고는 수리아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유브라테 강가의 갈그미스(Carchemish)를 치고자 했다(20절). 갈그미스는 유브라테 강 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하란 서쪽 약 80km 지점이며 헷 제국의 동부에 속했다.
- (3) 느고는 유다를 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단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 팔레스틴을 통과하고자 하였다(21절).
- (4) 그런데 느고가 보낸 사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원인은 요시야에게 있었다.
- (5) 성도들은 아무리 이방인의 관계라고 해도 무조건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는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한다(롬 12:18).

16. **㉠** 22절의 '므깃도'는 어느 지점인가?

- ㉠** (1) 므깃도는 사마리아 북부 이스라엘 골짜기의 서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중요 도시로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후 잇사갈 지파의 영역에 속해졌다(수 12:21).
- (2) 이 성읍은 팔레스틴 내륙에서 베니게로 나가는 길목이었고 또한 애굽에서 수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통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교통의 요지(要地)였다.
- (3) 그래서 솔로몬은 지방 도시 중 하나였던 왕실의 병거성으로 승격시켰는데 (왕상 9:15-19) 최극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당시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17. **㉠** 느고와의 싸움에서 요시야가 전사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20-24절)

- ㉠** (1)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사하였다.
- (2) 요시야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던 성군이었으나 이 한 가지에서 실수하였다.
- (3)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덤비면 실패한다.
- (4)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행동하려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18. **㉠** 요시야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22절)

- ㉠** (1) 느고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그가 요시야에게 한 말(2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 (2) 만일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면 적어도 애굽 왕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일을 의논했어야 했다.
- (3) 그러나 요시야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 (4) 이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경우를 본받아야 했다. 다윗은 ‘내가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히시겠나이까’라고 기도하였다(삼상 23:2,12;30:8;삼하 2:1).
- (5) 우리가 가는 길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번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잠 3:6).

19. **㉠**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하여 지은 애가(哀歌)는 어디에 수록되었는가? (25절)

- ㉠** (1) 예레미야의 이 애가는 본절의 끝에 언급된 애가집에 수록된 것이 확실하다.
- (2) 이 애가집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애가’와는 다른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기서 언급한 애가보다 후대의 것으로 B. 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쓰여진 것이다.
- (3) 다만 렘 22:10, 18과 속 12:11은 여기서 언급한 고대 애가를 암시한다.

연구자료

갈그미스(Carchemish). 히브리어로 <카르크미스>라 불리우는 이 지명의 뜻은 ‘그미스의 신전’이다. 이곳은 고대 헷 제국의 수도 중 하나로서 주요한 전략 지대인 동시에 B. C. 18세기경의 무역 중심지였다. 이곳은 알렙포(Aleppo)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 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의 서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예라블루스(Jerablus; 이 말은 그리스어 Hieropolis가 와전된 것임)로 불리운다. 갈그미스는 무엇보다도 격전지로 유명하였는데 성경은 물론 일반 역사서들도 이곳을 전쟁터로 기록하고 있으며 고고학적 사료(史料)들은 특별히 ‘갈그미스 전투’(the battle of Carchemish, B. C. 605)의 기록을 입증하고 있다. 본래 갈그미스는 사쿠루누와(Shakhurunuwa)와 탈미 테슉(Talmi-Teshub) 같은 헷 족속의 왕들에 의해 다스려졌었는데 피시리스(Pisiris) 왕 때에 이르러 앗시리아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버렸다(B. C. 717, 참조, 사 10:9). 그러나 앗시리아는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이때 앗시리아를 도우러 왔던 이집트의 바로노고 2세(Pharaoh-nechoh II)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전하므로써 갈그미스는 새로이 바벨로니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참조, 20절). 그 후 이 도시는 급격히 쇠퇴해 버리고 말았으니 1912년 영국의 고고학 탐사반에 의해 이곳의 발굴 작업이 시작됨으로써야 비로소 유적으로나마 당시의 영화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제 36 장 유다 왕국의 멸망

단락구분 1-4 여호아하스가 느고에 의해 폐위당하다 / 5-8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 9-10 여호야킨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 11-16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패역 / 17-21 유다 왕국이 갈대아 왕에 의해 멸망당하다 / 22-23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詔書)

1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2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삼 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달에

3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일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4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5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일 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7 느브갓네살이 또 여호와와 그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8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 여호야킨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 세초에 느브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와 그의 전의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 가고 그 아자비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11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 일 년을 치리하며

12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13 느브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끈계 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

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니

16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와 그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와 그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 또 하나님의 전은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20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 르니라

21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우리는 요시야가 죽은 후 그 찬란하던 종교적 광명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마침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맞이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 (2) 즉 요시야의 뒤를 이은 네 왕은 다같이 이방 왕들에 의해 수모를 당했고 또 불과 23년 만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운(悲運)을 맞보게 되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유다의 멸망은 네 왕들의 각 통치 때마다 행해진 국가적인 범죄에 의해 재촉되어졌다.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시드기야의 사악함(12, 13절)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14절)라고 볼 수 있다.
- (4) 이러한 유다의 멸망은 '구약의 빛이 서서히 사라져 감을 의미한다. 구약의 빛이 희미해져 감은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나타내 준다.

2. ⓐ 요시야 이후의 네 왕들은 어떤 운명에 처했는가?

- Ⓐ (1) 요시야의 아들이며 유다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즉위하여 석달을 치리하는 중(B. C. 609-608) 악을 행하다가(왕하 23:32) 애굽 왕 느고에게 폐위된 후 애굽으로 끌려갔다.
- (2)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으로서 애굽 왕에 의해 25세에 즉위하여 11년을 치리하며(B. C. 608-597)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
- (3) 19대 왕인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세(왕하 24:8)에 즉위하여 석달 열흘을 치리하며(B. C. 597) 악을 행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되어 갔다.
- (4) 20대 왕인 시드기야는 여호아하스의 동생으로 21세에 즉위하여 11년을 치리하며(B. C. 597-586) 악을 행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왕하 25:6, 7, 22).
- (5) 이렇게 네 왕들은 재위 기간 중 이방 왕에게 수난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6)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비록 왕과 같은 권세가 주어져도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말 것이다.

3. ⓐ 여호아하스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1-4절)

- Ⓐ (1) 여호아하스는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애굽으로 잡혀 갔다.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많은 벌금을 물게 되었다(2-4절).
- (2) 이 젊은 왕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록은 없지만 그가 만일 부친 요시야의 경건한 길을 따랐다면 그는 좀더 오래 다스렸을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아하스의 부친인 요시야가 경건한 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면할 수 없다고 하셨다(겔 18:1-4, 24).
- (4)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照明)을 받는다면 생활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참조, 요 3:3, 5; 고전 2:10-16; 갈 5:22, 23; 요일 4:1-6).
- (5)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참조, 엡 2:8).

4. ⓐ 애굽 왕 느고는 유다의 내정(內政)에 어떻게 간섭하였는가? (4절)

- Ⓐ (1)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아김을 왕으로 임명했다.
- (2) 더 나아가서 엘리아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갈아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전왕(前王)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볼모로 삼았다.

- (3) 이렇게 유다의 속적인 애굽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에게 제멋대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유다에게 매우 수치스런 일이었다.
- (4) 느고는 경건한 요시아에게는 화평하기를 원했지만(35:21) 불경건한 여호아하스와 엘리아김 때에는 지나치도록 내정을 간섭했다.
- (5)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더 마귀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5. ㉠ 여호야김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6-9절)

- ㉠ (1) 여호야김은 그 동생 여호아하스에 이어 왕이 된 후 비교적 긴 11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 (2) 그는 가증(可憎)한 일을 많이 행했고 또 심술(心術, the abominations)을 행했다. 그의 '심술'은 아마도 그가 마음 속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 (3)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잡혀 가는 수치를 당했다. 또 성전 기구들을 약탈당했다.
- (4) 비록 여호야김이 애굽 왕과는 화평의 관계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또 다른 이방인 바벨론 왕에게 침략과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 (5) 아무리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러한 선린 관계(善隣關係)도 아무 유익이 없이 수치를 당하고 만다.
- (6) 천만인의 원수가 둘러치려 하여도(시3:6)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시25:3).

6. ㉠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어느 곳에 두었는가? (7절)

- ㉠ (1)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 간 후 또 성전에 있던 가장 훌륭하고 귀한 기구들을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다 두었다.
- (2) 그 이유는 당시 어느 나라의 신당도 예루살렘의 성전만큼 훌륭하게 기구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사실 유다의 우상 숭배 죄는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 성전에 갖다 둔 것이었다.
- (4) 이제는 거기에 대한 벌로 그 성전의 기구가 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데 이용되었다.

7. ㉠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은 어떤 죄악들을 가리키는가? (8절)

- ㉠ (1)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은 렘 26:20-23과 36:21-23에 잘 나타나 있다.
- (2) 첫째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죽이는 가증한 죄를 지었다. 곧 기랴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이 경고의 예언을 했다. 이에 여호야김은 애굽으로 피신한 그를 끌어 와서 칼로 죽였다(렘 26:20-23).
- (3) 또한 그는 '예언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에 태우는 죄를 지었다. 여호야김 5년(B. C. 604)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방백 여후디가 읽을 때 여호야김은 회개하기는 커녕 소도로 그것을 베어 불 피운 화로에 넣어 태워 버렸다(렘 36:21-23).
- (4)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증한 행위'이다.
- (5) 오늘날에도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는 여호야김의 말로(末路)와 같이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다.

8. ㉠ 여호야긴의 통치는 어떠하였는가? (9, 10절)

- ㉠ (1) 여호야김이 죽자 그 아들 여호야긴(혹은 여고니야, 대상 3:16)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 18세로 100일 동안 치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9절).
- (2) 여호야긴은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가고 성전 기구도 약탈당하였다(10절).
- (3)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왕위까지 폐하고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임명했다.

- (4)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수모를 합한 만큼 징벌을 받았다. 이것은 유다의 왕과 백성의 죄악이 그만큼 심해졌음을 보여 준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 간다(딤후 3:13).
- (6)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

9. **㉠**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0절)

- ㉠**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찌기 여호야김의 말로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렘 22:24) 본절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 (2) 먼저 예레미야는 고니야(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와 그 모친이 다른 지방으로 쫓겨 나리라고 예언했는데(렘 22:26) 이는 여호야김과 그 모친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되어 끌려감으로써 성취되었다(왕하 24:12).
- (3) 또한 다시는 유다로 되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예언(렘 22:27)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렘 52:31-33).
- (4)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렘 22:30) 과연 여호야김의 왕위는 그의 아들이 아닌 숙부 시드기야가 계승하고 말았다(왕하 24:17).
- (5) 이처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자는 멸망당할 이 세상과 함께 심판될 것이다(참조, 벧후 3:1-7).

10. **㉠** 시드기야의 통치는 어떠한가? (11-13절)

- ㉠** (1) 시드기야는 전왕(前王) 여호야김의 아자비(숙부)로서 요시야 왕의 세째 아들이었다(대상 3:16).
- (2)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마지막 왕인 20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 (3) 시드기야는 11년간 치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고, 그 이후 회개해야 할 때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12, 13절).
- (4) 이러한 시드기야의 타락과 함께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크게 범죄하였다(14-16절).
- (5) 이리하여 사울 이래 463년간(B. C. 1050-587) 계속되어 오던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다(17-21절).
- (6) 요시야 때는 백성이 타락해도 지도자가 경건하였기에 평안함이 있었다(34:33). 그러나 시드기야 때는 지도자와 백성이 다같이 타락했다.
- (7) 이러한 사실은 국가나 교회나 어떤 종교 단체이든지 피지도자와 지도자가 다같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11. **㉠** 시드기야 시대의 범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12-16절)

- ㉠** (1) 말씀을 멸시하는 범죄이었다. 즉 왕인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무시했다(12절).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13절).
- (2)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이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전을 더럽혔다.
- (3)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16절).
- (4) 말씀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고전 3:17).

12. **㉠** 유다가 멸망 후 토지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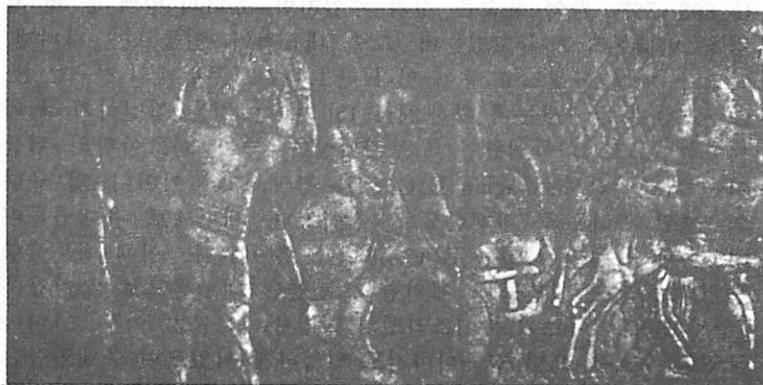
- Ⓐ (1) 이것은 적당한 때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유대인들의 희망을 고무하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2) 만일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타인들이 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경작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땅을 회복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 (3) 그러나 그 땅은 비록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소유지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떤 다른 소유자가 차지하는 것은 용납치 않았다.

13. ㉔ 역대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36:22, 23)은 열왕기의 마지막(왕하 25:27-30)과 대조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2) 즉 열왕기는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은혜를 베풀어 여호야긴 왕을 풀어 주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어 왕의 개인적 운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 (3) 그러나 역대기는 바사 왕 고레스의 은혜스런 칙령에 의해 유다 온 백성이 풀려나 귀환되는 사실로 끝을 맺어 왕가보다는 전백성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었다.
- (4) 이러한 역대기의 결론은 열왕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역사의 결론이 된다.
- (5) 이제 예루살렘에 기초한 옛 언약의 빛이 사라지는 대신 그리스도에 기초한 새 언약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 (6) 우리는 이러한 구약적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구원키 위해 오시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철폐한 온 인류 중의 택한 백성을 구원키 위해 오셨다(참조, 엡 2:4-18).

화보자료

강제 이주. 아래의 사진은 강제로 이주당하는 피정복 국가의 백성을 나타낸 부조(浮彫)로서 B.C. 7 세기의 것이며 니스웨에서 출토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다(20절)는 것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예언되었으며(사 39:7; 렘 13:19)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리라는 것도 예언되었다(사 11:11; 슥 10:10).

연구자료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幽囚) 및 귀환의 역사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한 집단이나 한 민족과 같은 공동체를 국외로 추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일명 '유수 정책'(幽囚政策)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흔히 적대시하는 민족의 세력을 분쇄하거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 일례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곧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 사건이다(20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살아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11-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며 '여호와 신앙'을 지속시키려고 계획하셨으니(참조, 사 44:24-28) 때가 이르자 그 경륜을 따라 유대인들은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22, 23절). 본장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바 본고(本稿)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 한다.

1. 바벨론 유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최초의 경우는 애굽과의 갈그미스(Carchemish) 전투를 끝낸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 B. C. 605-562)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던 B. C. 605년의 일이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대신한 여호야김(Jehoiakim, B. C. 608-597) 왕의 목숨은 살려 주었지만 유다의 방백 중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갔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등이 있다(단 1:1-7). 두번째의 경우는 B. C. 597년에 발생했는데(왕하 24:1-16) 여호야김을 정벌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느부갓네살은 죽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Jehoiachin, B. C. 597) 왕과 그의 어머니 및 유다의 고위 관리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세번째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유수된 사건은 B. C. 586년에 일어났다. 이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빈민들을 제외한 시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5장).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멸망(B. C. 722) 이후 그나마 국권을 수호해 오던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식민지인으로 서러움을 겪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인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동남쪽 뿔풀(Nippur) 근처에 있던 그발 강(Chebar River)가의 텔아빔(Tel-Abib)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음을 증

거하고 있기도 하다(겔 3:15).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 전쟁 포로와는 달리 바벨론 왕실의 보호를 받았으며 자유롭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종교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와 친교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임에 의해서였는데 저들은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며 고국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날로 불태웠다(참조, 시 137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토지를 일구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렘 29:5) 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었으므로(참조, 겔 17:4) 어느 정도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관습에 동화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아람어(Aramaic)를 사용하고 우상을 용납하며 이교 의식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에스겔과 같은 인물을 중심하여 단합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재건할 날만을 소망하였으니 그 같은 희망이 성취될 전조(前兆)로 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왕의 석방이 이루어졌다(B. C. 560, 왕하 25:27).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날이 왔으니 그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Cyrus II)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이다.

2. 귀환

B. 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는 같은 해에 유대인들의 본국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공포하였다(스 1:1-4). 이에 스룹바벨(Zerubbabel)이 이끄는 최초의 유대인 귀환자들과 예수아(Jeshua)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地畝)를 놓았다(스 3:8-13). 그 후 계속되는 성전 건축 공사는 방해자들의 책동에 의해 일시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B. C. 517년에야 겨우 완공을 보게 된다(스 6:15). 한편 에스라가 이끄는 두번째 귀환자들은 B. C. 457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스 7:7, 8).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당시 그곳에 만연해 있던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일환으로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며 안식일 준수를 피하였다(스 8-10장). 이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Artaxerxes I, B. C. 464-423) 밑에서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도 B. 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느 3장).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유수 이후의 유대인 사회를 재정립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인이 유다(Judah)의 단축형인 '유대인'(Jew)으로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